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어 문 학

제 65 권

JOURNAL OF KIM IL SUNG UNIVERSITY
Philology and Literature Vol. 65 No. 2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

주체 108(2019)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주체108(2019)년 제65권 제2호
어 문 학 (루계 제546호)

차 례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주체108(2019)년
어문학 제65권 제2호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의 발생발전과 형상적특징

김 철 민

1. 서 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계몽기문학을 포함한 근대문학의 발생발전과 시기구분, 형상적특징과 창작방법, 문학사적위치와 그 의의 같은 문제를 우리 나라 문학발전의 특수성과 결부시켜 과학성있게 해명하여야 한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172페지)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이룩된 계몽주의문학의 성과와 경험을 분석일반화하는것은 지난 시기 인류가 창조한 정신문화적재부를 귀중히 여기고 풍부히 하며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미래의 사회적진보에 이바지하는데 의의가 있다. 세계의 우수한 문학유산에는 각이한 시대, 각이한 나라 인민들의 다양한 민족생활과 그들의 투쟁이 반영되여있으며 인류가 력사적으로 이룩한 창조적지혜와 재능, 슬기, 귀중한 경험과 교훈이 담겨져있다.

계몽주의문학은 동서방에서 다같이 문학의 발전과 근대사회력사발전에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여러 나라에서의 계몽주의문학의 발생발전은 나라와 지역에 따라 일련의 차이를 가지고있으며 창작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이 문학발전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도 다르다.

유럽에서 계몽주의문학은 《자유》, 《평등》에 대한 리상을 제기하고 봉건사회로부터 근대사회에로의 이행을 촉진하였다. 이 문학은 낡은 봉건주의에서 벗어나 근대적발전에로 나아가려는 당시 사람들의 지향과 감정을 반영하고 중세문학의 환상적이고 미신적이며 미숙한 형상수법과 낡은 도식을 버리고 현실그대로의 진실성과 생동성을 보장하며 문학형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계몽주의문학은 지난 세기 인문주의문학에 비하여 근대적풍격을 한층 더 높이였으며 19세기 소설문학을 포함하여 사실주의문학의 발전에 밑천으로 되는 많은 귀중한 창작경험을 쌓았다.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은 유럽의 나라들과 달리 사회력사적조건이 다르고 문학적토대와 발생경위 그리고 창작자들의 구성과 준비정도 등에서의 차이로 하여 일련의 특징을 보여주고있다.

계몽주의문학연구방법을 놓고보아도 일련의 특징을 찾아볼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계몽기문학의 발생발전은 세계 여러 나라 계몽주의문학일반의 공통적인 특징과 함께 당시의 구체적인 사회력사적환경과 창작자들의 구성, 형상적수법의 차이 등으로 하여 일련의 새로운 특징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지난 시기 계몽기문학에 대한 연구는 계몽기문학의 형성발전과 그것이 이룩해놓은 모든 성과와 경험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일반화로 되여있다.

이 론문에서는 계몽주의문학에 대한 일반적리해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의 사상미학적원칙을 분석하고 그것이 발생발전해온 과정을 사회력사적환경과의 련관속에서 연구하였다. 서술방법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을 영국계몽주의문학을 비롯하여 여러 서유럽나라 계몽주의문학의 사상적기초와 발생시기, 주제사상적내용 그리고 문학형식과 비교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고있다.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은 개화사상과 반침략애국사상을 기초로 하여 19세기말～20세기초에 발생하였다. 주제사상적내용에서는 낡고 부패한 봉건주의와 봉건적유습에 대한 폭로비판과 함께 나라의 독립자주에 대한 강렬한 지향을 보여주고 중세기적락후성에서 벗어나 근대적문명에로 나아가려는 지향이 적극 찬양되고있다. 인물형상에서 외세를 물리치는 싸움에 나선 의롭고 애국적인 인물들을 많이 형상하고 독립정신을 강하게 나타내고있다. 세태묘사가 많고 구체적이며 인물들을 생활현실과 밀착시켜 그려나가고있으므로 사실주의적성격이 매우 강하다.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에 대한 연구는 보편적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연구가 비단 조선이라는 지역적한계내에 머무는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경과한 계몽주의문학에 대한 깊고 폭넓고 풍부한 지식을 주는것으로 하여 세계진보적문학유산의 풍부성과 다양성을 인식하는데 이바지하며 사람들의 문화정서생활을 풍부히 하는 사상정서적교양에 의의를 가지기때문이다. 또한 이 문학연구는 문학관계 연구자들뿐아니라 온 세상사람들에게 조선의 력사와 문화, 조선사람의 높은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심, 고상한 문화정서, 지혜와 재능, 미풍량속을 더 잘 알게 함으로써 우리 인민에게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며 세계 여러 나라 민족들과 나라들사이의 친선과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데도 의의가 있다.

2. 본 론

2.1. 우리 나라에서 계몽기문학의 발생발전

2.1.1.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의 사상적기초

계몽주의문학은 낡고 몽매한것을 깨우치고 보다 문명하고 근대적인 사회발전에로의 지향을 아름다운것으로 그리며 현실반영에서는 꿈과 같은 형상수법이 아니라 현실을 그 자체의 모습으로 들여다 볼수 있는 수법을 창조하는데로 지향하였다.

사상적립장과 사회적리상은 문예사조의 연구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진다. 창작자들의 세계관에 의하여 사회현실이 이렇게 혹은 저렇게 반영되며 형상창조의 원칙과 수법도 달라진다.

유럽에서 계몽주의문학은 17～18세기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 그리고 뒤이어 로씨야에서 발생한 반봉건적, 반그리스도교적인 계몽사상을 세계관적기초로 하고있다.

프랑스에서 계몽주의문학은 다가오는 부르죠아혁명을 앞두고 오랜 세월 봉건주의와 신분적예속에 짓눌리고 무지와 몽매로 하여 자기의 불행한 사회적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상정신적으로 준비시켜 근대사회발전을 위한 운동을 추진시켜나갔다.

이미 부르죠아혁명이 수행된 영국에서 계몽주의문학은 불철저하게 진행된 부르죠아

혁명이 남겨놓은 봉건적잔재에 대한 비판과 새롭게 자라나는 자본주의사회악에 대한 비판에 리용되였다.

유럽의 계몽주의자들은 사회현상을 대하는데서 《리성》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제기하고 사회적예속과 온갖 사회악을 낳는 낡고 부패한 정신도덕에서 벗어난 《자연적상태》의 인간과 그의 생활을 리상화하였다.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의 사상적기초에 놓여있는것은 주로 개화사상이다.

개화사상은 나라의 자본주의적경제 및 사회관계발전의 미숙성으로 하여 부르죠아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죠아적사회층의 리익을 자각한 오경석(1831－1879), 류홍기 등 중인출신인물들에 의하여 19세기 50년대부터 싹트기 시작하였으며 19세기 70～80년대에 이르러 김옥균(1851－1894)에 의하여 더욱 발전되고 일정한 체계를 갖추게 되였다.

개화사상은 봉건전제군주제도를 뒤집어엎고 부르죠아적정치제도를 세우며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령역에 걸쳐 나라를 자본주의적으로 발전시킬것을 지향한 부르죠아개혁사상이다.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의 근저에 놓인 개화사상은 당시 조선이 처한 구체적인 사회력사적현실의 요구로 하여 반침략애국사상과 밀접히 결합된것이 특징이다.

19세기말～20세기초에 우리 나라에서는 외세의 침략과 예속에 의하여 나라와 민족의 존엄이 무참히 유린되고있었으며 따라서 나라와 민족의 불행한 운명을 구원하려는 반침략애국투쟁이 벌어지고있었다.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단계로 넘어가면서 식민지분할을 위해 미쳐날뛰던 제국주의렬강들은 뒤떨어진 동방에 눈독을 들이게 되였고 조선에 대한 침략책동을 로골적으로 감행하였다.

우리 나라에는 외래침략자들의 마수가 뻗치기 시작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이 1875년에 도발한 《운양》호사건과 불평등적인 《강화도조약》의 강압체결을 실례로 들수 있다. 특히 일제의 1905년 날강도적인 《을사5조약》의 날조와 대규모적인 무력침공으로 하여 우리 나라는 자본주의발전의 정상적인 길을 걷지 못하고 식민지반봉건사회로 전락되게 되였으며 조선인민은 나라의 자주권을 무참히 침해당하고 예속되였다.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는 외래침략자들을 쳐물리치고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인민들의 대중적투쟁이 세차게 벌어졌다. 가장 대표적인것은 1894년에 일어난 갑오농민전쟁과 그 이후의 반일의병운동을 들수 있다. 이리하여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과 하나로 결합되고 나라의 근대적발전을 위한 투쟁은 반침략애국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였다.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의 많은 대표작가들이 다름아닌 의병장들과 애국렬사들이며 그밖에 외래침략자들에게 유린당하는 민족의 위기를 타개하고 나라의 근대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치문화운동을 활발히 벌린 애국적지식인들이라는 사실은 이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있다.

사회의 근대적발전을 위한 개화사상과 외래침략자들의 예속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려는 반침략애국사상은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의 사상적기초로 되였으며 계몽기문학의 형성발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2.1.2.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의 발생시기와 발전단계

우리 나라에서 계몽기문학은 19세기말～20세기초 일제의 조선강점을 전후한 시기 애국적지식인들이 벌린 애국문화운동을 직접적인 계기로 하여 발생하였다.

애국문화운동은 일제의 조선침략의 강화로 말미아마 처음부터 반일적성격을 농후하게 띠고 전개되였으며 1905년 11월이후 일제가 날조한《을사5조약》을 반대하는 전 민족적항거의 거센 불길속에서 새로운 앙양의 길에 들어섰다.

이 시기에 이르러 애국문화운동자들은 나라가 일제에 의하여 강점된 조건에서 국권회복을 전면에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한 기본방도를《내수외학》(안으로는 국력을 충실히 하고 밖으로는 선진국가에서 배우는것)과《교육 및 산업의 진흥》에 의한《자강》에서 찾았다. 그들은 단체들을 조직하고 교육운동, 출판활동, 국문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투쟁을 통하여 대중을 계몽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리였다.

여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교육운동이다. 애국문화운동자들은 민족의 성쇠와 국가의 존망도, 사람의 생존도 다 교육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나라의 독립자주와 근대적발전을 위하여 동포들의 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력설하였으며 교육사업에 모든 력량을 기울였다.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의 대표적작가들은 박은식(1860－1926), 리해조(1869－1927), 김택영(1850－1927), 장지연(1864－1921), 신채호(1880－1936) 등이다.

박은식은 소설과 연극의 사회교양적의의와 가치를 계몽주의적관점에서 정당하게 리해하고 강조하였으며 김택영과 장지연은 자기들의 시론과 시평들에서 문학의 사회정치적기능과 민족적독자성, 시의 사상적내용과 예술적형식의 결합 및 사상적내용의 선차적의의를 주장하였다.

신채호는 자기의 문예론설들과 평론들에서 인민들에 대한 애국주의교양과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문학이 노는 기능과 역할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한편 리해조는 소설《화의혈》(1912)의 서문에서 일반적으로 소설형태에서 생활반영의 다양성을 지적하고 자기의 소설이《재주가 민첩하지 못하고 문장이 황홀하지는 못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실생활을 한구절의 허언랑설도 없이 하나하나의 행동과 상태를 눈으로 그 사람을 보고 귀로 그 사정을 듣는듯 하여 선악간 족히 밝은 거울이 될만》하다고 썼다.

이것은 인간과 생활을 사실그대로, 객관적으로 진실하게 그리는 소설의 사실주의적묘사원칙을 옳게 리해하고 강조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은 19세기말～20세기초에 걸쳐 크게 두 단계에 걸쳐 발전하였다.

첫 단계는 갑오농민전쟁을 전후한 시기부터 일제의 강도적인《을사5조약》의 날조와 무력강점시기까지 즉 1890년대 중엽부터 1905년에 해당한다.

계몽기문학은 주로 력사전기들과 우화, 정론 같은 산문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창작되였다.

애국명장들의 투쟁내용을 서술한 력사전기들로서는《리충무공전》,《양만춘전》등을 들수 있다. 이 작품들은 애국명장들의 투쟁활동과 업적을 통하여 인민들에게 반침략애국사상을 고취하고 그들을 나라의 독립자주를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하였다.

또한 안국선의 우화《교활한 원숭이》,《호랑이를 등에 업은 여우》등에서는 일제의 강도적본성과 매국역적들의 반역행위를 폭로규탄하고 신교육과 신문화의 중요성을 형상

적으로 강조하였다.

반침략반봉건사상과 계몽사상을 선전하는 애국적인 정론들로서는 박은식의 《교육이 불흥이면 생존이 부득》, 《구습개량론》, 신채호의 《애국자》, 《력사와 애국심의 관계》,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 박성흠의 《애국론》, 주시경의 《국어와 국문의 필요》 등을 들수 있다.

정론들은 모두 《독립자주》, 《민권옹호》, 《산업발전》, 《교육의 진흥》으로 국권을 충실히 할것을 주장하였고 문명개화를 이룩할데 대한 사상을 고취하였다.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발전의 둘째 단계는 1905년이후부터 1910년대초까지로 볼수 있다.

이 시기 새로운 소설과 시형태인 신소설과 창가가 새롭게 탐구개척되고 적극적으로 창작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신소설이라는 말은 고전소설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소설이라는 의미로서 계몽기에 널리 씌여졌다. 신소설이라는 이름이 정식 씌여지기 시작한것은 1907년에 《만세보》신문에 신소설이라는 표제를 달고 소설 《혈의 루》(1906, 리인직)를 련재발표한 때로부터이다.

신소설은 그 내용에서 현실생활의 여러 측면을 소재로 하면서 《내수외학》, 《독립자주》, 《민권옹호》, 《문명개화》 등의 근대적인 개화사상을 기본으로 취급하였다. 또한 구성형식에서 중세소설의 고진감래식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현실적인 인물과 사건들에 기초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나갔으며 언어문체에서는 언문일치의 방향으로 나갔다.

신소설의 대표적인 작가는 리해조(1869—1927)이다. 그는 신소설의 개척자, 대표적인 작가로서 소설 《자유종》(1910), 《빈상설》(가난에 서리가 겹치다)(1908), 《구마검》(마술에서 벗어나게 하는 검)(1908), 《모란병》(1911), 《화의 혈》(꽃에 떨어진 피)(1911), 《비파성》(비파소리)(1912) 등 30여편의 소설들을 창작하였다. 그의 소설들은 소재와 등장인물들의 설정, 구성조직이 매우 다양하고 형상수법을 다채롭게 활용하고있는것으로 특징적인데 그 주제사상적내용은 독립자주와 문명개화에 대한것으로 일관되여있다. 그는 많은 신소설들과 함께 고전소설을 신소설형식으로 재창조한 《옥중화》(감옥에 핀 꽃), 《강상련》(강우에 핀 련꽃), 《연의 각》(제비다리) 등을 내놓았으며 외국소설 《철세계》를 번역소개하여 사람들에게 문명개화의 사상을 고취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당시 신소설을 쓴 작가들중에는 안국선, 김교제, 최찬식, 리상협 등도 있었다. 안국선(1854—1928)은 우화소설 《금수회의록》, 《공제회》 등을 창작하였고 최찬식(1881—1951)은 단편소설 《추월색》(1912), 《안의 성》(1912), 정치소설 《설중매》를 창작하였다. 김교제는 《현미경》, 《비행선》, 《목단화》와 같은 소설들을 창작하였다.

이 소설들은 봉건사회의 부패성과 모순을 폭로하고 나라의 독립과 문명개화를 이룩해나갈데 대한 사상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물론 신소설은 작가들의 계급적 및 세계관적제한성으로 하여 봉건사회제도에 대한 비판이 철저하지 못하고 반일내용이 뚜렷하지 못하며 사회변혁을 위한 과학적방도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일부는 반봉건투쟁을 부정적으로 대하는것과 같은 심중한 결함들도 나타냈다.

그러나 신소설은 주제사상적내용의 적극성과 생활반영의 진실성, 사실주의적묘사와 언문일치를 보장한 혁신성으로 하여 당시 인민들에게 근대개화사상을 고취하는데서 긍정적역할을 놀았으며 계몽기문학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창가는 신소설과 함께 계몽기문학의 발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창가가 애국문화계몽운동사상을 기본내용으로 한 운문시가형식으로서 처음으로 창작되기 시작한것은 1890년대이다. 당시의 《독립신문》 1896년 7월에 리용우가 창작한 《애국가》와 리중원이 창작한 《동심가》가 게재되였다.

창가는 애국문화계몽운동의 수단의 하나로 출현하여 처음에는 학생청년들속에서 불리우다가 점차 광범한 군중속에서 널리 불리워졌다. 당시 창작된 창가들가운데는 여러가지 내용들이 반영되여있었으나 주되는 내용은 나라의 《독립자주》와 《민권옹호》 및 《문명개화》의 사상이였다.

이 창가들은 나라잃은 민족의 슬픔과 침략자들에 대한 증오심, 나라의 독립과 자유, 문명개화를 하루빨리 이룩하려는 열망 등 인민대중의 사상감정과 시대적지향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시대적요구에 맞게 새롭고 다양한 시형식과 표현수법들을 적극 탐구도입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애국독립사상과 문명개화사상을 고취하고 사실주의적인 민족시가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이처럼 19세기말～20세기초 조선문학에서는 당대의 사회력사적현실과 미학적요구를 반영하여 반침략애국주의사상과 독립자주, 문명개화의 의지를 구현한 력사전기소설과 우화, 신소설과 창가 등 여러가지 형태의 작품들이 활발히 창작되였다.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은 1910년대초에 이르러 나라의 자본주의적발전을 완전히 가로막고 식민지통치를 영구화하려는 일제의 악랄한 침략책동으로 하여 조락되였으며 그 이후 작가들은 일제의 총칼이 살판치고 봉건적질곡과 구속에서 헤매이는 암담한 사회현실을 폭로비판하기 위한 비판적사실주의창작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2.2.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의 주제사상적내용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작품에서 주제사상적내용은 다양하다고 볼수 있다. 작품들은 독립과 개화리념의 해설과 선진문명에 대한 섭취로, 어떤 작품에서는 부패한 정치에 대한 비판, 봉건적신분제도에 대한 부정과 개혁의지로, 어떤 작품에서는 낡은 인습과 녀성인권을 유린하는 사회적악덕에 대한 비판으로 표현되였다.

실례로 신소설 《자유종》과 《설중매》는 봉건적신분제도에 대한 부정, 인간평등에 대한 지향을 기본주제사상적내용으로 하고있다면 신소설 《목단화》, 《모란병》, 《구마검》은 선진문명의 섭취를 주장하면서 문명개화의 리념을 구현하고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계몽기문학은 나라의 구체적인 사회현실적요구로부터 무엇보다도 반침략애국적인 《독립자주》의 리념을 주요주제사상적내용의 하나로 취급하고있다.

계몽기학자들이 《내수외학》의 구호를 들고 지식의 보급, 리성의 계발을 급선무로 내세운것도 다 외래침략을 물리치고 나라의 독립자주와 근대자본주의발전을 위한것이였다.

이것은 우선 반일애국주제의 의병가요들과 애국적시인들의 시문학작품들에서 찾아볼수 있다.

의병장 류린석(1842－1915)은 시 《양포》, 《강화도 양요》에서 렬강들의 침략을 규탄하고 의병들의 용감한 투쟁을 찬양하였으며 수많은 격문과 함께 시 《세상을 걱정하여》, 《망국노를 저주한다》, 《5적과 7적을 저주한다》, 《애국렬사를 추모하여》 등을 창작하여 열

렬한 조국애, 일제와 매국역적들에 대한 증오심을 표현하였다.

의병장 최익현의 시 《이 몸을 일으켜》, 전해산의 시 《옥중에서 읊노라》, 반일렬사 안중근의 시 《만세가》, 황현(1855—1910)의 시 《무산땅의 의병장 정시현의 죽음을 슬퍼하여》 등에서는 나라잃은 통분한 심정과 열렬한 조국애, 원쑤들에 대한 증오심과 분노의 감정, 나라의 독립에 대한 지향과 투쟁정신을 진실하고 뜨겁게 노래하였다.

이 시기에 창작된 의병장들과 애국적인 시인들의 시작품들은 시대적 및 계급적제한성이 있었으나 높은 애국적열정과 민족적기개를 앙양된 정서로 힘있게 노래한것으로 하여 계몽기문학의 사실주의적성격을 뚜렷이 하였으며 인민들을 반침략애국정신으로 교양하고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은 주제사상적내용에서 《문명개화》에 커다란 주목을 돌리고있다.

신소설 《현미경》, 《원앙도》는 식민지사회의 부패한 정치현실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개혁적의의를 표현하는것으로 문명개화의 리념을 구현하였고 《비파성》이나 《구마검》은 미신의 허황성과 해독성을 폭로하고 중세기적몽매에서 벗어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신소설 《귀의성》, 《모란병》, 《추월색》은 낡은 인습과 녀성들의 인권을 가혹하게 유린하는 사회적악덕에 대한 예리한 비판으로 문명개화의 리념을 구현하였다.

18세기 유럽에서 계몽주의문학은 여러 나라들에서 부르죠아혁명이 다가오고있던 시기에 그 사상적준비로서 진행된것만큼 반봉건적, 반그리스도교적인 리념을 주요주제사상으로 제기하였다.

실례로 프랑스의 보마르쉐(1732—1799)의 희곡 《쎄빌랴의 리발사》(1775)와 《피가로의 결혼》(1781)은 평민출신의 주인공들의 형상을 통하여 귀족계층의 기생충적인 생활과 무능력을 조소하고 귀족에 비한 평민의 정신도덕적우월성을 보여주었다. 루쏘(1712—1778)의 소설 《신엘로이즈》(1761)는 봉건적편견에 의하여 희생당하는 주인공들의 운명을 통하여 봉건륜리도덕과 신분적차별을 반대하고있다.

도이췰란드의 쉴레르(1759—1805)의 희곡 《도적들》(1781)에는 《질풍노도》시기 봉건령주들과 승려들의 전제주의적폭행과 위선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반항투쟁기운이 반영되여있다. 괴테(1749—1832)의 극시 《파우스트》(1808—1832)에서는 작가의 계몽주의적리상을 구현하고있는 주인공 파우스트가 인간생활의 의의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하여 걷는 편력과정을 기본줄거리로 하면서 인간생활의 의의는 진리를 탐구하는데 있으며 인간은 반드시 생활의 진리를 탐구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미 17세기에 부르죠아혁명이 수행되고 자본주의제도가 발생한 조건에서 영국계몽주의는 혁명의 결과를 공고히 하고 남아있는 봉건적잔재들을 청산하는 문제를 과제로 내세웠다. 이로부터 영국계몽주의문학은 소설 《로빈슨 크루소우》, 《갈리버려행기》, 《파밀라》, 《고아 톰 죤즈에 대한 이야기》, 《로더리크 랜덤의 모험》 등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주제사상적내용에서 봉건적잔재에 대한 폭로비판과 새로 수립된 부르죠아제도에 대한 지지와 긍정, 새롭게 자라나던 자본주의사회악에 대한 비판에 작가들의 많은 주의가 돌려지고있었다.

이렇게 놓고볼 때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은 그 주제사상적내용에서 《문명개화》의 리념이 반침략적인 《독립자주》의 리념과 결부된것이 특징적이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2.3.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의 형상적특징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의 형상적특징은 무엇보다먼저 《자연인》리상에 기초하여 리상적인 인물들을 기본으로 설정한 유럽계몽주의문학과는 달리 현실의 평범한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형상한것이다.

형상성은 인간과 그 생활을 현실에 있는 그대로의 구체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그려내는 문학예술의 특성을 표현하는 미학적개념이다. 형상성은 사회적의식의 다른 형태들과 구별되는 문학예술에 고유한 속성이며 문학예술의 생명력과 가치를 평가하는 본질적인 척도이다.

형상성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문학예술은 사람들을 미학정서적으로 감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형상성을 높이는것은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여기서 또한 중요한것은 인간과 그 생활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그리는것이다.

프랑스의 몽떼스큐(1689－1755), 디드로(1713－1784)와 루쏘(1712－1778), 도이췰란드의 괴테(1749－1832)와 쉴레르(1759－1805) 등 유럽계몽주의문학의 대표자들은 한결같이 문학작품들에 《자연인》리상에 부합되는 내용들을 반영할데 대한 미학리념을 제기하고 구현하였다. 그들은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구호밑에 문학예술에서 《자연인》리상을 제시하고 그와 관련한 일련의 리론을 내놓았으며 그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예술형식과 내용을 반대하였다.

몽떼스큐는 소설 《페르샤인의 편지》(1721)에서 프랑스에 온 페르샤사람들의 편지를 통하여 당시 프랑스봉건전제주의제도를 대담하게 부정하고 새로운 국가정치제도인 립헌군주제를 실시할데 대한 계몽주의적리상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디드로의 소설 《수녀》에서는 금욕주의에 의하여 《자연적인간》의 모든 아름다움과 권리가 짓밟히는 녀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교회의 반동적죄행을 폭로하였다.

루쏘의 소설 《에밀》에서 에밀의 양육을 맡은 교사가 조물주의 손에서 태여날 때에는 누구나 선량했던 사람이 타락하는것은 이 세상의 습관과 교육법이 글러먹은데 있다고 보고 사람을 《자연인》으로 키울데 대한 리상밑에 25년동안 에밀을 외적인 환경(사회와 가정)이나 습관과 편견의 나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아이에게 있는 자연적인 싹을 될수록 조장시키는데 기본을 두고 교육을 진행하는것도 같은 실례이다.

영국의 대니얼 디포우(1660－1731)의 소설 《로빈슨 크루소우》(1719)와 죠너선 스위프트(1667－1745)의 풍자소설 《갈리버려행기》(1726)도 같은 실례로 된다. 《로빈슨 크루소우》의 주인공 크루소우가 28년동안이나 사회와 동떨어진 무인도에서 겪는 생활을 위주로 하여 그린것이라든가 《갈리버려행기》에서 《작은 사람들의 나라》, 《큰 사람들의 나라》, 《날아 다니는 섬》, 《말들의 나라》 등 4편으로 구성하고 내용을 전개한것은 다 계몽주의작가들의 《자연인》리상에 기초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에서는 주인공들로서 평민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자연인》으로 형상하던 유럽계몽주의와는 달리 당시 조선의 구체적인 사회력사적현실의 가장

절박한 사회정치적문제인 독립자주에 대한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인물들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생활모습으로 그에 대한 해답을 줄수 있게 성격형상을 창조하는데로 지향하였다.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에서는 우선 반일의병, 반일애국렬사 등의 인물들을 설정하고 그들이 지닌 반침략애국사상과 민족적독립사상을 진실하게 형상하였다.

의병가요들인 《의병대가》, 민요 《군바바》에서 원쑤치러 나아가는 의병대의 충천한 기세와 투지, 전투모습과 용맹,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경멸의 감정은 당시 사람들에게 독립자주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데 대한 열렬한 호소를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잘 표현하였다.

구전설화작품인 《평산의병설화》, 《백명굴전설》 등은 일제침략자들로부터 자기의 고향마을과 나라를 지켜싸우다가 장렬한 최후를 마친 평산의병들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는 불굴의 애국적기개를 통하여 사람들을 반침략애국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이밖에도 반일의병장들이 창작한 《세상을 걱정하여》(류린석), 《이 몸을 일으켜》(최익현), 《옥중에서 읊노라》(전해산)와 반일렬사 안중근의 시 《만세가》 등은 서정적주인공—반일의병장들과 반일애국렬사들의 가슴속에 끓어넘치는 원쑤격멸의 투지와 애국적절개, 나라의 독립에 대한 불타는 열망을 진실하고 뜨겁게 형상하였다.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에서는 또한 애국적인 개혁활동가들의 형상창조와 함께 문명개화사상에 열렬히 공명하는 녀성들의 형상도 창조하였다.

《현미경》의 리협판, 《치악산》의 리판서, 《홍도화》의 김창서와 같은 개화사상을 가진 혁신파 상층관료들과 《몽조》의 한대홍, 박주사와 같은 애국적인 개혁활동가들을 실례로 들수 있다. 또한 《설중매》의 리태순, 《모란병》의 황수복, 《치악산》의 홍철식도 근대문명에 대한 지향을 체현한 젊은 개화인물들의 형상이다.

신소설 《목단화》의 리정숙, 《모란병》의 현금선, 《설중매》의 장매선은 신교육을 받은 개화녀성들이며 《자유종》의 신설현, 《몽조》의 정부인 등은 문명개화사상에 열렬히 공명하는 녀성들의 형상이다.

이처럼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에서는 대체로 긍부정인물관계설정에서 긍정인물을 개화의식의 소유자로, 부정인물을 완고한 봉건적수구사상의 체현자로 만듦으로써 날로 허물어져가는 봉건사회의 부패상에 대한 비판과 함께 낡은 사회의 몰락과정이 사실주의적으로 반영되여있다. 나라의 독립과 《문명개화》, 《민권옹호》, 미신타파에 대한 지향은 우리 나라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고있던 외래침략자들과 그들의 앞잡이들에 대한 증오심과 결부되여있다.

형상창조 즉 인물설정과 성격형상에서 보게 되는 이 특징들은 유럽 여러 나라 계몽주의문학들과 구별된다.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의 형상적특징은 다음으로 새로운 형상수법을 탐구하고 번역, 번안소설이라는 새로운 문학형태를 개척한것이다.

형상수법은 문학예술작품에서 형상창조에 리용되는 수법이다.

묘사수법, 구성수법, 표현수법 등이 여기에 포괄된다. 형상수법은 작품의 형식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내용의 형상적질을 보장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어떤 형상수

법에 의거하였는가에 따라 작품의 질과 특징, 양상, 문체, 형태가 규정된다.

례를 들어 소설가가 1인칭설화법과 정서적내면독백의 수법을 썼다면 작품은 서정성이 강한 1인칭소설로 될것이고 의인화와 상징의 수법을 위주로 했다면 우화소설로 될것이다.

유럽의 계몽주의문학에서는 봉건제도를 반대하여 투쟁하며 문학예술작품을 통하여 사회여론에 적극적인 영향을 주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웠다. 계몽주의작가들은 봉건적인 신분제도와 종교적신비주의를 반대하고 자유, 평등의 사상과 인간리성의 힘을 강조하면서 부패타락한 봉건지배층의 생활을 폭로풍자하였으며 농민과 도시소자산계층 등 평민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그들의 불행과 고통을 동정하였다.

이로부터 계몽주의문학에서는 예술적형식에서도 고전주의의 낡은 도식적인 규범과 틀을 마스고 문학형식의 자유로운 탐구를 주장하였다.

영국의 대니얼 디포우, 죠너선 스위프트, 헨리 필딩, 프랑스의 디드로, 도이췰란드의 레씽을 비롯한 유럽계몽주의자들은 고전주의의 도식적인 규범을 반대하고 계몽주의리상실현에 부합되는 새로운 사실주의적묘사수법과 문학형태를 탐구하였다. 그 과정에 철학적인 소설, 환상소설, 정론적이며 풍자적인 산문, 륜리도덕적인 희곡 등을 새로 발전시켰다.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에서도 종래의 중세문학이 남겨놓은 중세기적인 낡은 형상수법을 마스고 계몽을 위한 새로운 구성형식과 문학형태를 적극 탐구활용하는데로 지향하였다. 계몽기작자들은 우리 나라 중세문학에 남아있는《고진감래》식 구성형식과 일인일대기적인 인물형상수법, 한문식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언어묘사, 도술적인 계기와 비현실적이며 환상적인 무대설정과 같은 제한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신소설의 이야기줄거리에서 중세소설의 평면성을 극복하고 립체성을 보장하였으며 고티나는 이야기식이 아니라 생활과 성격에 대한 묘사를 강화하고 언문일치에로 접근한 문체의 확립, 한문식표현의 현저한 극복과 구두어적표현의 증대, 새로운 대화형식의 창조 등이 그 구체적표현이다.

문학형태에서 소설의 개작본과 번역, 번안소설이 적극 탐구개척되였다.

번안소설은 자기 나라 인민들을 교육계몽할 목적으로 다른 나라 소설들을 시대적요구에 맞게 번역개작한 소설이다. 19세기말～20세기초에 애국문화운동이 힘차게 벌어지게 되면서 나라의 독립과 문명개화를 반영한 신소설들과 함께 외국소설을 번역개작하여 소개한 번안소설이 나오게 되였다.

번안소설은 다른 나라 소설작품을 그대로 번역한 번역소설과는 달리 그것을 작가의 사상미학적의도에 따라 자기 나라의 실정과 시대적요구에 맞게 일정하게 개작한것이 특징이다. 즉 번안소설은 원작의 주제사상, 형상체계들을 기본으로 하면서 사람의 이름, 사회력사적배경 등을 자기 나라의것으로 바꾸기도 한다.

《서서건국지》(1907년, 박은식역), 《철세계》(1897년, 리해조역) 등이 번안소설의 례로 된다. 번안소설과 번역소설은 차이를 가지고있지만 당시로서는 그것이 다같이 교양적목적과 계몽적요구에 맞게 선택되고 번역, 소개, 개작되였던것만큼 이 부류에 속하는 소설들을 몰밀어 번안소설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당시의 작가들과 문필가들은 일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과 애국문화계몽운동이 활발히 벌어진 사회정치정세와 시대적요구에 대답하려는 의도밑에 독립사상을 고

취하며 계몽적인 성격을 띤 다른 나라의 작품들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내놓았으므로 그 작품들은 제한적이기는 하나 일정한 의의를 가지였다.

3. 결 론

우리 나라에서 계몽기문학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이 외세에 의하여 무참히 유린되고있던 당시의 사회력사적현실을 반영하여 발생발전하였으며 그에 따르는 주제사상적내용과 형상적특징을 가지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계몽기문학은 나라의 구체적인 사회현실적요구로부터 반제반봉건적인 《독립자주》의 리념을 주요주제사상적내용의 하나로 취급하고있다.

예술적형상의 견지에서 볼 때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에서는 반일의병, 애국렬사, 애국적지식인 인물형상을 창조하고 그들의 성격형상에서 반침략애국사상, 반일사상과 민족적독립사상을 강조하고있으며 친일매국노들의 형상을 통하여 외세에 아부아첨하는자들을 신랄히 규탄하였으며 애국적지식인형상에 우리 나라의 근대적사회발전에 대한 지향을 체현시키고있는것이 특징적이다.

인물형상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에서 창작된 인물형상들은 당시 현실의 구체적인 생활에서 살아움직이는 보통의 인물들로 형상되고있다.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은 종래의 중세문학이 남겨놓은 중세기적인 낡은 형상수법을 마스고 계몽을 위한 새로운 구성형식과 문학형태를 적극 탐구활용하는데로 지향하였다.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에서 나타나는 형상적특징은 조선계몽기문학의 발생이 단순히 외국문학의 《이식》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나라 문학발전의 합법칙적결과의 산물이며 자체의 독자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민족문화유산을 보다 더 풍부히 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에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주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계몽기문학, 근대문학, 반침략애국문학, 비교문학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주체108(2019)년
어문학　　　　　　　　　　　　　　　　　　　　　　　　　제65권　제2호

현실속의 추한것을 예술미로 전화시킨 특색있는 성격형상

박사 부교수 **리 병 간**

1. 서 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 시대의 작가와 작품을 문학사나 예술사에서 취급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작가, 예술인들과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우리 문학사와 예술사에도 당대 문학예술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작가와 작품이 있었다는것을 알려줌으로써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동시에 지난날의 력사에서 경험과 교훈을 찾게 하자는데 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171페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지난 시대의 작가와 작품을 취급하는 목적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우리 문학사에도 당대 문학예술발전에 긍정적기여를 한 작가와 작품이 있었다는것을 알려줌으로써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동시에 지난날의 력사에서 경험과 교훈을 찾게 하자는데 있다.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비판적사실주의작가 라도향(1902－1927, 본명 라빈, 아명 경손)은 1925년에 소설 《벙어리 삼룡이》를 창작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라도향은 자기의 소설에서 주인공인 벙어리 삼룡이의 형상을 통하여 종된자의 비극적인 운명문제를 제기하고 깊이있는 해명을 주었다.

벙어리 삼룡이의 형상에는 종된자가 과연 인간일수 있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성이 체현되여있다. 소설에서는 노예인 삼룡이에게 과연 인간다운 삶이 있는가, 삼룡이가 인간이라면 그에게 어느 정도 인간다운 삶이 허용되며 그가 인간이기를 요구할 때 사회는 그에게 어떤 비극적운명을 강요하는가 하는 종된자의 비극적처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성을 제기하고있다.

벙어리 삼룡이의 형상에서 주목되는것은 현실속의 추한것을 예술미로 전화시켜 생동한 개성으로 전형화한 특색있는 성격형상이라는데 있다.

현실속의 아름다운것을 예술미로 전화시켜 미적가치가 있게 하는것은 누구나 다 쉽게 리해할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현실속의 추한것을 예술미로 전화시켜 미적가치를 창조하는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나선다.

바로 벙어리 삼룡이는 현실속의 추한것을 예술미로 전화시켜 미적가치를 창조한 전형적인 성격형상이다.

론문에서는 우선 벙어리 삼룡이와 같은 이러한 류형의 성격형상을 프랑스의 대표적인 랑만주의작가 빅또르 유고(1802－1885)가 1831년에 창작한 소설 《노뜨르담대사원》의 주요인물인 곱사등이 까지모도의 형상과의 대비속에서 연구분석하려고 한다.

《노뜨르담대사원》에서는 곱사등이 까지모도의 형상을 통하여 중세기 교회에 의하여 짓밟힌 인간의 존엄문제에 대한 형상적해답을 주고있다.

까지모도는 집씨들이 에스메랄다를 훔친 다음 그대신 에스메랄다의 어머니에게 남기고간 병신아이이다.

에스메랄다의 어머니는 집씨들에 대한 원한을 품은채 미치고만다.

그후 까지모도는 노뜨르담대사원의 포악한 부승원장 끌로드 프롤로의 손에서 자라나 10년후에는 대사원의 종지기가 된다.

종지기 까지모도는 아름다운 집씨처녀인 에스메랄다에 대한 흉심을 품고 자기의 더러운 수욕을 채우려고 갖은 악한짓을 다하는 끌로드 프롤로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품게 되며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여 에스메랄다를 종교재판에 넘기고 그를 처형하는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고있는 악한 끌로드 프롤로를 탑우에서 떨어뜨려 죽인다.

소설에서는 곱사등이이고 애꾸눈인 까지모도의 형상을 통하여 위선으로 가득찬 교회의 반동적본질을 폭로하고 인간의 개성과 존엄을 지키려는 당시 프랑스인민들의 지향을 보여주고있다.

벙어리 삼룡이와 곱사등이, 애꾸눈인 까지모도의 생태적인 모습을 예술미로 전화시켜 생동한 개성으로 전형화하였다는데서 두 작품은 공통성을 가진다. 이로부터 일부 연구자들속에서는 라도향이 빅또르 유고의 소설 《노뜨르담대사원》의 까지모도의 형상에서 상을 받아 벙어리 삼룡이의 형상을 창조했다고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것은 피상적이고 일면적인 견해이다.

벙어리 삼룡이의 형상에는 현실속의 추한것을 예술미로 전화시킴에 있어서 까지모도의 형상보다 더 높은 미적세계가 구현되여있다.

따라서 론문에서는 이런 측면에서 벙어리 삼룡이의 형상을 곱사등이 까지모도의 형상과 대비하여 분석론증하는것을 중요한 과제로 내세웠다.

이 론문에서는 또한 중국의 대표적인 프로레타리아작가인 로신(1881－1936, 본명 주수인, 자 예재)이 창작한 소설 《아큐정전》의 주인공 아큐의 형상에 비한 벙어리 삼룡이 형상의 고유한 특성을 밝히려고 한다.

중국의 로신은 소설 《아큐정전》에서 당시에 가혹한 착취와 압박,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그에 반항할 대신 굴욕을 영광으로, 패배를 승리로 여기면서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며 강한자를 겁내고 약한자를 업수이 여기는 주인공 아큐의 형상을 통하여 당시 중국사람들의 정신적병집을 예리하게 비판하고있다.

《벙어리 삼룡이》에서의 벙어리인 삼룡이나 《아큐정전》에서의 《때꾸러기》인 아큐는 다같이 외형상의 추한 모습을 예술적으로 형상하여 생동한 개성으로 창조한 공통점을 가지고있지만 벙어리 삼룡이의 형상은 외적인 추한것을 정신적인 미로 전화시킨 형상으로, 아큐의 형상은 외적인 추한것을 정신적인 추한것으로 그리면서 형상의 예술적가치를 보장하고있다.

이처럼 같은 사실주의적형상인 벙어리 삼룡이의 형상과 아큐의 형상을 대비분석하는것을 통하여 벙어리 삼룡이의 형상에 비낀 미의 세계와 그 높이를 밝히는것을 기본론점으로 제기하였다.

현실속의 추한것은 크게 외형적 및 생태적으로 추한것과 내용적 및 사회력사적으로 추한것 등으로 나누어볼수 있다.

여기로부터 현실속의 추한것을 예술미로 전화시키는데서 사상정신적으로 추한것을

형상화과정에서 예술적가치가 있게 그리는 경우와 외형 및 생태적으로 추하지만 사상정신적으로 아름다운것을 미적가치가 있게 그리는 경우가 있게 된다.

전자의 경우가 가장 보편적인것으로서 아큐의 형상이 여기에 속하며 후자의 경우는 특이한것으로서 벙어리 삼룡이와 까지모도의 형상이 속한다.

총체적으로 보면 벙어리 삼룡이와 곱사등이 까지모도의 형상은 육체적으로는 추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아름다운 인물에 대한 형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하나는 사실주의적형상이고 다른 하나는 랑만주의적형상이라는데서 차이를 가지며 이 두 인물형상과 아큐의 형상은 착취사회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최하층인간에 대한 형상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아큐의 형상은 외형적으로도 추하고 정신적으로도 추한 인물에 대한 형상이라는데서 차이를 가진다.

지난 시기 학계에서는 우리 나라의 비판적사실주의문학과 라도향의 소설에 대한 연구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 론문에서는 선행연구성과에 기초하여 벙어리 삼룡이의 형상을 곱사등이 까지모도의 형상, 뜨내기 아큐의 형상과 대비하여 분석함으로써 라도향의 소설《벙어리 삼룡이》가 비판적사실주의문학발전에 어떤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그 사상미학적의의와 유산적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려고 한다.

2. 본 론

2.1. 사실주의적형상과 랑만주의적형상

현실속에 있는 추한것이 예술미로 전화되자면 미창조의 합법칙성에 따라 형상화과정이 동반되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추한것이 형상의 전과정에서 부정에 대한 비판과 함께 아름다운것에 대한 긍정에로 지향되도록 일관하게 끌고나가는것이 중요하다.

그러자면 현실속의 추한것을 미창조의 합법칙성에 맞게 전형화하여야 한다.

만약 현실에 있는 추한것을 아무런 선택과 평가도 없이 그대로 작품에 옮겨놓는다면 그것은 추한것에 대한 라렬에 불과한것이다.

전형화과정을 거쳐야만 추한것의 본질을 옳바로 인식시킬수 있을뿐아니라 그로부터 출발하여 추한것이 주는 생활적교훈도 찾을수 있으며 아름다운것에 대한 동경을 불러일으킬수 있다.

자연주의문학은 흔히 현실생활을 객관적으로 재현한다는것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면서 현실속의 추한것을 기계적으로 복사하여 꺼리낌없이 그린다.

작가들은 현실속의 추한것을 예술미로 전화시킴에 있어서 자연주의적경향을 허용하지 말며 사실주의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라도향의 소설《벙어리 삼룡이》에서 주인공인 벙어리 삼룡이의 형상을 빅또르 유고의 소설《노뜨르담대사원》의 주요인물인 까지모도의 형상과 대비해보면 벙어리 삼룡이는 사실주의적형상이고 까지모도는 랑만주의적형상이라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다.

라도향의 소설《벙어리 삼룡이》는 조선에서 비판적사실주의의 발생발전의 특징을 보

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말할수 있다.

소설 《벙어리 삼룡이》에서는 우선 당시의 시대적인 환경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실주의적특성을 가진다.

소설에서는 주인공인 벙어리 삼룡이의 생태적인 추한것을 《벙어리》라는데서 찾고 이것을 당대 식민지착취사회에서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속에 상가집개만도 못한 생활을 강요당하던 우리 인민의 비참한 처지를 본질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것으로 전형화하였다.

이 소설에서 생태적으로 추한 주인공 삼룡이의 모습을 묘사한 몇개의 대목을 살펴보자.

《그 집에는 삼룡이라는 벙어리 하인 하나가 있으니 키가 본시 크지 못하여 땅딸보로 되였고 얼굴이 몹시 얽고 입이 몹시 크다. 머리는 새끼리같이 달린것을 주인의 명령으로 깎기는 깎았으나 불밤송이모양으로 언제든지 푸 하고 일어섰다. 그래서 걸어다니는것을 보면 마치 옴두꺼비가 서서 다니는것같이 숨차보이고 더디여 보인다. 동네사람들이 부르기를 삼룡이라고 부르는 법이 없고 언제든지 〈벙어리〉, 〈벙어리〉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앵모〉, 〈앵모〉한다. 그렇지만 삼룡이는 그 소리를 알지 못한다.》

《그는 주인의 집을 버릴줄 모르는 개모양으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밖에 없고 자기가 믿을것도 여기 있는 사람들밖에 없는줄 알았다.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는것이 자기 운명인줄밖에 알지 못하였다. 자기의 주인 아들이 때리고 찌르고 꼬집어뜯고 모든 방법으로 학대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의례 있을줄밖에 알지 못하였다. 아픈것도 그 아픈것이 의례 자기에게 돌아올것이요, 쓰린것도 자기가 받지 않아서 안될것으로 알았다.》

《벙어리가 23살이 될 때까지 그는 물론 이성과 접촉할 기회가 없었다. 동네처녀들에게서 〈벙어리〉하면서 괴상한 손짓과 몸짓으로 놀려먹음을 받을적에 분하고 골나는 중에도 누긋한 즐거움을 느껴본 일이 있었으나 그가 결코 사랑으로써 어떠한 녀자를 대해본 일은 없었다.》

《〈나는 벙어리다.〉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그는 몹시 원통함을 느끼는 동시에 자기는 말하는 사람들과 꼭같은 자유와 꼭같은 권리가 없을줄 알았다. 그는 이와 같이 언제든지 단념하지 않을수 없는 그 단념이 쌓이고쌓여서 지금에는 다만 한개의 기계와 같이 이 집에 노예가 되여있으면서도 그것이 자기의 친척으로 알고있을뿐이요, 다시는 자기가 살아갈 세상이 없는것 같이 밖에 알지 못하게 된것이다.》

《그는 이 집주인이 이리로 이사올 때 데리고왔으니 진실하고 충성스러우며 부지런하고 세차다. 눈치로만 지내가는 벙어리지만 말하고 듣는 사람보다 슬기로운 점이 있고 평생 조심성이 있어서 결코 실수할적이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을 쓸고 소여물과 돼지물을 먹이며 여름이면 밭의 풀을 뽑고 나무를 실어들이고 장작을 패며 겨울이면 눈을 쓸고 잔심부름이며 진일, 마른일 할것없이 못하는 일이 없다.》

우의 례문들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라도향은 주인공 삼룡이의 생태적인 추한것을 예술미로 전화시킴에 있어서 당시 일제식민지통치의 암흑상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데로 지향시키고있다.

벙어리 삼룡이야말로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말할 권리, 사유할 권리마저 완전히 빼앗기고 인간이하의 민족적멸시와 천대속에서 살아가는 당시 우리 인민의 비참한 처지를 본질적으로 체현한 인물형상이다.

일제는 조선을 강점한 초기부터 사상문화분야에서 조선인민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한《황국신민화》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황국신민화》는 조선인민이 지니고있는 반일투쟁정신과 슬기롭고 아름다운 민족성을 송두리채 없애고 조선인민을 일본《천황》에게《충실한 신민》으로, 제놈들의 영원한 노예로 만들기 위한 책동이였다.

일제는 우리 인민에게《궁성요배》와《창씨개명》을 강요하고 지어는 조선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

라도향이 식민지노예처지에 있던 우리 인민의 비참한 처지에 대하여 강한 체험을 하게 된 계기는 간또대지진때의 일제가 감행한 조선인대학살만행이였다.

1923년 9월 1일 오전 일본의 간또지방에서 일본력사상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으로 하여 70여만호의 집이 파손되고 14만여명의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났으며 수백만명의 리재민이 생기였다.

당시 돈으로 100억￥의 피해를 준 지진은 해외침략에 미쳐날뛰는 일제에게 천벌을 내린듯 한 심대한 타격이였다.

민심은 걷잡을수 없이 소란해졌다.

허다한 리재민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일본반동정부는 도꾜부근의 지진을 리용하여 조선인들이 각지에서 불을 지르고 불순한 목적을 실현하려 하고있으며 도꾜시내에서는 폭탄과 석유를 가지고다니면서 불을 지르고있다고 하면서 정부로 쏠리는 항의를 딴데로 돌릴 모략을 꾸미였다.

자기들이 꾸며낸 거짓정보를 각 경찰소에 알리면서《출동명령》을 내리고《계엄령》을 선포한 놈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야만적방법으로 두주일동안에 2만 3천여명의 우리 동포들을 무참히 살륙하는 치떨리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것이 바로 나라를 빼앗긴 민족이 당하는 고통과 슬픔이며 망국노의 비참한 운명이였다.

벙어리 삼룡이의 형상에는 초보적인 생존권도 가질수 없었던 당시 우리 인민의 비참한 처지가 반영되여있다.

라도향은 당시 우리 인민들의 이러한 비참한 망국노의 생활에 발을 붙이고 벙어리 삼룡이라는 인물형상을 창조하였다.

여기에 바로 소설《벙어리 삼룡이》가 비판적사실주의문학으로, 벙어리 삼룡이의 형상이 사실주의적형상으로 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있다.

소설《벙어리 삼룡이》에서는 또한 인물형상창조에서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인 통일을 보장하고 개성적이고 참신하게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실주의적특성을 가진다.

작품에서는 벙어리 삼룡이의 성격을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드러나는 사상과 감정, 심리를 섬세하게 사실주의적으로 그리고있다.

소설에서는 주인공 벙어리 삼룡이의 심리변화를 구체적인 생활계기와 정황속에서 섬세하게 그리고있다.

벙어리 삼룡이의 심리변화를 주인집개와 결부하여 방불하게 그린것이 그 실례의 하나로 된다.

《주인 아들이 자기를 때릴 때 그는 주인 아들 하나쯤은 넉넉히 제지할 힘이 있는것

을 알았다. 어떠한 때는 아픔과 쓰림이 자기의 몸으로 스며들 때면 그의 주먹은 떨리면서 어린 주인의 몸을 치려 하다가는 그것을 무서운 고통과 함께 꽉 참았다. 그는 속으로 〈아니다. 그는 나의 주인의 아들이다. 그는 나의 어린 주인이다.〉하고 꾹 참았다. 그리고는 그것을 얼른 잊어버리였다. 그러다가도 동네집아이들과 혹시 장난을 하다가 주인 아들이 울고 들어올 때에는 그는 황소같이 날뛰면서 주인을 위하여 싸웠다. 그래서 동네에서도 어린애들이나 장난군들이 벙어리를 무서워하여 감히 덤비지를 못하였다. 그리고 주인 아들도 위급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벙어리를 찾았다. 벙어리는 얻어맞으면서도 기여드는 충견모양으로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싫어하지 않고 힘을 다하였다.》

주인집 아들은 벙어리 삼룡이를 사람으로 치지 않았다.

주먹으로 옆구리를 찌르기도 하고 발길로 엉뎅이를 차기도 하였다.

삼룡이는 어린것이 철없이 그러는것을 도리여 귀엽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앙증하기》도 하여 돌아서서 빙그레 웃으면서 툭툭 털고 다른 곳으로 몸을 피하였다.

어떤 때는 벙어리의 두팔, 두다리를 살며시 동여매고 손가락과 발가락사이에 화승불을 붙여놓아 질겁을 하고 발버둥치며 괴로워하는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러할 때마다 벙어리의 가슴은 비분한 마음이 꽉 들어찼다.

그러나 그는 주인의 아들을 원망하는것보다도 자기가 병신인것을 원망하였으며 주인의 아들을 저주하기보다도 세상을 저주하였다.

소설에서는 이와 같이 벙어리 삼룡이의 처지를《얻어맞으면서도 기여드는 충견모양으로》라고 진실하게 표현하였다.

뿐만아니라 소설에서는 주인집을 떠나서 살수 없다는 벙어리 삼룡이의 초기성격을《그는 주인의 집을 버릴줄 모르는 개모양으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밖에 없고 자기가 믿을것도 여기 있는 사람들밖에 없을줄 알았다.》고 표현하고있으며《새댁이 온뒤에 다른 사람들은 자의로 안출입을 금지하였으나 벙어리는 마치 개가 마음대로 안에 출입할수 있는것같이 아무 의심이 없이 출입할수가 있었다.》와 같은 표현을 통하여 벙어리 삼룡이의 처지가 개의 처지와 다름이 없다는것을 예리하게 드러내고있다.

소설에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슬픔뿐만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려는 강렬한 충동을 주인집개와 나누는 벙어리 삼룡이의 내면세계로 섬세하게 드러낸 대목이 있다.

《삼룡이는 검둥개등을 쓰다듬으며 밤마다 멍석우에 비슷이 드러누워 하늘을 쳐다보며 생각하여보았다. 주인색시를 생각하면 달이 보이고 별이 보였다. 삼라만상을 씻어내는, 은빛보다도 더, 달이나 별의 광채보다도 그의 마음이 아름답고 부드러운듯 하였다. 마치 달이나 별이 땅에 떨어져 주인색시가 된것도 같고 주인색시가 하늘에 올라가면 달이 되고 별이 될것 같았다.

더구나 자기를 어린 주인이 때리고 꼬집을 때 감히 입벌려 말은 하지 못하나 측은하고 불쌍히 여기는 정이 그의 두눈에 나타나는것을 다시 생각할 때 그는 부들부들 개등을 어루만지면서 감격에 느끼였다. 개는 꼬리를 치며 자기를 귀여워하는줄 알고 벙어리의 손을 핥았다.》

소설의 이 대목은 인간다운 삶에 대한 벙어리 삼룡이의 지향의 세계를 사실주의적으로 진실하게 드러낸 생활화폭이다.

벙어리 삼룡이의 처지에서 보면 사람답게 살려는 자기의 지향을 큰 주인과도 《주인아씨》와도 나눌수 없다.

큰 주인으로 말하면 벙어리를 끔찍하게 위해주고 애무해준다.

혹시 몸이 불편한 기색이 있으면 쉬게 해주고 먹고싶어하는것 같으면 먹이고 마치도 자기가 기르는 검둥개와 다름없이 생각하며 불쌍히 여긴다.

벙어리 삼룡이는 비록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지만 이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있는것이다.

주인아씨가 벙어리 삼룡이를 동정하는것은 돈에 팔려온 자기의 처지와도 관련되지만 역시 자기의 처지보다 더 비참한 벙어리를 불쌍하게 여기는데서 오는것이였다.

소설에서는 바로 벙어리 삼룡이의 이러한 내심세계를 생활의 론리, 성격의 론리에 맞게 짐승인 개에게만 자기 심정을 하소연하는것으로 진실하게 형상하고있다.

소설에서는 개의 처지와 다름없는 삼룡이의 비참한 운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있다.

《주인은 집안이 망하였다고 사랑에 누워서 모든 일을 들은체만체 문을 닫고 나오지를 아니하며 집안에서는 색시를 쫓는다고 야단이다. 그날 저녁때 벙어리는 다시 끌려나왔다. 그때에는 주인새서방이 그에게 입던 옷과 신짝을 주며 눈을 부릅뜨고 손으로 멀리 가리키며 〈가！ 인제는 우리 집에 있지 못한다！〉하였다.

… 그는 새서방님의 다리를 끼여안고 애걸하였다. … 그러나 새서방은 발길로 차며 사람을 불렀다. 〈이놈을 내쫓아라.〉 벙어리는 죽은 개모양으로 끌려나갔다.》

소설에서는 《죽은 개모양》으로 질질 끌려나가 《머리를 개천구석에 틀어박으면서 나가 곤드라졌》을 때라야 《비로소 믿고 바라던 모든것이 자기의 원쑤》가 되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충실하게 일한 값이 이런것임을 깨닫는 벙어리 삼룡이의 내면세계를 극성으로 충만된 사실주의적인 예리한 필치로 진실하게 묘사하고있다.

하여 벙어리는 《모든것을 없애버리고 자기도 또한 없어지는것이 나은것을 알》게 되며 결연히 오생원의 집에 불을 지르는것이다.

이와 같이 소설에서는 남의 집 종살이를 하는 삼룡이의 형상을 통하여 종으로 살바에는 차라리 죽는것이 낫다는 생활의 진리, 가난한 사람들을 짐승같이 학대하고 억압하며 온갖 인간적권리와 자유를 유린하는 착취사회를 폭로비판하고있으며 당대사회에 대한 무산자들의 항거정신을 보여주고있다.

여기에 바로 라도향의 소설 《벙어리 삼룡이》가 우리 나라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본질적특성을 체현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되는 근거가 있으며 벙어리 삼룡이형상의 사실주의적성격이 있는것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소설 《벙어리 삼룡이》를 랑만주의적소설로 보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는 라도향의 이 소설을 프랑스의 대표적인 랑만주의작가인 빅또르 유고의 《노뜨르담대사원》의 까지모도형상에서 상을 받고 쓰지 않았겠는가 하는 억측에서 오는 잘못된 견해이다.

소설 《벙어리 삼룡이》는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죽지 못해 살아가던 당시 우리 인민의 비참한 생활처지와 여기에서 나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인간문제로 제기하는것을 통하여 식민지착취사회의 반인민성을 본질적으로 예리하게 해부하고있다.

따라서 벙어리 삼룡이의 형상은 사실주의적형상이고 까지모도의 형상은 랑만주의적형상이다.

여기에 바로 벙어리 삼룡이의 형상과 곱사등이 까지모도 형상의 질적차이가 있다.

빅또르 유고는 19세기 프랑스진보적랑만주의문학의 대표자로서 처음에는 나뽈레옹휘하의 장군인 아버지와 부르봉왕조에 대한 적극적인 찬양자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보수적인 사상감정을 가지게 되였다.

그의 이러한 사상적립장은 첫 시집인 《송시와 담시》(1822년)에서 그대로 표현되였다.

그후 부르봉왕조를 반대하는 사회적반항의 장성과 함께 그의 창작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하여 왕당파진영으로부터 자유주의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진영으로 넘어가게 되였으며 프랑스랑만주의자들의 진보적인 집단인 《쎄나끌》의 중심인물로 되였다.

빅또르 유고의 창작 첫시기를 대표하는 작품은 《노뜨르담대사원》이다.

이 소설은 19세기 프랑스현실이 아니라 15세기 프랑스의 여러 사회계층의 생활과 세태풍속을 서사적화폭으로 펼쳐보인 력사소설이다.

이 소설에서 보여준 새로운 측면은 에스메랄다와 같은 비천한 인간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봉건지배계급과 중세기교회의 반동성을 비판하며 인민들의 고상한 인간적풍모를 보여준것이다.

특히 인민적형상의 체현자인 노뜨르담대사원의 종지기인 까지모도의 형상을 생동한 개성으로 특색있게 전형화한것이다.

벙어리 삼룡이의 형상과 곱사등이 까지모도의 형상의 공통점은 두 인물이 모두 외형 및 생태적으로 추하지만 언행과 성격, 정신세계를 아름답게 그림으로써 고상한 인간적풍모를 보여준 형상이라는데 있다.

그것은 외모의 아름다움보다 정신적인 아름다움이 더욱 고상한것으로 하여 아름다운것의 특징이 형상의 중심에 놓이기때문이다.

외형적 및 생태적으로 추한것은 형태미이지만 인간의 사상정신적미는 내용미로서 사회성을 띠게 된다.

추한것을 그릴 때 인간의 사상정신을 떠나서 단순히 생태적으로 추한것만 그린다면 예술미로 전화될수 없을뿐아니라 도리여 미적가치를 잃게 되며 사람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벙어리 삼룡이의 형상과 곱사등이 까지모도의 형상은 외형적 및 생태적으로 추한것을 사상정신적인 아름다움을 살리는데로 지향시켜 창조하였지만 현실속의 추한것을 예술미로 전화시켜 미적효과를 얻는데서는 일정한 차이를 가진다.

그것은 하나는 사실주의적형상이고 다른 하나는 랑만주의적형상이기때문이다.

사실주의가 객관적현실에 토대하여 생활의 본질을 진실하게 반영할것을 요구한다면 랑만주의는 작가가 자기의 지향과 념원이 이러저러한 사회력사적원인으로 하여 실현할수 없을 때 그것을 공상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불만스러운 현실과 대치시켜 반영하게 된다.

라도향의 소설 《벙어리 삼룡이》는 일제의 가혹한 통치밑에서 초보적인 생존권도 없

이 식민지노예생활을 강요당하여야만 했던 우리 인민의 비참한 생활을 벙어리 삼룡이라는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보여주고있지만 빅또르 유고의 소설 《노뜨르담대사원》에서는 15세기 프랑스의 사회적현실을 배경으로 하여 교회와 봉건귀족들의 위선과 반동성을 폭로하고 까지모도와 같은 비천한 인간들의 존엄이 보장되는 그러한 사회를 동정하는 당시 프랑스인민들의 지향세계를 보여주었다.

《노뜨르담대사원》에서 랑만주의성격을 본질적으로 체현한 인물은 주인공 에스메랄다와 까지모도이다.

소설 《노뜨르담대사원》을 놓고볼 때 대체로 긍정인물들인 에스메랄다와 까지모도의 형상은 랑만주의성격이 강하고 부정인물들인 끌로드 프롤로와 페뷰스의 형상은 사실주의적성격을 띠고있는것이 특징적이다.

에스메랄다와 까지모도의 형상에는 환상적이고 기이한 요소가 다분하게 슴배여있으며 특히 까지모도의 경우가 더욱 그러하다.

끌로드 프롤로는 곱사등이이고 애꾸눈인 까지모도를 인간으로가 아니라 자기 육체의 한 부분, 수족으로 만들어 부려먹는다.

소설에서는 이러한 비천한 처지에 있는 까지모도를 기이하고 례외적이며 특수하고 신비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지어는 비범한 능력을 가진 전설적인 인물로 리상화하고있다.

에스메랄다의 미모를 탐낸 끌로드 프롤로가 에스메랄다를 랍치해오라고 하자 까지모도는 곱사등이답지 않게 민활하게 행동하며 페뷰스의 손에 잡혀 매를 맞고 감옥으로 끌려가게 된 자기를 구원해준 에스메랄다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품는 등 까지모도를 높은 리성을 가진 인물로 리상화하여 형상하고있다.

이 소설에서는 에스메랄다를 쟁취하기 위한 끌로드 프롤로와 페뷰스 그리고 까지모도사이의 례외적인 갈등을 조성하고 에스메랄다를 하나의 노리개처럼 여기는 끌로드 프롤로와 페뷰스의 추악성을 폭로하는것을 통하여 까지모도가 지닌 고상한 인간적풍모를 부각시키였다.

여기에 바로 까지모도의 형상이 가지는 랑만주의적성격이 있으며 이 소설의 진보적의의가 있는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벙어리 삼룡이의 사실주의적형상과 곱사등이 까지모도의 랑만주의적형상을 기계적으로 대비해놓고 그 어떤 우단점을 론할수 없다.

왜냐하면 벙어리 삼룡이의 사실주의적형상은 남의 노예로 살바에는 차라리 죽는것이 낫다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좌우하는 적극적인 주제를 천명할수 있게 하였고 종지기 까지모도의 랑만주의적형상은 근로인민출신의 인간들이 지배계급들보다 더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세계와 인간성을 지니고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기때문이다.

우리는 라도향의 소설 《벙어리 삼룡이》가 세상에 널리 알려진 빅또르 유고의 《노뜨르담대사원》에 결코 짝지지 않는 높은 미의 세계를 개척하고있으며 우리 나라의 비판적사실주의문학발전뿐아니라 세계적인 범위에서 비판적사실주의문학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우수한 작품이라고 말할수 있다.

2.2. 숭고한 형상과 추한 형상

라도향의 소설 《벙어리 삼룡이》와 중국의 로신의 소설 《아큐정전》은 다같이 비판적사실주의작품들이다.

이 두 소설은 일제에 의하여 식민지로 굴러떨어진 당대 조선의 현실과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식민지로 굴러떨어질 운명에 처해있던 당대 중국의 현실을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창작되였다.

따라서 이 두 소설은 식민지반봉건적인 착취사회의 모순과 불합리성에 대한 예리한 비판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전형적인 비판적사실주의작품들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소설의 주인공형상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가진다.

라도향의 소설 《벙어리 삼룡이》에서 주인공 벙어리 삼룡이의 형상은 숭고한 형상이고 로신의 소설 《아큐정전》의 주인공 아큐의 형상은 추한 형상이다.

현실속의 추한것을 예술미로 전화시켜 미적가치를 얻게 되는 형상화과정은 작가의 사상미학적리상의 구현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라도향은 벙어리 삼룡이의 생태적인 추한것을 예술미로 전화시킴에 있어서 그의 정신미를 부각하는데로 형상의 초점을 모음으로써 벙어리 삼룡이의 숭고한 형상을 창조할수 있었다.

소설에서는 생태적으로 추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아름다운 벙어리 삼룡이와 생태적 및 외형적으로는 다른것이 없지만 정신적으로 추한 작은 주인과의 관계를 기본으로 틀어쥐고 현실속의 추한것을 예술미로 전화시켜 대조되는 형상을 창조하였다.

주인 아들은 정신적인 기형아이며 천치이다.

어느 령락한 량반의 딸을 돈을 주고 사오다싶이 하여 장가를 들었는데 마을사람들은 주인 아들과 신부를 까마귀와 두루미에 비유하였다.

그리고 주인 아들에게 어른이 되였으니 셈이 들라고 핀잔을 해준다.

고모가 주인 아들에게 《이제는 어른이야, 너도 그만하면 지각이 날 때가 되지 않았니, 네 처가 부끄럽지 않느냐.》고 타이를 때마다 안해가 밉살해서 《저 빌어먹을 년이 들어오더니 이렇게 못살게들 굴지》하고 신부방에 들어가지 않는다. 신랑을 신부방에 들여넣으려고 하다가 신랑이 손에 닥치는대로 집어던져 외사촌누이가 이마를 깨서 피까지 흘렸다.

아버지가 꾸지람을 하자 신부의 머리채를 쥐여 마당한복판에 태질을 쳤다.

밥상을 가져오면 밥상을 집어던지고 옷을 가져오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하여 신부는 시집온 첫날부터 팔자한탄을 하며 밤마다 울었다.

신랑은 신부가 울면 요란스럽다고 때리고 말이 없으면 방정맞다고 때리였다.

소설에서는 바로 정신적인 추물인 작은 주인의 행동에 의혹을 가지는 벙어리 삼룡이의 심리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유순하고 그렇게 얌전한, 벙어리의 눈으로 보아서는 감히 손도 대지 못할만큼 선녀같은 색시를 때리는것은 자기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풀수 없는 의심이다. 보기에도 황홀하고 건드리기에도 황송할만큼 숭고한 녀자를 그렇게 학대한다는것은 너무나 세상에 있지 못할 일이다.》

하루는 주인 아들이 술에 취해 길에 자빠진것을 업어다가 방바닥에 눕히였다.

이때 주인아씨가 그것이 고마워 비단헝겊으로 부시쌈지를 만들어주었다.

이것이 주인 아들의 눈에 띄여 주인아씨가 자던 몸으로 마당한복판에 머리를 푼채 내동댕이쳐졌다.

그리고 온몸에 피가 맺히도록 얻어맞았다.

이것을 본 벙어리 삼룡이는 사자와 같이 뛰여가서 주인 아들을 밀어던지고 주인아씨를 둘러메였다.

그리고 바깥사랑에 있는 주인령감에게로 뛰여가 그앞에 내려놓고 손짓과 몸짓을 련이어 하며 하소연을 하였다.

그것으로 하여 벙어리는 주인 아들에게 물푸레로 얼굴을 몹시 얻어맞아 한쪽 볼이 터져 피가 나고 주먹같이 부어올랐다.

때릴 때 주인 아들은《이 흉칙한 벙어리같으니 내 녀편네를 건드려!》하고 부시쌈지를 빼앗아 갈갈이 찢어버리였다.

그리고 채찍으로 그의 뒤덜미를 갈겨서 그 자리에 쓰러지게 하였다.

벙어리의 가슴에는 정의감이 머리쳐들게 되였다.

그는 아픔을 참아가며 북받치는 분노를 억제하였다.

그후 작은 주인은 안방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벙어리는 주인아씨를 보고싶은 마음으로 가슴이 저리였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주인이 전보다 많이 밥과 음식을 주고 더 편하게 하여주었으나 그것이 싫었다. 하여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집가장자리를 돌아다니였다.

어느날 주인아씨가 새서방에게 맞아죽게 되였다는것을 알고 방안을 살피던 벙어리는 주인아씨가 자살하려는것을 보고 들어가 구원한다.

하여 집안에 소동이 일어났다.

《집안이 망했군.》, 《어디 사내가 없어서 벙어리를…》, 《어떻든 알수 없는 일이야!》라는 소리가 들렸다.

이튿날 아침 벙어리는 온몸이 만신창되여 마당에 거꾸러져 피를 토하며 신음하였다.

작은 주인이 쇠몽둥이를 들고 벙어리를 문초하였다.

작은 주인은 음란한 흉내를 내며 건너방을 가리키자 벙어리는 손을 내저었다.

작은 주인이 낫을 들고와 찍으려고 할 때 벙어리는 그것을 빼앗아던지고 까무라치고 말았다.

소설에서는 작은 주인의 무지막지하고 횡포무도한 행위를 묘사한것을 통하여 착취계급이야말로 정신적인 기형아, 인간추물이고 천치라는것을 예리하게 폭로함과 동시에 이와 대조되는 벙어리 삼룡이와 같은 비천한 인간들이 지닌 아름다운 정신도덕적풍모를 부각하고있다.

이 소설의 마지막장면에서 벙어리 삼룡이의 숭고한 형상을 펼쳐보이고있다.

《새아씨를 자기 가슴에 안았을 때 그는 이제 처음으로 살아난듯 하였다. 그는 자기 목숨이 다한줄 알았을 때 그 새아씨를 자기의 가슴에 힘껏 끼여안았다. 다시 그를 안고 불가운데를 헤치고 바깥으로 나와 새아씨를 내려놓았을 때에는 그는 벌써 목숨이 끊어진 뒤였다. 집은 모조리 타고 벙어리는 새아씨무릎에 누워있었다. 그의 울분은 그 불과 함께

사라졌는지! 평화롭고 행복스러운 웃음이 그의 입가장자리에 열게 나타났을뿐이다.》

《얼굴이 몹시 얽고 입이 몹시 큰 숨진 벙어리 삼룡이의 추한 얼굴에 떠드는 평화롭고 행복스러운 웃음》,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아름다움은 외형 및 생태적미에 있는것이 아니라 정신적미에 있다는 높은 미학적리상에 의하여 창조된 숭고한 형상이다.

라도향의 소설《벙어리 삼룡이》와 같은 계렬의 비판적사실주의소설인 로신의《아큐정전》에서는 벙어리 삼룡이의 숭고한 형상과 완전히 다른 뜨내기 아큐의 추한 형상을 창조하고있다.

아큐도 벙어리 삼룡이와 같이 천대받고 압박받는 최하층인간이다.

비판적사실주의계렬에 속하는 이 두 소설에서 서로 대조되는 양상을 띤 주인공의 형상이 창조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현실속의 추한것을 예술미로 전화시켜 미적가치를 얻게 되는 형상화과정이 작가의 사상미학적리상에 의하여 조명되는 과정으로 되기때문이다.

따라서 아큐의 형상이 추한것으로 되는것은 중요하게 작가의 사상미학적리상과 관련되여있다.

여기에 로신이 소설의 제목을《아큐정전》이라고 달게 된 하나의 일화가 있다.

1921년 베이징의 어느 한 편집부로부터 소설원고를 청탁받은 로신은 고심어린 탐구와 사색을 거듭하여 형상을 무르익혀나갔다.

소설의 주인공이 머리속에 그려지고 형상의 규모와 틀이 잡혀졌다.

주인공은 전체 중국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러니 집도 가정도 직업도 출신도 애매한것으로 설정하자, 그런데 이름을 다는것이 문제이다. 어떻게 하면 전중국을 상징한다는것을 알릴수 있게 이름을 달수 있을가?

몇번이나 주인공의 이름을 바꾸어가며 머리를 쥐여짰으나 마음드는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로신의 뇌리에 섬광처럼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하나는 한문자, 하나는 영문자를 써서 아큐라고 달자.

한자는 그자체가 봉건적인 성격을, 영문자는 그자체가 식민지적성격을 상징하고있지 않는가. 현 중국이야말로 락후한 봉건적인 성격과 식민지적인 성격이 포함되여있지 않는가. 제목을 아큐라고 달자.《아큐비전》이라고 달아보았지만 적중치 않았다. 개인의 운명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비극적인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큐는 비극적인물이 못된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력사무대에서 사라졌어야 할 력사의 희극이다. 그렇다면《아큐희전》?! 이것도 아니다.

아큐의 성격이 웃음을 자아낸다고 해도 그것이 근로인민과 련관될 때에는 웃음이 나올수 없다. 비극도 아니고 희극도 아닌 정극이다.

하여 로신은 소설의 제목을《아큐정전》이라고 달았다.

이 일화에서 보는바와 같이 로신이 고심한것은 아큐의 외형적인 추한것을 어떻게 전중국을 상징하는 인물로서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도록 예술미로 전화시키겠는가 하는것이였다.

로신은 아큐의 형상을 통하여 각성되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아큐를 거울로 자기를 비쳐보고 몽매속에서 깨여나 아큐의《정신승리법》과 결별하며 다시는 그러한 비극이 되

풀이되지 않도록 교훈을 주기 위하여 이 작품을 썼다.

이러한 로신의 사상미학적리상은 아큐를 희극적인 인물이나 비극적인 인물로가 아니라 정극적인 인물형상으로 창조하게 하였다.

아큐의 형상은《정신승리법》에 대한 조소로 충만된 인간형상이다.

《아큐》라는 이름 그자체가 자기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지어는 성도 없으며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직업도 명백치 않은 아큐의 추한 형상을 그대로 엿볼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아큐의 사상과 심리, 일거일동을 통하여 아큐의《정신승리법》의 본질과 해독성을 보게 되였고 중국인민을 무지몽매하게 만든 낡은 봉건사회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게 되였다.

아큐의 형상은 내용적으로 추하고 정신적으로도 추한 형상이다.

착취사회에서 천대받는 최하층인간들과 련결된것이기에 아큐의 비극적운명에서 사람들은 통절한 심경에 사로잡히게 되는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례문에서 찾아볼수 있다.

《아큐는 동그라미를 치려고 하였으나 붓을 잡은 손이 떨리기만 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은 종이를 땅바닥에 펼쳐놓았다. 아큐는 엎드려서 젖먹던 힘까지 다 내여 동그라미를 그려붙였다. 그는 남의 웃음거리가 될가봐 정말 뜻을 단단히 먹고 동그랗게 그리려고 했으나 밉살스러운 붓이란놈이 무거울뿐아니라 말을 들어먹지 않아 떨리는 손으로 조금씩 조금씩 동그라미를 쳐가다가 겨우 아구리를 마주 합치려는데 붓끝이 밖으로 빗나가 수박씨모양으로 되고말았다.》

범죄조서에 수표하면서 이름자를 쓸줄 몰라 동그라미를 잘 그리려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으나 끝내 비뚤어졌다고 몹시 창피해하는 무지한 아큐의 가련한 형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통절한 심경에 사로잡히게 하는 동시에 중국인민들을 무지몽매하게 만든 봉건사회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게 한다.

소설에서는 자기가 왜 사형을 당하는지 그 리유도 알지 못한채 죽고마는 아큐의 형상을 통하여 당시 중국사람들속에 뿌리박힌《아큐주의》의 해독성을 예리하게 드러내보이고있다.

벙어리 삼룡이의 숭고한 형상과 뜨내기 아큐의 추한 형상은 다같이 라도향과 로신의 사상미학적리상에 의하여 조명되고 분석평가되여 창조된 사실주의적형상이다.

소설《벙어리 삼룡이》와《아큐정전》은 일련의 사상미학적제한성을 발로시키고있지만 비판적사실주의문학으로서 20세기초 우리 나라와 중국을 포함한 동방의 력사적현실을 본질적으로 반영하고 여기에 해답을 준것으로 하여 세계적범위에서 비판적사실주의문학발전에 긍정적기여를 하였다.

3. 결 론

라도향의 소설《벙어리 삼룡이》의 주인공 벙어리 삼룡이의 형상을 빅또르 유고의 소설《노뜨르담대사원》의 주인공인 종지기 까지모도의 형상과 대비하여볼 때 현실의 추한것을 예술미로 전화시켜 미적가치를 얻게 되는 형상화과정에서 벙어리 삼룡이의 형상은 사실주의적전형화의 새로운 형상세계를 개척하였고 종지기 까지모도의 형상은 랑만주의

형상화의 새로운 형상세계를 개척하였다고 볼수 있다.

벙어리 삼룡이의 형상과 로신의 소설 《아큐정전》의 주인공 아큐의 형상을 대비하여 볼 때 벙어리 삼룡이의 형상은 현실의 추한것을 숭고한 예술미로 전화시켜 미적가치를 얻게 하는데서, 아큐의 형상은 외형적으로 추하고 정신적으로 추한것을 예술적형상으로 개성화하는데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고 볼수 있다.

결국 라도향의 소설 《벙어리 삼룡이》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프랑스의 진보적랑만주의작가 빅또르 유고의 소설 《노뜨르담대사원》 그리고 중국의 프로레타리아작가인 로신의 소설 《아큐정전》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유산적가치가 매우 큰 작품이라고 말할수 있다.

실마리어 사실주의, 랑만주의, 벙어리, 형상, 주인공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주체108(2019)년
어문학 제65권 제2호

유럽고전극작품들에서 활용된 몇가지 극조직수법

박사 부교수 **김 성 희**

1. 서 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는 형상수단과 수법들에 정통하고있을 때에만 그것들을 자기의 의도에 맞게 마음대로 충분히 리용할수 있으며 그 과정에 자기식의 투를 가지게 된다.》(《**김정일**전집》 제20권 150페지)

위대한 장군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작가는 형상수단과 수법들에 정통하고있을 때에만 그것들을 자기의 의도에 맞게 마음대로 충분히 리용할수 있으며 그 과정에 자기의 개성적인 형상으로 인민의 사랑을 받는 명작들을 창조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전극은 현대극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과거에 창작된 극작품을 가리키는 말이다.

물론 고전극이라고 할 때 과거에 창작된 작품전반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인류의 《문화보물고에 기여할수 있는 가치를 가진 극작품》만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쓰인다.(《조선말대사전》(1) 사회과학출판사, 1992.)

이런 기준에서 볼 때 고대그리스의 극문학을 대표하는 아이스큘로스의 비극《묶이운 프로메테우스》(B.C. 460년경)나 소포클레스의 비극《오이디푸스왕》(B.C. 420년경)으로부터 시작하여 문예부흥기 쉐익스피어의 비극《햄리트》(1601),《오쎌로》(1604),《로미오와 쥴리에트》(1595), 계몽주의문학의 대표적작가의 한사람인 쉴레르의 희곡《도적들》(1781),《간계와 사랑》(1784), 비판적사실주의문학으로 특징지어지는 입쎈의 희곡《인형의 집》(1879), 체호브의 희곡《벗나무동산》(1904) 등이 고전극에 속한다고 볼수 있다.

이 극작품들은 해당 시대의 본질을 반영하고 예술형상수준에 있어서 인류문화보물고에 기여할수 있는 가치를 가지는것으로 하여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래일도 사람들속에서 깊은 감명을 자아내는 고전극들이다.

이러한 고전극들은 한결같이 해당 계급사회에서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사이의 불상용적인 모순, 해당 사회의 본질과 계급관계를 반영한 첨예한 륜리도덕적 및 미학적인 문제들을 반영하고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고전극에서는 새것과 낡은것, 선과 악, 아름다운것과 추한것간의 심각한 갈등에 기초하여 극을 전개하면서 강렬한 극성을 조성하고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고전극작품들을 보면서《극성이 강하다.》,《무게가 있다.》고 하면서 여러 형태의 예술로 각색하고있는것만 보아도 고전극작품들에서 활용된 다양한 극조직수법에 대하여 깊이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물론 지난 시기에도 고전극작품들에서 활용된 이러저러한 극조직수법과 기교들에 대

하여 론의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경우 개별적인 작품의 창조경험이나 해당 시기에 한정된 극작법연구로 국한되여있었다.

《외국문학사》(**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주체104(2015).)에서는 고대와 중세, 근대의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의 문학을 대표할수 있는 고전극작품들에 대하여 문학사적인 견지에서 연구하고있다.

실례로 고대유럽문학을 취급한 도서의 제1편 제2장 제3절 《고대그리스의 비극과 희극》부문에서는 고대그리스의 3대비극작가들의 희곡창작활동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여기에서는 아테네 《민주주의》의 첫 시기를 대표하는 비극작가 아이스퀼로스의 비극 《묶이운 프로메테우스》의 내용을 서술하고 그 진보성과 제한성을 밝히는 동시에 《작품의 구성과 인물성격은 극히 단순하고 빈약하다.》(42페지)고 극예술형상수준을 평가하였다.

그런가 하면 아테네 《민주주의》의 전성기를 대표하는 비극작가 소포클레스의 창작활동을 소개하면서 《소포클레스의 비극들은 보다 다양하고 개성이 뚜렷한 인물형상들을 창조하고 주인공들의 내면세계에 더 깊이 침투하였으며 째인 구성과 알기 쉬운 언어를 통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생활적인 내용을 표현함으로써 그리스비극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켰다.》(44페지)고 서술하였다.

공화정체의 말기에 활동한 비극작가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메데아》를 취급하면서 《작가는 작품에서 신화를 대담하게 변형개작하여 이아손의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당시 현실에서 빚어지던 사회적악덕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여주었으며 인간의 정열적인 성격을 창조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고 보다 생활적이고 세태적인 문제와 사건, 사실들을 취급함으로써 그리스비극을 보다 더 현실에 접근시켰다.》(45페지)고 그 예술형상의 의의를 분석하면서도 《그러나 이 비극도 인민들의 생활과 투쟁과는 멀리 떨어져서 주로 귀족통치층들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취급함으로써 당시의 전형적인 생활을 반영하지 못하고있으며 아직 신화적요소들을 완전히 없애지 못》한 제한성을 밝히였다.

해당 시대를 대표하는 고전극작품들의 극작술상특징에 대한 분석은 도서의 제2편 제4장 문예부흥기 인문주의문학의 대표적작가의 한사람인 쉐익스피어에 대하여 연구한 부분에서도 주어지고있다.

도서에서는 그의 대표작인 비극 《햄리트》를 분석하면서 《작품은 극작술에서도 전진을 가져오고 사실주의극문학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작품에는 비극의 특성이 잘 나타나고있다. 인물성격들이 적지 않게 개성화되고 일반화되여있으며 작가의 초기희극들과는 달리 생활분식이나 리상화가 없다. 또한 언어가 비교적 형상적으로 개성화되여있다.》고 예술형상면에서 이룩한 성과를 밝히고 동시에 《봉건사회의 사회악을 반대하는 인물자체를 봉건왕자로 설정하고있으며 인물들사이의 갈등도 계급적대립이 아니라 왕족내부의 알륵에 기초하여 설정하고있는것》이라든가, 《망령이 등장하여 작품의 사건전개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것, 인물들의 대사가 지루하게 전개되고있는것》과 같이 작품에 다분히 남아있는 《중세문학의 요소》들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119～120페지)

이상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외국문학사》에서는 고전극작품들에서 활용된 구체적인 극조직수법들이 밝혀지지 못하고 다만 고전극작품들의 주제사상 및 예술형상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과 이전시기 극문학작품들과의 계승관계, 다음시대 극문학발전에 미친 영향관계에 대하여 문학사적인 견지에서 론의하는 경향을 보이였다.

도서《극문학창작론연구》(**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주체106(2017).)에서는 극작법의 발전과정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서술하고있다.

여기에서는 고대그리스의 극작법, 고전주의극작법, 계몽주의극작법, 랑만주의극작법, 비판적사실주의극작법, 사회주의적사실주의극작법의 본질적특징들에 대하여 일반화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처음에는 무대에 고정적으로 나와있는 합창단에 무대밖으로 드나드는 한명의 배우가 무대밖에서 벌어진 사건을 시화된 말로 전달하면 합창단은 그 사건과 관계되는 인물집단으로 변하면서 노래로 정서적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전개시키던 고대그리스의 연극이《아이스큘로스에 의하여 배우가 1명으로부터 2명으로 증가되면서 통보적성격을 띠던 대화가 합창단의 노래보다 중시되는 대사의 예술로서의 체모를 갖추게 되였》으며《2명의 배우를 3명으로 늘이고 그들의 대화를 작품의 기본형상수단으로 하는 고대그리스의 연극을 완성시킨》소포클레스가《주제가 통일되여있지 않으나 슈제트(얽음새)는 일관한 아이스큘로스의 3부작원칙을 부정하고 오늘까지 전해지는 비극〈오이디푸스왕〉에서 보다싶이 기승전결이 명백하고 주제가 일관한 4부작의 극적구성을 창조하였다.》고 밝히였다.(75～76페지)

고대그리스비극의 마지막대표자인 에우리피데스에 의하여 신들이나 궁정생활만을 형상하던 고대그리스비극의 행사극적인 잔재가 청산되고 인간의 사랑과 불행문제가 중요한 주제로 널리 형상되였으며《합창단의 기능이 대폭 약화되고 그대신 독창과 독백이 연극의 새로운 형상수단으로 리용되게》된데 대하여서도 서술하였다.(76페지)

도서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여 리론적으로 체계화된 고대그리스비극의 유산이 14～16세기 문예부흥기에 와서 계승발전되게 되였다고 하면서《중세기적인 몽매와 종교적금욕주의에 반기를 든 인문주의극작가들은 고대그리스극작법을 계승혁신하여 비극〈햄리트〉(5막 20장)에서 보다싶이 운문화된 대사를 기본으로 극적성격과 사건을 그리는 극작법》을 내놓았다고 서술함으로써 문예부흥기 인문주의극작법의 특징을 밝히고있다.(77페지)

17～18세기초에 대두한 고전주의극작가들이《고대그리스 및 로마의 문화를 절대적인 규범으로 내세우고 이른바〈3일치법〉과〈쟝르의 구별〉등 극조직원칙과 규범을 내놓았》(77페지)는바 그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시학》에서 끌어내여 만든《4대원칙》이라는 연극규범을 연극창조에 내리먹임으로써 연극예술의 사실주의적발전에 지장을 준데 대하여서도 응당하게 지적하고있다.

도서에서는 또한 절대군주인 왕을《리상적》인간으로 내세우던 고전주의연극과는 달리 18세기에 들어서면서 평민들과 하층인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계몽주의연극이 출현하게 되였고 프랑스의 디드로(1713－1784)와 도이췰란드의 레씽(1729－1781)의 리론활동에 의하여 추동되고 보마르쉐의《쎄빌랴의 리발사》와《피가로의 결혼》, 쉴레르의《도적들》과《윌헬름 텔》로 그 열매를 본 계몽주의극작법의 혁신적발전에 대하여 서술하고있다.

19세기에 들어와 발생한 진보적랑만주의는《주인공들을 선진적인 계급과 계층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내세우면서도 그들을 초인간적인 능력과 특질을 가진 인간들로 리상화

하고 극히 비상하고 례외적인 환경속에서 형상하》며 《대사형상에서 과장과 비유, 상징, 격동적이며 시적인 언어표현을 많이 쓰며 서정이 자유분방하고 사건줄거리가 기이한》 특징을 나타내였다는데 대하여 밝히였다. 동시에 《랑만주의극작법은 고전주의의 〈합리주의〉를 반대하던 나머지 객관적인 생활론리까지 무시함으로써 생활적진실성을 적지 않게 상실한 극형상을 창조하게 하였으며 주관주의에 사로잡혀 객관적인 현실에 튼튼히 발을 붙이지 못하는 제한성을 발로시켰》으며 그런것으로 하여 인차 비판적사실주의극작법에 자기의 무대를 내주게 되였다는데 대하여서도 지적하였다.(79페지)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초까지 로씨야나 유럽만이 아니라 아시아를 비롯한 전세계에 파급된 비판적사실주의의 창작방법은 착취사회의 취약성과 반인민성, 멸망의 불가피성을 폭로비판하는 수많은 비극, 희극, 정극작품들을 창작케 하였다.

도서에서는 《비판적사실주의극작법은 진보적랑만주의극작법과 달리 현실생활을 사실주의적으로 생동하게 형상하였으며 사회비판적성격으로부터 극적갈등이 첨예하고 심각하며 대사들이 통속적이고 양상과 극조직수법이 다양한것이 특징》이였지만 《사회악을 폭로비판하는데 그치고 그 사회적근원과 해결방도를 제시하지 못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었다.》는데 대하여 밝히였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도서 《극문학창작론연구》에서는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는 기간 각이하게 발생발전하고 계승되여온 다양한 극작법들의 본질과 특징을 일반화하고 체계화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반면에 각이한 극작법의 특징을 많은 경우 내용상측면과 무대실현방식상측면에서 론의하였으며 고전극작품들에서 활용된 구체적인 극조직수법과 기교들은 밝히지 못하였다.

이밖에 일부 도서에서 동서방연극사에 남아있는 명작들의 사상예술적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작품들에서 활용한 일부 극조직수법과 기교들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도서들에서는 현대극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인류문화보물고에 기여할만 한 가치를 가지는 고전극작품들의 극조직수법들을 일반화하여 밝히지 못하고있다.

따라서 이 론문에서는 고전극작품들에서 활용된 다양한 극조직수법들을 구분하고 그의 개별적인 특성, 그 활용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연구하기로 한다.

2. 본 론

무엇보다먼저 고전극작품들에서 활용된 대표적인 인물관계조직수법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고전극작품들에서는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를 애인이나 혈육, 혈친들사이의 갈등관계에 구현하여 예리한 극성을 조성하는 수법을 널리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극성을 생명으로 하는 극문학작품들에서는 새것과 낡은것, 진보와 반동, 선과 악, 아름다운것과 추한것간의 심각한 모순을 반영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모순을 다름아닌 사랑과 정, 피줄로 이어진 애인관계, 혈육 및 혈친관계사이에 심어놓을 때 그 감정정서적인 효과성은 배로 강화되게 된다.

서로 대립되여 충돌하고 마침내는 타승해야만 하는 대상이 다름아닌 애인이거나 부모, 자식, 혈육이라고 한다면 등장인물들은 물론 관객들의 감정정서는 더욱 격화되고 이러한 인물관계로 하여 작품의 극성은 비상히 강화되는것이다.

실례로 쉐익스피어의 비극《로미오와 쥴리에트》에서의 인물관계를 들수 있다.

이 작품에는 두개의 극적인 인물관계가 설정되여있다.

그중 하나는 오랜 세월을 두고 반목질시하는 몬타규가문의 로미오와 캐퓰레트가문의 쥴리에트사이의 사랑관계이다.

사랑하는 관계라고 하면 두 청춘남녀가 언제나 함께 있고싶어하는것이 일상사이지만 로미오와 쥴리에트의 사랑관계는 원쑤진 두 가문사이의 갈등을 배경으로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극적인 관계로 된다.

이 작품에서 두번째로 되는 극적인 관계는 쥴리에트와 파리스사이의 관계이다.

쥴리에트는 몬타규가문을 원쑤처럼 여기는 부모들에게 로미오와의 사랑관계를 고백할수 없게 되여 부모들 몰래 로미오와 성례를 치른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알리없는 파리스는 쥴리에트와의 결혼을 서두르며 이것은 처녀에게 죽음을 강요하게 된다.

련인이 있는 처녀를 사랑하게 한것, 여기에 파리스와 쥴리에트사이의 극적인 관계가 있다.

이 두개의 극적인 관계에서 주도적인것은 물론 로미오와 쥴리에트사이의 사랑관계이며 파리스와 쥴리에트사이의 관계는 거기에 뿌리를 두고 그것을 격화시키는 촉매적인 역할을 한다.

비극《로미오와 쥴리에트》에서는 바로 이러한 두개의 극적인 인물관계가 서로 얽히고 작용하면서 반목과 질시가 빚어낸 참혹한 비극이라는 하나의 극적인 흐름을 이루고있다.

쉐익스피어의 대표작이라고 할수 있는 비극《햄리트》에서도 혈육사이에 심각한 갈등관계를 조성하고 그에 기초한 극이 전개되고있다.

클로디어스왕과 햄리트사이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사이의 혈친관계인 동시에 아버지를 죽인 원쑤, 어머니의 정조를 빼앗은 패덕한과 부모의 원쑤를 갚으려는 아들사이의 심각한 갈등관계이다.

처음 클로디어스왕과 햄리트사이의 관계는 선왕의 제사를 치른지 두달도 안된 시각에 이전 형수를 왕비로 맞아들이는 패덕한과 조카사이의 륜리적인 관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유령을 만나 삼촌이 그를 독살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다음부터 클로디어스와 햄리트의 관계는 아버지를 죽인 원쑤와 복수자의 관계로 보다 심각한 양상을 띠고 발전하게 된다.

그후 이들의 관계는 클로디어스왕이 햄리트를 살해할 음모를 꾸미고 그것이 햄리트에게 발각되는것으로 하여 더욱 격화되고 마침내 레어티즈로 하여금 독약을 바른 장검으로 햄리트를 공격하게 하고 독약이 든 포도주가 왕비를 죽음에로 몰아감으로써 더는 함께 공존할수 없는 적대관계로 발전하여 햄리트가 클로디어스에 대한 복수를 단행케 한다.

이처럼 비극《햄리트》에서는 삼촌과 조카사이의 혈친관계속에 권력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심각한 모순을 심어주고 그 심화발전과정을 통해 권력과 향락을 위해서는 친혈육마

저도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봉건귀족의 도덕적인 부패상, 해당 사회의 반동적인 본질을 폭로하고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애인이나 혈육, 혈친관계에 갈등을 조성하는 이 인물관계조직수법은 오늘날까지도 창작실천에서 많이 리용되고있다.

한것은 그것이 극성을 조성하기 위한 단순한 형상적기교만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를 가정극속에서 감성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형상적가능성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다음으로 고전극작품들에서 활용된 이야기조직수법들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고전극작품들에서 이야기조직의 특성은 철저히 갈등에 기초한 인물관계의 심화발전과정이 그대로 이야기줄거리로 되도록 하는것이다.

고전극작품들에서 활용된 대표적인 이야기조직수법에는 우선 《악행은 이미 단행되였다》는 극조직수법이 있다.

《악행은 이미 단행되였다》는 극조직수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제시되였고 비극 《오이디푸스왕》과 《안티고네》 등 고대그리스의 극들에서 적극 활용된 수법이다.

이 수법은 작품의 첫시작이자 사건의 발단인것이 아니라 악행은 이미 단행되고 그에 기초하여 빚어지고 극적으로 심화된 사건이 작품의 첫 부분에 제시되여 첫시작부터 관중들의 주의를 최대로 집중시키는 우점을 가지고있다.

실례로 비극 《오이디푸스왕》은 오이디푸스왕이 통치하는 도시국가인 테베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 왕명을 받은 처남 크레온이 신전을 다녀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크레온은 이전왕 라이오스의 살해자를 제거하라는 신의 계시대로 죄인을 찾기 위해 소경예언자를 데려오는데 오래동안 침묵을 지키던 예언자는 왕의 강박과 모욕에 더 참지 못하고 살인자는 다름아닌 오이디푸스라고 웨친다. 이리하여 극의 이야기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그 진상이 하나하나 밝혀지는 이야기흐름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오이디푸스가 자기의 아버지 라이오스를 별치 않은 언쟁때문에 죽인 악행은 이미 단행되였고 작품의 시작은 그로 인해 발생되고 련쇄되는 사건들중 가장 압축된 형태로 제시되며 작품전과정은 지나간 과거의 사건들이 해명되는 과정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있다.

입쎈의 희곡 《인형의 집》에서는 이 수법을 자기 식으로 독특하게 활용하고있다.

작품의 첫시작에 남편 헬메르가 은행지배인으로 임명되고 집안일이 잘되여가고있어 무한한 행복에 도취되여있는 주인공 노라의 앞길에 과거의 그림자가 비껴든다.

지난날 노라는 남편이 중병에 걸렸을 때 그의 병치료를 위하여 위조수표를 하고 남편이 모르게 고리대금업자 크로그스타드에게서 많은 돈을 채용했던 불미스러운 과거를 안고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거의 비밀을 안고있는 크로그스타드가 노라의 남편 헬메르에 의하여 은행에서 쫓겨나게 되자 노라를 협박해나선다. 다시말하여 노라가 새로 된 은행지배인인 남편에게 말하여 자기를 복직시키도록 힘쓰지 않으면 노라의 불미스러운 과거사를 남편에게 털어놓겠다는것이였다.

이처럼 과거에 노라가 사랑하는 남편의 병치료를 위해 막부득이하게 저질렀던 《위조수표죄》는 이미 단행되였고 작품은 이 《죄》의 원인이 해명되고 거기에 뿌리를 둔 새로운

극이 진행되는 과정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여나간다.

보는바와 같이 입쎈의 《인형의 집》에서 《악행은 이미 단행되였다》는 극조직수법은 《오이디푸스왕》에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있다.

《오이디푸스왕》에서는 이야기의 거의 전반내용이 이미 단행된 악행의 정체를 밝혀내는데 바쳐지고있다면 《인형의 집》에서는 이미 단행된 악행의 원인해명보다는 그로 인하여 새롭게 산생되여나가는 사건들에 이야기의 초점이 가해지고있다.

이처럼 《악행은 이미 단행되였다》는 극조직수법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또 개별적인 작품의 생리에 맞게 각이하게 변이되여 활용되고있다.

이 수법활용에서 중요한것은 이미 과거에 단행된 사건이 《악행》일수도 있고 혹은 숨겨져있거나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임의의 사연, 사건일수도 있으나 반드시 그것은 오늘의 사건에 극성을 부여하고 그 이야기흐름의 동인으로 되도록 설정되여야 한다는것이다.

고전극에서 활용된 대표적인 이야기조직수법에는 또한 인지와 급전의 수법이 있다.

인지와 급전의 수법도 고전극작품들에서 널리 활용되였으며 오늘까지 전해지고있는 대표적인 이야기조직수법들중의 하나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의 도서 《시학》에서 인지와 급전을 비극창작에서 가장 위력한 수법으로, 지어 이야기줄거리조직의 《정수》라고까지 과대평가하였다.

인지는 비극 《오이디푸스왕》에서 보다싶이 왕후가 자기에게 아들 쌍둥이와 딸 쌍둥이형제를 낳게 해준 사랑하는 젊은 왕 오이디푸스가 20년전 신의 계시를 받고 버린 자기의 친아들이며 자기의 전 남편인 국왕을 죽인 살인자라는것을 알아차리게 한 오이디푸스의 발뒤꿈치에 난 구멍과 같이 등장인물들이 모르고있던 연고관계를 뜻밖에 밝혀주어 그들의 관계를 새로운 극적관계로 변화시키는 세부형상수법이다.

그런가 하면 급전은 인지에 기초하여 사건을 갑자기 역전시켜 극성을 조성하는 이야기조직수법이다.

실례로 비극 《오이디푸스왕》에서는 오이디푸스의 정체를 밝히게 한 발뒤꿈치에 난 구멍이 인지가 되여 오이디푸스왕부부의 행복이 한순간에 깨여져나간다.

왕후는 수치감과 죄의식으로 하여 스스로 자살하고 주인공 오이디푸스 역시 자기 손으로 제눈을 찌르고 먼 고장으로 정처없이 떠나가버린다.

이처럼 인지와 급전은 별개로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인지에 의하여 급전이 조성되고 급전은 인지에 기초할 때에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극적인 이야기조직수법으로 될수 있다.

이 수법은 그후 비극만이 아니라 여러 형태와 쟝르의 극문학창작에서 널리 활용되여왔다.

쉐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1596)에서도 인지와 급전의 수법은 특색있게 활용되고있다.

작품에서 제 기일내에 갚지 못한 3천냥의 돈대신 안또니오의 심장가까이에서 살 한근을 떼내여도 좋다는 내용으로 체결된 계약문은 처음 안또니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문서로 등장한다.

그러나 법학박사로 변장한 포샤가 안또니오의 살 한근은 샤일로크의것이니 베여내도 좋으나 피는 한방울도 흘려서는 안되며 또 살은 한근보다 많아도 적어도 안된다고 하면

서 만약 머리카락만 한 차이가 있어도 사형에 처하고 재산은 몰수될것이라고 선언할 때 그 계약문은 안또니오가 아닌 샤일로크의 목숨과 재산을 위협하는 무기로 급전된다.

여기에서 샤일로크와 안또니오사이에 체결된 계약문은 샤일로크의 수전노다운 본성, 더러운 인간상을 등장인물들과 관중들이 알아볼수 있게 하는 인지로 되며 안또니오의 목숨을 앗으려고 계획된 샤일로크의 모략이 다름아닌 이 인지로 하여 샤일로크자신이 궁지에로 몰리우게 사건이 급전되는것이다.

이러한 인지와 급전의 수법은 효과적인 이야기조직수법으로 오늘날 희곡뿐아니라 영화문학, 텔레비죤문학창작에서 널리 활용되고있다.

고전극작품들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이야기조직수법에는 또한 오해와 착각의 수법도 있다.

오해와 착각의 수법은 인지와 급전의 수법과 함께 고전극작품들에서 널리 리용되던 수법으로서 오늘날까지도 전통적으로 전해내려오는 우수한 극조직수법이다.

오해의 수법은 사람들사이에 일어나는 오해현상을 리용하여 생활의 본질을 밝히는 극조직수법이다.

착각은 객관세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서 넓은 의미에서는 오해의 개념에 속한다.

오해가 현실에 대한 리성적인식에서의 잘못된 인식이라면 착각은 감성적인식에서의 잘못된 인식이다. 때문에 착각은 해당 인물의 시청각적인 감각에 의하여 주로 현상적이며 외형적인것에 대한 잘못된 평가로 나타난다.

등장인물들사이의 오해가 또 하나의 새로운 오해와 착각을 낳고 그 과정에 인물호상간의 극적관계가 더욱 심화되고 이야기줄거리가 극적으로 더욱 새롭게 전개되는것이 오해와 착각의 수법의 우점이다.

지난 시기 고전극작품들에서는 이러한 오해와 착각의 극조직수법을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대표적인 착각의 수법에는 쉐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에서 포샤를 남자법관으로 착각하는것과 같이 녀자를 남자로 착각하는 수법과 쉐익스피어의 희곡 《열두번째 밤》에서 쌍둥이오누이인 바이올라와 쎄바스찌안을 오시노우공작과 귀족의 딸 올리비아가 착각하는것과 같이 쌍둥이인물을 착각하는 수법이 있다.

남자와 녀자를 착각하는 수법과 쌍둥이인물을 착각하는 수법은 오늘날 현대희극영화들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있는 이야기조직수법이다.

오해의 수법을 활용하는데서는 오해를 사회적문제성을 내포하고있는 오해로 설정하는것이 중요하다.

실례로 쉐익스피어의 비극 《오쎌로》에서 순결한 안해인 데스디모나와 충실한 부하인 캐씨오에 대한 오쎌로의 오해는 부정인물 이야고의 모함과 오쎌로자신의 성격적결함에 기초한것이다.

그리고 쉴레르의 희곡 《간계와 사랑》에서 순결한 처녀 루이제에 대한 페르디난드의 오해 역시 신분적인 차이로 인한 당대 사회의 부정성이 빚어낸것이다.

오해와 착각의 수법을 리용하는데서는 오해와 착각이 일어날수 있는 생활적전제를 잘 깔아주고 오해와 착각이 련발될수 있는 계기들을 잘 포착하여 생활반영의 진실성과

련쇄성을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오해와 착각의 수법을 리용하는데서는 단순히 극을 위한 극이 아니라 작품에서 제기된 심각한 인간문제, 사회정치적문제의 해결과정으로 되도록 하는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

고전극작품들에서 활용된 대표적인 이야기조직수법에는 또한 죽음을 리용한 뒤집기수법이 있다.

죽음을 리용한 뒤집기수법은 인간의 자주성과 존엄이 무참히 짓밟히던 고대나 중세, 근대시기의 사회제도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조직수법으로서 인간생활에서 가장 극적인것이라고 할수 있는 인간의 죽음을 리용하여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사건진행과정을 뒤집어 이야기줄거리의 흐름에 극적인 굴곡을 조성하는 수법이다.

인지와 급전 역시 등장인물의 예상을 뒤집는다는 측면에서는 죽음을 리용한 뒤집기수법과 상통되는바가 있지만 인지와 급전에서의 뒤집기는 철저히 인지와 련결되고 인지의 본질이 해명되는 과정으로 된다는데 고유한 특성이 있다.

그러나 죽음을 리용한 뒤집기수법은 그와 다르다.

죽음을 리용한 뒤집기수법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죽었다고 인정되여있던 사람이 살아나 사건의 진상을 해명하는 뒤집기와 죽음을 앞둔 인간이 지금까지 숨겨오던 사실을 터놓는 식의 뒤집기이다.

실례로 쉴레르의 희곡《도적들》에서는 2막 2장 침실장면에서 맏아들 칼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모오르백작이 사망하는것으로 되여있다. 그러나 그후 4막 5장 성곽가까운 숲장면에서 모오르백작이 사망한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 프란츠의 간계로 옛 성곽에 감금되여있다는 사실로 이야기가 급격히 뒤집혀진다.

죽음을 앞둔 인간이 지금까지 숨겨오던 사실을 터놓는 식의 뒤집기에 대해서는 쉐익스피어의 비극《햄리트》를 들수 있다.

작품의 앞부분에서 햄리트는 클로디어스왕의 비밀지령을 받고 왕비의 침실에 기여들어 햄리트모자의 대화를 엿듣던 레어티즈의 아버지 폴로니어스를 클로디어스왕인줄 알고 칼로 찔러죽이게 된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햄리트를 제거할 흉심을 품은 클로디어스왕은 아들은 아버지의 원쑤를 갚아야 한다는 그럴듯 한 말로 레어티즈를 유혹하여 그가 자기의 어제날 벗이였으며 친누이동생의 애인이였던 햄리트와의 격투에 나서게 한다. 그러나 레어티즈는 격투과정에 햄리트를 살해코저 독약을 발랐던 제 칼에 맞아 숨지게 되는 순간 돌연 자기의 태도를 바꾸어 클로디어스왕의 무서운 흉계를 햄리트와 사람들앞에 폭로한다.

이처럼 죽음을 앞둔 인간이 숨겨오던 사실을 터놓는 식으로 전반이야기흐름을 뒤집는 수법은 쉴레르의 희곡《간계와 사랑》에서도 활용되고있다.

페르디난드와 루이제의 사랑은 서로 다른 신분적차이로 하여 주위사람들의 질시를 받게 되며 나중에는 루이제가 페르디난드에게서 물러서게 할 목적밑에 재상은 처녀의 죄없는 아버지를 감옥에까지 밀어넣는다.

루이제는 자기때문에 감옥살이를 하는 아버지를 구원하려는 목적밑에 재상의 앞잡이인 부름의 꾀임에 넘어가 페르디난드를 멀리하게 된다.

그러던 루이제는 배반당한 모욕감과 복수심에 불타는 페르디난드에 의해 독약을 먹

고 죽게 된 순간에 태도를 바꾸어 페르디난드에 대한 자기의 변함없는 애정을 터놓는다.

이처럼 죽음을 앞둔 인간이 이러저러한 원인과 요인으로 하여 지금까지 숨겨오던 사실을 터놓아 진실을 밝히는것으로 전반이야기를 뒤집는 수법은 이야기조직을 위한 효과적인 수법으로 오늘도 널리 활용되고있다.

다음으로 고전극작품들에서 활용된 감정조직수법들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고전극작품들에서 활용된 대표적인 감정조직수법에는 우선 련속적인 죽음조성수법이 있다.

이 수법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가장 충격적인 죽음을 련속적으로 쌓아주는 방법으로 관중들의 감정을 최대로 증폭시키는 수법이다.

련속적인 죽음조성수법은 이미 고대그리스의 비극작품들에서 개척되여 활용되여온 감정조직수법이다.

고대그리스의 작가 소포클레스는 B.C. 442년경에 창작공연한 비극《안티고네》에서 이 수법을 처음 내놓았다.

작품은 오이디푸스왕의 두 아들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니크스의 결투에 관한 전설에 기초하고있다. 두 형제는 저마끔 왕이 되려고 서로 싸우다가 둘다 죽는다. 왕의 자리에 올라앉은 그들의 삼촌 크레온은 첫째 왕자를 찬양하여 매장하게 하나 둘째 왕자는 생전에 국가반역행위를 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죽은 그의 시체를 까마귀밥이 되도록 묻지 못하게 하라는 엄명을 내린다. 그러나 죽은 형제의 누이동생 안티고네는 왕의 명을 거역하고 몰래 단신으로 작은 오빠를 우선 초벌매장한다. 장로들의 모임과정에 크레온은 누군가 자기의 령을 어기고 둘째 왕자의 시체를 거둔것을 알게 된다. 크레온은 이것을 자기 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음모로 간주하고 범인을 찾아 엄벌에 처할것을 명령한다. 곧 안티고네가 잡혀오는데 처녀는 인륜을 따라 혈친의 시체를 거두어주는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크레온은 안티고네를 돌창고에 가둘것을 명령한다.

이때 한 예언자가 지금 신들이 크레온의 그릇된 처사에 크게 격분하였으니 왕이 무서운 불행을 당할것이라고 예언한다. 공포에 질린 크레온은 먼저 안티고네를 구원할 대신 둘째 왕자의 시체를 매장한다. 그 사이 안티고네는 돌창고에서 목을 매여 자살하고 이 소식을 알게 된 안티고네의 애인이며 크레온의 아들인 하이몬이 크레온앞에서 자살한다. 이어 아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에 상심한 크레온의 안해마저 자살하는것으로 비극의 감정은 증폭심화된다.

외롭게 남은 크레온은 사색이 되여 사라지고 신들은 부정의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격언과 함께 비극은 끝난다.

보는바와 같이 오이디푸스왕의 두 아들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 극은 둘째 왕자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는 륜리적인 문제로 하여 심화되는 과정에《우리네는 증오가 아니라 우애를 나누려고 세상에 태여났다.》고 주장하던 주인공 안티고네의 죽음으로 첫시작을 떼고 안티고네와 뜻을 같이하는 그의 애인이며 크레온왕의 아들인 하이몬의 죽음으로 그리고 하이몬의 어머니인 크레온왕의 왕비의 죽음으로 심화되면서 권력유지를 위해서라면 인간의 초보적인 도덕륜리마저 외면하는 크레온왕의 반동성, 비인간성을 예리

하게 폭로하고있다.

고대그리스의 비극에서 창조되였던 련속적인 죽음조성수법은 그후 문예부흥기에 활동한 인문주의작가 쉐익스피어에 의하여 그의 유명한 4대비극에서 그대로 활용되였다.

비극 《햄리트》에서 클로디어스의 심복인 폴로니어스의 죽음은 그의 딸 오펠리아의 자살로 이어지며 햄리트의 어머니인 왕후와 오펠리아의 오빠인 레어티즈의 죽음으로 그리고 또다시 왕의 너울을 뒤집어쓴 악한 클로디어스와 햄리트자신의 죽음으로 감정이 확대되여갔다.

이러한 감정조직수법은 아직은 생명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의학이 발전되지 못했던 고대와 중세의 생활반영으로서 현대의 이야기에는 잘 맞지 않는다.

하기에 오늘날에 와서 련속적인 죽음조성수법은 감정을 련속 덧쌓는 수법으로 발전하게 되였으며 창작가들이 흔히 말하는《한편의 극작품에는 3～4번 코마루가 찡한 장면이 있어야 성공한다.》는 경험으로 되였다.

고전극작품들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감정조직수법에는 또한 역감정조성수법이 있다.

역감정조성수법이란 일반적으로 등장인물이 터쳐야 할 감정과는 반대되는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관중들의 감정을 격화시키는 감정조직수법이다.

역감정조성수법도 지난 시기 고전극작품들에서 많이 리용되여온 수법이다.

실례로 고대그리스의 비극 《오이디푸스왕》에서 왕비가 젊은 오이디푸스왕의 의심을 풀려고 사건을 설명하면 할수록 오이디푸스의 의혹과 고민이 더 커지는것으로 형상한것이라든가 고대그리스의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메데아》에서 메데아가 코린트의 왕과 공주를 암살한 대가로 자기 아들들이 복수를 당할수 있다는 위구심때문에 그들을 제손으로 죽여버리는것으로 감정을 엮어나간것을 들수 있다.

그런가 하면 쉴레르의 희곡 《간계와 사랑》에서는 페르디난드와의 결혼을 꿈꾸는 령주의 애첩이 루이제와 페르디난드의 사랑이 공고하다는것을 알면 알수록 격분해하는것이 아니라 그들의 순결한 사랑앞에서 자기의 어지러운 심성을 반성하며 수치를 느끼는것으로 역감정을 조성하고있다.

역감정조성수법은 갈등에 기초한 인물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정서를 그대로가 아니라 역전시켜 표현함으로써 극적감화력을 보다 높이는 효과를 나타낸다.

그런것으로 하여 역감정조성수법은 현대 극문학창작실천에서 널리 활용되면서 지적능력과 미적감수력이 비상히 높아진 현대인들의 미감에 맞는 은유적이며 상징적인 형상창조에 이바지하고있다.

3. 결 론

론문은 문학사에 널리 알려진 유럽고전극작품들에서 활용된 다양한 극조직수법들에 대하여 연구하고있으며 유럽의 대표적인 고전극작품들을 실례들어 론증하였다.

첫째로, 고전극이란 무엇이며 왜 고전극작품들에서 활용된 극조직수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가, 또 지난 시기 이 부문에 대한 선행연구정형은 어떠한가를 개괄하고있다.

둘째로, 고전극작품들에서 활용된 인물관계조직수법에 대하여 론의하였으며 이 부분

에서 쉐익스피어의《로미오와 쥴리에트》,《햄리트》등을 실례로 들고있다.

셋째로, 소포클레스의《오이디푸스왕》과 입쎈의《인형의 집》, 쉐익스피어의《베니스의 상인》과《오셀로》,《열두번째 밤》등을 분석하면서 고전극작품들에서 활용된 이야기조직수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전극작품들에서 활용된 감정조직수법에 대하여 론의하면서 소포클레스의 비극《오이디푸스왕》과 에우리피데스의《메데아》, 쉴레르의《간계와 사랑》, 쉐익스피어의《햄리트》와《로미오와 쥴리에트》등을 분석하였다.

고전극작품들에서 활용된 극조직수법에는 이밖에도 여러가지가 있으며 그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고전극, 극조직수법, 극성, 인물관계, 이야기줄거리, 감정조직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주체108(2019)년
어문학 제65권 제2호

동화극문학의 형상적특성

윤 봉 식

1. 서 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아동문학은 새것을 좋아하는 어린이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내용과 형식이 다채로와야 한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331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학생소년들의 공연을 여러차례 보아주시면서 청소년교양에 이바지할수 있는 동화극문학을 창작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동화극문학은 우리 어린이들을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믿음직한 후비대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동화극문학은 어린이들의 사상감정과 미적정서에 맞는 아동문학의 한 형태로서 문학의 다른 형태들과 마찬가지로 오랜 력사적전통을 가지고있다.

동화를 내용으로 하여 창작되는 동화극문학은 의인화와 환상, 과장의 수법으로 무대적형상을 창조한다. 이로부터 동화극문학은 아동들의 생활을 있는 그대로 극적방식에 담아 보여주는 아동극문학의 다른 형태들과 구별되는 고유한 형상적특성을 가지게 된다.

한편 동화극문학은 작가의 묘사나 설명에 의하여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이동하고 비약시키면서 생활을 여러모로 다양하게 그릴수 있는 동화문학과는 달리 무대라는 시공간적조건에 의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으며 몇개의 국한된 장면에서 생활을 집약적으로 그리는것으로 하여 일련의 형상적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전시기 아동문학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는 성인문학에 비해볼 때 미약하였으며 특히 아동문학의 여러 형태들가운데서 동화극문학에 대한 리론적 및 력사적연구는 거의나 진행되지 못하고 일부 작품과 작가에 대한 소개에 머물러있었다.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동화극문학에 대한 연구를 처음으로 시도한 론문은《해방전 프로레타리아아동문학에 대한 연구》(조선화. 교육도서출판사, 1991.)이다.

우리 나라에서 해방전 프로레타리아아동문학의 발생발전의 합법칙성과 그 사상미학적특징에 대하여 연구체계화한 이 론문에서는《제2장. 프로레타리아아동문학의 다양한 형태의 발전》에서 아동극문학에 대한 내용을 한개 절로 설정하고 해방전 프로레타리아아동극문학의 발전과정을 서술하면서 동화극에 대하여 간단히 취급하였다.

《프로레타리아아동극문학에서의 양식은 어떤 형상수법을 리용하고 무엇을 형상수단으로 하였는가 하는데 의하여 나뉘여진다.…

여기서 동화극은 아동극문학에만 고유한 극형태로서 계급의식을 구현한 아동극공연에 대한 일제의 탄압과 감시를 피할수 있게 하였으며 어린이들의 년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심각한 문제를 흥미있게 보여줄수 있게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론문에서는 해방전 프로레타리아아동극문학의 주제사상적 및 형상적특성에 대하여 서술하면서 동화극문학을 당시 창작된 아동극문학의 중요한 형태로 보았지만 그의 형상적특성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였다.

해방전에 창작된 아동극문학작품들에 대하여 소개하였거나 그에 대하여 단편적으로나마 분석한 도서들로서는《1920년대 아동문학집》(2) (편찬 류희정),《1930년대 아동문학작품집》(1), 《조선근대진보적아동문학연구》(조선화. 교육도서출판사, 주체95(2006).), 론문《잡지〈어린이〉를 통해 본 해방전아동문학연구》(김진미. 주체104(2015).) 등도 있다.

문학예술종합출판사(당시)에서 주체83(1994)년에 출판한《1920년대 아동문학집》(2)에서는《신소년》,《어린이》,《별나라》,《조선소년》,《새벗》등 소년잡지들과《동아일보》를 비롯한 여러 출판물들에 실렸던 1920년대 아동문학작품들가운데서 의의있는 작품들을 폭넓게 선택하여 형태별로 나누어 편집하면서 당시의 아동극문학들을 실었다.

오정애는《1930년대 아동문학작품집》(1)의 서문《1930년대 진보적아동소설, 아동극, 동화에 대하여》에서 1930년대에 활동한 작가들이 항일혁명투쟁과 그 영향밑에 발전하는 반일투쟁에 고무되여 일제의 식민지폭압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사상주제적내용에 있어서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작품들을 많이 창작했다고 평가하면서 진보적아동문학이 무산아동들의 조직적인 투쟁력을 보여주며 시대현실을 반영하는데서 새 경지를 개척했다고 썼다.

도서《조선근대진보적아동문학연구》에서는 7개 장으로 설정하고 조선근대아동문학에 대하여 비교적 폭넓게 연구체계화하였다. 그러나 도서에서는 아동극문학의 일반적형태에 대한 력사적인 자료연구가 기본목적인것으로 하여 아동극문학의 주요형태인 동화극문학의 형상적특성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연구분석하지 못하였다.

론문《잡지〈어린이〉를 통해 본 해방전아동문학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근대아동문학발전을 추동한《어린이》잡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아동문학의 다양한 형태들의 발전에 대하여 서술하면서 제3장 제3절《잡지〈어린이〉에 실린 작품들을 통해 본 형태발전에서의 특성》에서 해방전 아동극문학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외에 도서《해방전의 조선아동문학》(송영. 교육도서출판사, 1956.), 소론문《조선근대아동문학의 개척자 소파 방정환》(김룡화,《조선문학》1995년 8호)을 비롯하여 해방전 우리 나라의 아동문학을 연구한 소론문, 평론, 론문들에서도 해방전에 창작된 아동극문학을 단편적으로 분석하였다.

선행한 연구정형을 통하여 알수 있는바와 같이 동화극문학에 대한 연구는 발생당시인 해방전시기에 한하여 진행되였으며 또 그에 대한 연구도 전일적으로 체계화되여 진행되지 못하였다.

론문에서는 이전시기 창작된 작품들의 창작성과를 연구분석한데 기초하여 동화극문학의 형상적특성을 의인화되고 과장된 등장인물들의 성격형상과 동화극적인 환상창조, 다양하면서 굴곡있는 이야기줄거리조직 등의 세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2. 본 론

동화극은 환상적이고 과장된 생활을 의인화된 등장인물들의 형상을 통하여 눈앞에 펼쳐보임으로써 관중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

동화극은 비교적 낮은 년령기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창작되는 아동극의 한 형태로서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무대우에 등장하여 동화적인 이야기줄거리를 엮어나가는 극예술의 한 형태이다.

2.1. 성격형상의 특성

동화극의 사상예술적기초인 동화극문학의 형상적특성을 파악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등장인물들의 성격형상의 특성을 옳바로 인식하는것이다.

그것은 어린이들의 생활을 현실그대로 보여주는 아동극문학의 다른 형태들과는 달리 동화극문학에는 의인화된 인물들이 등장하는것과 관련하여 성격형상에서 일련의 특성을 가지기때문이다.

2.1.1. 의인화의 수법에 의한 성격형상

동화극문학에서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의인화의 수법으로 형상하는것은 동화를 내용으로 하여 창작되는 동화극문학의 특성과 관련된다. 동화극문학에서는 의인화의 수법으로 동식물을 비롯한 객관적인 물체, 자연현상, 추상적개념들에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특성을 부여하여 동화극적인 성격을 창조한다.

동화극문학에서 의인화의 수법으로 성격형상을 하는것은 인물관계를 다양하게 하고 극적인 관계로 보다 심화시킬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동화극문학에서 의인화의 수법으로 성격을 형상하게 되는것은 어린이들의 년령심리적특성과 관련된다. 주위의 모든 사물현상을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대하고 그와 대화를 나누는 어린이들의 사고방식과 심리적특성에 맞게 동화극문학에서는 동식물이나 기타 사물현상을 인격화하여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함으로써 의인화적인 성격형상을 창조하게 된다.

동화극문학에서는 우선 해당 대상의 유용성과 미적표상, 자연생태적특성에 기초하여 의인화해야 할 대상을 설정하고 그의 성격을 창조한다.

동화극문학에서는 의인화해야 할 대상들이 인간생활에서 노는 역할, 쓸모 등을 따져보고 그 유용성의 정도에 따라 긍정 또는 부정인물로 갈라 설정한다.

그리고 해당 사물현상들을 사람이 고운것으로 보는가, 징그러운것으로 보는가 하는 미적감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인화대상들을 긍정인물 혹은 부정인물로 설정한다. 의인화해야 할 대상을 설정하면서 그의 미적표상에 기초해야 하는것은 그것이 유용성의 견지에서는 충분히 긍정인물로 될수 있지만 사람들이 그 대상을 고운것으로 보지 않을 때 그것을 동화극의 긍정인물로 설정할수 없는것과 관련된다. 례를 들어 구렝이나 박쥐 같은것들은 사실상 인간생활에 리로운 동물들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런 동물들을 동화극에서 긍정인물로 설정할수는 없다. 그것은 사고가 비교적 단순한 어린이들이 이러한 동물들의 생김새로부터 받게 되는 좋지 않은 인상으로 하여 무대우에서 펼쳐지는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때문이다.

의인화해야 할 대상을 설정하는데서 동식물이나 기타 여러가지 사물현상들의 자연생태적특성을 잘 연구하고 그것을 옳게 리용하는것도 중요하다. 토끼를 우둔하게 형상한다든가, 곰을 령리하고 지혜롭게 한다든가, 잔인하고 포악한 승냥이를 마음씨 곱고 착한 형상으로 성격을 창조한다면 어린이들에게 옳바른 인식을 줄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동식물의 생태적특성과 사물현상의 성질과 맞지 않아 작품에 그려진 등장인물의 성격이 생활적인 진실, 미학적인 매력, 예술적인 조화를 깨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식물들의 생태적특성과 생존방식, 강산과 바위, 지어 안개와 무지개를 비롯한 여러가지 자연현상들의 속성과 생김새 등을 잘 연구하여 의인화해야 할 대상을 설정함으로써 그 특성에 어울리게 의인화된 성격을 그려내야 한다.

동화극문학에서는 또한 의인화된 등장인물들이 가지고있는 성격의 어느 한 측면만을 주도적으로 그려내고 다른 특성들은 생략해버림으로써 단순하고 명백한 성격을 창조한다.

의인화된 성격을 창조하는데서 동화극문학에서는 의인화대상의 본질적이면서도 보편적인 특성에 의거하여 작품의 주제사상적요구에 따라 어떤 때에는 이런 특성을, 어떤 때에는 저런 특성을 주도적인것으로 그려내면서 다른 특성들은 생략하여버린다.

동화극문학에서 의인화대상이 가지고있는 모든 속성들과 특징들을 동시에 다 보여주면 동심에 맞는 단순하고 명백하면서도 흥미있는 성격을 개성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낼수 없게 된다. 동화극의 관람대상은 비교적 낮은 년령기의 어린이들이다. 이러한 어린이들의 년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이야기줄거리에 대한 명확한 표상을 주고 인식교양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등장인물들에 대한 성격적인 표상부터 명백히 주는것이다.

동화극의 등장인물들은 다른 문학작품들에서와는 달리 자연적특성과 함께 그자체의 속성이 아닌 의인화된 인물들의 성격도 가지게 된다. 낮은 년령기의 어린이들은 동화극에서 의인화된 대상들의 특징에 대한 표상이 뚜렷할수록 인물들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한다.

생활에서는 흔히 어린이들이 그림책이나 만화영화를 보면서 외적인 특징에 대한 표상에 많이 의거하여 등장인물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것을 볼수 있다. 어른들은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에 체현된 전형적성격의 사회적가치와 그 의의에 기초한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아직 생활체험이 부족하고 직관적인 사고가 우세한것으로 하여 등장인물들을 평가하는 기준도 매우 단순하다. 따라서 동화극에서 의인화하는 대상들의 자연생태적특성에 대한 파악은 어린이들이 등장인물의 성격을 리해하는데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동화극문학의 성격형상에서는 전형화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사상주제적과제에 따라 의인화하는 대상의 한가지 또는 몇가지 특징들만 뽑아 그것을 확대과장하고 인상적으로 예리하게 그려내여 개성적인 성격을 창조한다.

어느 한 측면에 모를 박고 등장인물의 성격을 그릴 때에는 의인화하는 대상들의 자연생태적특성과 유용성, 미적표상들을 세밀하게 따져보면서 종자의 요구에 맞게 형상을 창조한다.

실례로 동화극문학 《옥토끼가 얻은 구슬》에서는 토끼가 긍정인물로 형상되였지만 다른 동화극 《귀 큰 토끼의 뉘우침》에서는 부정인물로 형상되였다. 즉 첫번째 작품에서는

어린이들이 빨간 눈알을 대룩거리는 온순한 토끼에 대하여 귀엽고 똑똑하다는 표상을 가지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긍정인물로 내세웠고 두번째 작품에서는 귀가 크다는 자연생태적특성의 측면을 두드러지게 살려 리치를 따지지 않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봉변을 당하는 부정인물로 내세웠던것이다.

그러므로 동식물이나 사물현상을 의인화하여 성격을 창조할 때 그 자연생태적특성과 유용성, 미적표상 등 여러가지 측면가운데서 어느 측면을 살리겠는가를 정확히 결정하고 거기에 모를 박고 성격을 형상하면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성격이 명백히 나타나게 한다.

다른 문학작품들에서는 부정인물의 성격속에 긍정적인 측면도 포함시킬수 있고 긍정인물의 성격에도 부정적인 측면을 포함시킬수 있다. 그러나 동화극문학의 성격은 선과 악, 고운것과 미운것, 옳은것과 그른것이 명백한 성격으로 되여야 한다.

아동극문학의 다른 형태들에서는 학생소년들이 직접 등장하여 그들의 성격형상이 외모와 내면세계, 학습과 조직생활, 도덕생활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그려지게 된다.

그러나 동화극문학에서는 등장인물이 가지고있는 성격의 어느 한 특징적인 측면을 확대과장하여 그와 관련된 생활만을 흥미있게 끌고나가게 된다.

2.1.2. 과장의 수법에 의한 성격형상

과장의 수법은 그 어떤 사실이나 사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작품에서 보여주려는 사상주제적내용을 강조하고 형상의 생동성을 보장하는 형상수법의 하나이다.

동화극문학의 성격형상창조에서 과장의 수법은 등장인물들의 능력이나 기질적인 측면을 보여주는데 많이 리용된다. 실례로 본래보다 굉장히 큰 모양으로 과장할수도 있고 소리나 힘의 크기로도 과장할수 있다.

동화극문학 《큰 주먹》에서는 주인공 외동이와 그의 동무들이 키운 힘을 과장의 수법으로 보여주었다. 파랑새의 도움으로 신기한 샘물을 마시고 원쑤를 때려부실 장수힘을 키운 외동이와 그의 동무들이 커다란 바위를 주먹으로 내려치자 요란한 소리와 함께 깨여져나간다. 이것은 지주놈들을 때려눕힐수 있게 장수힘을 키운 그들의 능력을 과장의 수법으로 보여준것이다.

동화극문학창작에서는 등장인물의 성격에서 본질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데 이 수법을 적극 활용한다. 동화극문학창작에서 비본질적이며 부차적인것을 과장하거나 환경과 맞지 않게 과장하면 동화극의 성격형상에서 진실성과 생동성을 잃고 오히려 긍정적인것을 왜소화하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예술적과장은 이야기를 보다 흥미있고 생동하게 표현하는 효과적인 형상방법인것만큼 언제나 생활적인 진실에 토대하여야 한다.

우에서 실례로 든 동화극문학 《큰 주먹》에서 커다란 바위도 깨버리는 외동이와 그의 동무들이 지니고있는 힘에 대한 과장은 그것이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뭉친 힘이 제일 세다는 생활의 진실에 기초하고있기때문에 성격형상을 생동하게 할수 있는것이다.

2.1.3. 다양한 극적관계에 기초한 성격형상

동화극문학에서 등장인물들의 성격은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여 맺어지는 등장인물들 호상간의 다양한 극적관계속에서 창조된다. 그것은 동화극의 극적인 성격이 무대에서 살아움직이는 등장인물들의 호상관계를 통하여 창조되기때문이다.

일반 동화문학에서 보게 되는 인물형상도 다른 인물들과의 호상관계에서 성격을 나타낼 때가 있지만 동화극문학에서처럼 절실한 요구와 리해관계에 기초한 극적인 관계속에서 성격을 드러내놓지는 않는다. 독자들은 동화의 인물형상을 작가의 묘사와 설명에 기초하여 상상하여 그려볼뿐이다.

그러나 동화극에서는 눈앞에서 살아움직이는 의인화된 인물들의 호상관계속에서 그 인물형상들을 관중이 직접 눈으로 보게 된다. 아동영화에서도 살아움직이는 생동한 의인화된 인물형상을 보지만 그것은 영사막을 통해서만 보게 된다. 하지만 동화극무대에서는 현실에서 보는것과 꼭같이 의인화된 인물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환상적인 생활그대로의 모습으로 보게 되는것이다.

동화문학에서는 인물관계설정에서 극적인 관계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실례로 동화 《귀가 큰 토끼》에서 남의 말을 듣기 좋아하며 아무 일이나 직심스럽게 하지 않는 토끼의 성격은 곰, 사슴을 비롯한 여러 등장인물들과의 관계속에서 밝혀지고있다. 이 동화에서 토끼를 둘러싸고 맺어진 모든 관계들은 절실한 리해관계와 운명문제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그런 극적인 관계로는 설정되지 않고있다.

그러나 동화극문학 《사슴골의 교훈》, 《잠자리마을의 초롱등》과 같이 심각한 적대적갈등에 기초한 극적관계를 보여주는 작품들은 물론 우리 나라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동화극문학들인 《잠을 깨요》, 《땅속나라 소동》을 비롯하여 모든 동화극작품들에서 인물관계는 평면적으로 순탄한 관계가 아니라 립체적으로, 극적으로 얽혀있는 관계이며 그러한 극적인 관계속에서 의인화된 인물의 성격적특징을 밝히고있다.

동화극문학 《잠자리마을의 초롱등》에서는 신기한 초롱등을 둘러싸고 베짱이, 사마귀를 비롯한 꽃동산의 동무들과 독나비들사이의 관계가 설정되고있다. 초롱등을 지키면 꽃동산을 지키지만 초롱등을 빼앗기면 꽃동산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이 초롱등을 둘러싼 서로의 관계는 심각한 극적인 관계로 되지 않을수 없다.

실례로 동화극 《갈매기나라 섬》과 《토끼네 동산》에서는 동화극문학창작에서 의인화적인 성격들을 특색있게 보여줄수 있도록 극적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동화극 《갈매기나라 섬》에서는 큰 날개를 가진 독수리와 작은 날개를 가진 갈매기가 강한 극적대조를 이루고있다. 그런가 하면 동화극 《토끼네 동산》에서는 몸집도 작고 힘도 약한 토끼가 자기보다 몸집이 몇배나 큰 승냥이와 싸워 이긴다. 이러한 형상은 결국은 큰것과 작은것이라는 극적인 관계의 형상적발견으로 되며 이러한 관계속에서 의인화된 등장인물들의 성격적특징이 개성적으로 특색있게 밝혀지고있는것이다.

2.2. 동화극적환상창조의 특성

동화적환상은 의인화, 과장의 수법과 함께 동화극문학창작에서 필수적인 형상수법으로 되고있다.

동화적환상은 현실생활속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념원이나 소원, 욕망 등을 창작가의 상상의 힘을 빌어 어린이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그려낸 형상세계이다. 동화적환상은 어린이들의 년령심리적특성에 알맞는 형상창조수법이다. 동화적환상은 어린이들의 심리정서적요구를 반영하여 그들이 바라는 생활세계를 펼쳐보이는것으로 하여 그들에게서 커다란 정서적공감을 불러일으키게 되는것이다.

동화극문학이 동화적인 내용을 담고있다고 하여 동화문학창작의 형상수단과 수법들이 동화극문학창작에 그대로 리용되는것은 아니다.

동화극문학은 생활을 무대적조건에 맞게 시공간적으로 최대로 집약화하여 보여주는것으로 하여 작가의 객관적인 묘사로 시공간적인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펼쳐지는 동화문학의 환상과는 구별되는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2.2.1. 강한 극성을 내포한 동화적환상

동화적환상의 형상적요소는 강한 극성을 가진 환상적인 인물과 사건, 정황이다. 이것은 동화극문학에 등장하는 환상적인물이 현실적인물들과의 관계에서 극적으로 얽힌 인물이며 환상적사건 역시 극성으로 충만된 사건이며 환상적정황 역시 환상의 견인력과 진폭을 최대로 높여주는 극적인 정황이라는것을 의미한다.

동화극문학에서 형상되는 환상적인 인물은 현실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과 극적으로 얽힌 관계를 맺는다.

동화극 《열두달의 집》과 그와 류사한 동화적환상세계를 펼친 동화 《머슴소녀와 산딸기》를 비교해보면 잘 알수 있다.

동화극 《열두달의 집》에서는 한해동안 학습과 생활을 잘하지 않고도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는 용이와 그의 동생 철이를 묵은해할아버지가 열두달을 차례로 불러들여 지나온 그들의 생활을 보여주며 일깨워준다. 여기에서 현실적인 인물인 용이, 철이와 환상적인물인 묵은해할아버지는 환상의 세계속에서 직접 관계를 맺고있다. 환상적인 인물인 묵은해할아버지는 환상의 세계를 펼쳐주는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건의 발전과정속에서 현실적인물인 용이, 철이와의 관계를 보다 더 깊이한다.

그러나 동화 《머슴소녀와 산딸기》에 등장하는 환상적인물인 흰눈할아버지는 머슴소녀의 눈물겨운 사연을 듣고 그의 눈앞에 따뜻한 봄날을 펼쳐주며 한껏 무르익은 딸기까지 안겨준다. 산딸기를 받아안은 머슴소녀가 집에 돌아가는것으로써 실제적인 인물인 머슴소녀와 환상적인 인물인 흰눈할아버지사이의 관계는 끝난다. 그후 흰눈할아버지와 산판으로 찾아온 지주집딸년사이의 관계가 다시 맺어지기는 하지만 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치는 속에서 부자집딸년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는것으로 동화는 끝난다.

물론 동화문학에서도 환상적인물과 현실적인물사이의 관계를 서로 침투하고 작용하는 관계로 설정한다. 그러나 동화극문학에서는 환상적인물이 현실적인물과 잠간 만나 환

상의 세계를 펼쳐주는 제시자적인 역할만 수행하는것이 아니라 현실적인물과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관계를 맺고 사건발전의 전과정에서 주인공의 성격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인물로 형상된다.

그것은 동화극문학이 환상의 세계를 창작가의 주관적의도에 의해 자유분방하게 펼쳐보이는 동화문학과는 달리 무대에서의 형상창조라는 제한성을 가지기때문이다.

동화극문학은 무대형상을 통해 재창조될것을 전제로 하는 문학이다. 동화극문학에서는 동화적세계를 라렬하거나 평면적으로 보여줄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관중과의 직접적교감속에서 몇개의 제한된 장면을 통하여 짧은 시간내에 극적인 생활화폭속에 동화적환상의 세계가 펼쳐져야 한다.

그러므로 무대우에 등장하는 얼마 안되는 등장인물들은 누구나 할것없이 주인공을 중심에 놓고 극적으로 심오하게 얽힌 극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여기에서 동화적환상세계를 펼쳐주는 환상적인물도 례외로 될수 없다. 동화극문학창작에서는 동화적환상세계속에서 나오는 환상적인물과 현실적인 인물의 극적인 관계를 관중들에게 실감이 나도록 잘 형상할것을 요구한다.

동화극문학창작에서 환상적인물과 현실적인물사이의 관계가 잘 맺어지게 하는데서 그들의 관계를 극적으로 맺어줄수 있는 물질적수단들을 적극 탐구리용하는것이 중요하다.

무대우에 펼쳐지는 생활이 동화적환상이 맥박치는 산 형상으로 되자면 구체적인 생활현실에 의거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환상세계를 펼치는 여러가지 물질적수단들을 옳게 리용하는것이다.

환상세계를 펼치는 물질적수단이란 동화극의 환상적인물이 리용하는 여러가지 로동 및 생활도구를 말한다. 환상세계를 펼치는 물질적수단은 환상세계에서만 존재하며 환상세계에서 동화적인물이 리용할 때에만 생명력을 나타낼수 있다.

동화극문학에서는 계기와 조건에 따라 여러가지 물질적수단을 자유롭게 리용하며 거기에 무제한한 힘과 신비성을 부여할수 있다. 환상세계를 펼치는 물질적수단이 환상적인물과 현실적인물의 관계를 필연적인 극적관계로 맺어줄수 있는 매개물로 되지 않는다면 환상적인 동화극적형상을 창조할수 없게 된다.

동화극문학 《다시 찾은 시간》에서 나오는 환상적인 인물인 시간할아버지와 영진이, 혁철이를 비롯한 현실적인물들사이의 관계에서 환상세계를 펼치는 물질적수단은 아이들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굉장히 큰 텔레비죤이다. 이 텔레비죤을 통하여 귀중한 공부시간에 장난에 눈을 팔며 아까운 시간을 잃고있는 영진이, 혁철이와 시간할아버지사이의 관계가 맺어지게 된다.

동화극문학에서 환상적인 인물과 현실적인 인물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 환상적인 물질적수단들은 그자체에 환상을 일으키는 바탕을 가지고있어야 하며 어린이들의 생활에 가깝고 그들의 미학정서적요구와 생활론리에도 맞는것으로 설정되여야 한다.

동화극문학창작에서 환상적인물과 현실적인물사이의 관계가 잘 맺어지게 하는데서 그들사이의 호상관계가 맺어질수 있는 극적계기를 마련해주는것도 중요하다.

동화극문학 《열두달의 집》에서 용이와 철이는 그해가 다 끝날 시간을 몇분 남겨두고 자기의 잘못을 깨끗이 반성해야 할 과제를 안고있으나 자기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러한 생활적인 계기속에서 지나간 날들을 펼쳐 그들의 생활을

보여줄수 있는 묵은해할아버지, 열두달형제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것이다.

동화극문학에서는 환상적사건과 정황도 작품의 극성을 최대로 높일수 있는 중요한 형상수단으로 된다. 그것은 환상적인 사건과 정황이 정상적인 생활의 흐름을 깨뜨리고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을수 있는 충분한 전제를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신기한 장수샘물 한바가지로 늙은이도 순간에 젊은이로 만들고 텔레비죤화면으로 온 세상 아이들을 다 살펴보며 그들이 잃어버리는 시간을 모아들이는 등 신비스러운 사건들은 현실에서 볼수 없는 충격적이며 극적인것들이다.

동화극문학은 동화적인 내용을 극적묘사방식으로 보여주는것으로 하여 동화문학에서보다 극성이 강한 환상적인 사건과 정황을 요구한다. 동화극문학에서 환상적인 사건과 정황은 강한 극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는데 안받침되고있다. 환상적인 사건과 정황은 작품의 기본이야기속에서 극적위기를 부단히 조성하고 관중들의 예상을 뒤집어나가면서 극적인 견인력을 한층 높일수 있게 한다.

동화극문학 《선사받은 뿔피리》에서는 꽃동산에서 만든 새로운 화살을 없애버리려는 승냥이놈과 박쥐놈의 흉계를 짓부셔버리는 사건이 흥미있게 설정되고있다. 보초병의 자각을 잊어버린 흰송이가 거지로 가장한 박쥐놈으로부터 받은 뿔피리를 불자 그속에서 이상한 옷차림을 한 요정들이 나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돌아가면서 흰송이에게 술을 먹인다. 그만에야 흰송이가 곯아떨어지자 박쥐놈은 바줄로 흰송이를 꽁꽁 묶는다. 이때 흉악한 승냥이놈이 나타나 신기한 화살을 벼려내는 야장간에 불을 놓는다. 그러다가 이상한 노래소리를 듣고 나온 흰송이의 동생에 의해 저지당하자 승냥이놈은 그를 칼로 찌른다. 그리고는 성냥가치만 갖다대면 불이 일어나는 선을 야장간에 다시 늘인다. 흰송이는 안타깝게 소리를 지르지만 묶이운 몸이다보니 어쩔수 없었다. 이때 흰송이의 동생이 안깐힘을 다해 비상종을 울려 동산의 짐승들에게 알린다. 이 작품에서 박쥐놈이 준 신기한 뿔피리에서 흘러나와 노래부르고 춤추는 요정들에 의하여 야장간의 보초인 흰송이가 잠들어버리는 환상적인 사건은 동산의 전체 짐승들의 운명과 관련되는 심각한 극적위기로 되며 이것을 통하여 박쥐를 어리숙한 거지로만 생각하던 관중들의 예상을 뒤집고 그놈이 동산의 생명인 야장간을 노리는 나쁜 놈이라는 명백한 표상을 주고있다.

환상적인 정황은 동화극의 환상을 전개시킬수 있게 하는 구체적계기이며 조건이다. 환상적인 정황은 동화극에서 전개되는 사건과 인물들의 호상관계속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사건과 인물, 그에 의하여 조성되는 환상적정황이 어떤가에 따라 환상의 극적견인력과 진폭이 크게 나타날수도 있고 작게 나타날수도 있다.

동화극문학에서 환상적인 정황은 항상 관중들이 극적기대감과 흥미를 가지도록 긴박하게 조성된다.

동화극문학 《녹쓸었던 칼》에서 극적인 정황은 너구리가 칼에 맞아 쓰러지는 장면이다. 이 정황은 평상시 경각성이 없이 살아온 사향노루에 의해 조성된것이다. 이리놈의 칼에 너구리가 쓰러져도 그처럼 위용을 뽐내던 사향노루의 그 칼은 뽑혀지지 않는다. 그리하여 평상시 늘 동산을 제 혼자 지킨다고 우쭐대던 사향노루는 제 한목숨도 건지지 못할 형편에 놓이게 된다.

환상적정황은 단순히 관중들의 흥미를 끌기 위한것으로 설정되여서는 안되며 어디까지나 동화적인 흐름에 맞으면서도 등장인물의 성격의 본질이 드러나고 사건이 더욱더 긴

장성을 띠고 발전하게 하는 극적인 계기로 되여야 한다.

환상적인물, 사건, 정황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며 그 호상관계속에서 다채롭게 변화발전한다. 환상적정황이 조성되지 못하면 환상적사건이 일어날수 없으며 환상적인 사건은 환상적인물의 행동이 없이 전개될수 없다. 환상적정황이 극적인 정황으로 제시될수록 환상적인물과 현실적인물사이의 관계도 더욱 극적으로 심화되며 환상적인 사건도 역시 놀라운 사상정서적충격을 주는 극적인 사건으로 된다.

환상적인물과 사건, 정황을 동화극문학의 특성에 맞게 설정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생활론리의 진실성과 그 련계의 충분한 타당성을 보장하는것이다. 아직 환상적정황은 조성되지 않았는데 환상적인물을 등장시키거나 환상적사건을 펼쳐놓는다면 환상의 진실성을 보장할수 없게 된다. 한편 환상적정황은 비상하고 극적인 인간관계나 사건을 요구하는데 그렇지 못한 환상적인 인물과 사건을 준다면 기형적인것으로 되고만다. 그러므로 환상적인물과 사건, 정황은 이 모든것을 면밀히 따져본데 기초하여 밀접히 맺어주어야 한다.

2.2.2. 무대적형상을 전제로 하는 무대적환상

동화극문학에 형상되는 환상의 세계는 무대우에서 직접 펼쳐지는것을 전제로 하는 무대적환상이다. 동화문학에서는 시공간의 구속을 받지 않고 현실세계와 환상세계를 자유롭게 오고가면서 다양한 환상세계를 펼칠수 있다. 물론 독자들은 작가의 묘사와 설명에 의하여 환상의 세계를 다만 자기의 머리속에서만 그려볼수 있다. 이에 비해볼 때 동화극문학에서는 이러한 환상의 세계를 무대우에 등장하는 의인화된 인물들과 환상적인 산 인물들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눈앞에 실감있게 펼쳐보인다. 동화극문학의 환상은 음향과 조명을 비롯한 무대적장치들과 등장인물들의 소도구의 도움으로 펼쳐지는 무대적인 조건을 가지고있다.

동화극문학의 무대적환상의 특성은 조명, 음향, 영사막을 비롯한 무대적장치와 소도구 등에 의하여 펼쳐지는 직관적이며 실감있는 형상세계라는것이다.

동화극문학은 무대적형상을 위한 재창조과정을 거쳐야 하는것만큼 많은 경우 창작가들은 신비한 무대적환상을 펼칠수 있는 방도를 무대장치와 소도구의 발견에서 찾고있다.

이것은 무대장치와 소도구에 대한 문제가 무대연출가에게 한한 문제가 아니라 아동극작가가 극문학창작단계에서부터 무대적으로 실현가능하면서도 작품의 극적인 견인력을 담보할수 있는 형상수단들을 탐구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작가가 현대적인 음향 및 조명설비들을 비롯한 여러가지 무대적형상수단들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을 가지고 그 형상적기능을 자기의것으로 만드는것이며 그에 기초하여 대담하게 창작적환상의 폭을 넓히고 동화극의 형상을 립체적으로 펼쳐나가는것이다.

실례로 동화극 《뿔나팔소리》에서는 창고자물쇠를 부엉이자물쇠로 장치하고 부엉이눈에서 시퍼런 불줄기가 번쩍번쩍 비쳐나오게 하였으며 뿔나팔이 울리면 부엉이자물쇠가 열리면서 창고문에 매달려있던 큰 부엉이가 날개를 치며 날아오르게 하였다. 한편 동화극 《풍년장훈》에서는 영사막으로 풍년벌 장기판을 펼쳐놓고 풍년벼이삭이 이상기후두령을 이기는 절정장면에서 록음효과로 《풍년장훈》소리를 크게 울리게 함으로써 온 장내를 뒤흔들게 하였다.

이렇게 직접 보거나 들을수 있게 무대장치와 소도구들을 착상하여 도입하면 관중들이 보다 큰 흥미를 가지고 동화극을 보게 된다.

그러나 무대우에 《향기풍기는 단지》를 가져다놓고 부지런한 토끼의 단지에서는 향기가 풍기고 게으름뱅이 곰의 단지에서는 향기가 풍기지 않는다는 식의 대사로 무대적형상을 대신하려 한다면 직관적으로 안겨오지 않는 그러한 형상은 어린 관중들의 흥미를 끌수 없다. 또한 호랑이가 함정에 빠지는 정황을 조성하여놓고 《호랑이가 함정에 빠졌다》는 대사를 주는식으로 막연하게 동화극적형상을 연출가에게 제기한다면 그것은 무대적형상이 곤난하며 설사 무대에 올린다고 하여도 형상의 진실성을 담보할수 없게 된다.

동화극문학을 창작하면서 작가들은 현대적인 과학기술수단들을 동화극적형상에 리용할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탐구리용하여 우리 어린이들의 감정세계에 맞는 희한한 동화극을 창조해나가야 한다.

2.3. 이야기줄거리조직의 특성

이야기줄거리는 구성에서 중심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되기때문에 이야기줄거리조직의 특성을 밝히는것은 동화극문학의 형상적특성을 해명하는데서 기본문제의 하나로 나서게 된다.

종자가 아무리 훌륭한것이라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이야기줄거리를 흥미있게 엮지 못하면 결국 작가의 창작적의도를 실현할수 없게 되고 동화극은 관중을 잃게 되며 따라서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없게 된다.

2.3.1. 사건성이 강한 이야기줄거리조직

어린이들은 변화가 다양하고 약동적인 작품을 좋아한다. 동화극문학에서는 정적인 묘사나 대사를 장황하게 늘어놓기보다 인상적이고 특징적인 표상을 주는 활동적인 세부를 간편하게 그려나가며 등장인물의 내면심리를 깊이 추구하는것보다 흥미있는 사건들로 이야기줄거리를 아기자기하게 엮어나간다.

어린이들의 주의집중력은 목적의식적이라기보다 흥미와 호기심에 많이 의존하며 그 지속성도 매우 약하다. 따라서 어린이들은 하나의 대상에 오래동안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며 인차 또 다른 새로운것에 흥미를 가지게 된다.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어린이들을 교양할수 있는 흥미있는 옹근 하나의 이야기를 담자면 등장인물의 내면심리를 깊이 파헤칠것이 아니라 주인공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행동선을 따라 사건성이 강한 이야기를 굴곡있게 빨리 전개시켜야 한다.

동화극문학에서는 우선 극적인 사건이 련이어 일어날수 있도록 주인공에게 긴박한 동화적정황을 제시함으로써 이야기줄거리의 사건성을 강화한다.

주인공앞에 부과된 행동과제가 시간상 절박하여야 주인공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벌려나가게 되며 그 과정에 이야기가 속도있게 전개되여나가게 된다.

동화극문학에서 긴박한 극적정황은 등장인물들로 하여금 자기가 체현한 성격의 본질을 명백히 드러내게 한다. 자기의 운명과 리해관계를 결정하게 되는 정황에서 등장인물의 내면세계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며 그것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구체화되게 된다. 따라서 동

화극문학에서는 처음부터 등장인물의 적극적인 행동에 대한 강한 기대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정황이 제시된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장면들이 완만하게 흘러가면서 이야기가 처지고 어린이들은 인차 지루감을 느끼게 된다. 실례로 동화극문학 《아금랑》에서는 왜적들과 그와 내통한 역적들인 군장과 거수에 의하여 종이 깨여짐으로써 당장 왜적들이 쳐들어오게 된 긴급한 정황이 조성되여있으며 동화극문학 《진주골의 물고기들》에서는 신기한 바위를 깨는가 마는가에 따라 잡혀간 물고기들과 마을의 운명이 결정되는 극적정황이 조성되여있다.

동화문학에서는 긴급한 정황을 조성시킨 작품들도 있을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작품들도 있을수 있다.

그러나 동화극문학에서는 긴박한 극적정황을 부단히 탐구하여 이야기줄거리를 흥미있게 조직한다.

동화극문학에서는 또한 정적인 묘사보다 무대에서 실지 움직이는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행동선을 따라 이야기를 전개시켜나감으로써 이야기줄거리의 사건성을 강화한다.

동화에서는 인물의 행동묘사외에 초상묘사, 심리묘사, 자연묘사 등 여러 대상에 대한 정적인 묘사를 통하여 인물의 성격을 표현하며 이야기를 전개시켜나간다.

그러나 동화극문학은 무대우에서의 형상을 전제로 하는것만큼 이러한 정적인 묘사를 할수 없다.

동화극문학은 생활내용을 작가가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전달하는것이 아니라 인물들의 행동과 전개되는 생활화폭을 통하여 스스로 밝힐것을 요구한다. 때문에 관중의 예상을 뒤집을수 있게 새로운 정황을 련이어 조성하면서 주인공의 행동선을 따라 이야기를 견인력있게 전개해나간다.

동화극문학 《옥토끼가 얻은 구슬》은 동산의 창고를 노리던 도적놈을 잡는 이야기이다. 작품의 첫부분에서 원숭이아주머니는 창고지기 곰할아버지의 손자인 막내곰을 위해 멋있는 그림종이를 구해다주고 맛있는 음식들도 동무들에게 나누어준다. 그러나 옥토끼의 멋진 꾀에 의하여 동산의 착한 짐승들이 숨어서 지켜보는것도 모르고 창고의 열쇠를 열고 낟알을 훔치던 원숭이의 정체가 폭로된다. 이렇게 처음에는 좋은 일만 찾아하는 짐승으로 생각했던 원숭이가 도적으로 판명되도록 예상을 뒤집어놓음으로써 이야기의 극적인 흐름을 굴곡있게 조성하고 변화무쌍한 행동선도 살릴수 있었다.

동화극문학에서는 또한 어린이들의 심리에 맞게 환상적인 장소나 환경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설정함으로써 이야기줄거리의 사건성을 강화한다.

환상적인 장소와 환경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하며 그들을 작품의 세계에로 끌고들어가는데 효과적인 작용을 한다.

실례로 동화극문학 《다시 찾은 시간》, 《잠을 깨요》를 비롯한 여러 작품들에서는 환상적인 장소와 환경설정으로 이야기를 흥미있게 조직해나가고있다.

동화극문학 《다시 찾은 시간》에서는 현실생활에서는 볼수 없는 《시간의 집》이라는 환상적인 장소에서 이야기를 펼치고있다. 《시간의 집》은 공부를 잘하지 않은 학생들이 놓쳐버린 시간과 지식들을 모아놓는 집이다. 이런 환상적인 장소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은 시작부터 어린 관중들에게 강한 극적인 기대와 흥미를 불러일으킬수 있다. 장소와 환경을

임의로 변경시키며 이야기를 전개해나가는 동화문학과는 달리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를 고정시킬것을 요구하는 동화극문학에서는 어린이들의 엉뚱한 심리에 맞는 장소와 환경을 설정하는 문제가 이야기줄거리의 사건성을 강화해나가는데서 중요하게 나서게 된다.

동화극문학에서는 또한 과장 및 환상의 수법을 리용하여 이야기줄거리의 사건성을 강화한다.

과장 및 환상의 수법은 동화극문학창작에서 필수적인 수법들이다. 이 수법들은 동화극문학의 성격창조에서뿐만아니라 이야기줄거리조직에서도 동화극문학의 형상적특성을 뚜렷이 살려나가는데 중요하게 쓰이고있다.

동화극문학에서는 과장의 수법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사건조직에서 극적인 비약과 함축을 실현한다.

무대우에서 벌어지는 생활을 어린이들이 짧은 시간동안에 리해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길게 라렬하는것이 아니라 극적인 사건을 함축하여 보여준다.

동화극문학 《꿀꿀이의 호박농사》에서는 공부는 실속있게 하지 않고 남의 본만 따르다가 호박농사를 망치는 꿀꿀이의 교훈적인 이야기를 보여주고있다. 작품에서는 토끼와 꿀꿀이가 각기 해바라기와 호박을 키우는 과정을 다 보여주지 않고 그것을 토끼와 꿀꿀이의 대사로써 설명하고 열매가 맺히는 시기의 이야기만을 흥미있게 무대적으로 형상하고있다.

토　끼 : 꿀꿀아, 너 호박농사를 잘했니?
꿀꿀이 : 내 걱정은 하지도 말아.
토　끼 : 그래, 그럼 내가 가꾼 해바라기를 보여줄가? (자기의 밭을 향하여)
해바라기야, 어서 열매를 맺어주렴.
(흥겨운 음악속에 해바라기가 우쭐우쭐거리더니 쟁반같은 해바라기가 활짝 피여난다.)
꿀꿀이 : 괜찮은데, 그럼 내것도 좀 보여줄가. (자기의 밭을 향하여)
내가 가꾼 호박아, 어서어서 달고도 큰 호박을 한아름 안겨주렴.
(느릿느릿한 음악속에 호박이 맥없이 자라다가 주먹만 한 호박이 한알 뚤렁 떨어진다.)

이와 같이 이 작품에서는 대조되는 성격을 가진 두 인물의 이야기를 동심적인 대사와 함께 과장의 수법으로 비약하고 함축하여 재미있는 동화극적형상을 창조하고있다.

동화극문학에서는 환상의 수법을 리용하여 이야기줄거리조직에서 무대적인 시공간적 제약성을 극복한다.

일반적으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인간과 그 생활의 전모를 그려내는 소설문학이나 영화문학과는 달리 희곡에서는 현재로부터 과거에로,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에로 자유롭게 비약시키면서 생활을 여러모로 다양하게 그릴수 없다.

동화극문학도 희곡의 한 형태로서 이러한 시공간적제한성을 가지고있지만 과장과 환상이라는 특수한 형상수법을 리용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그것을 극복해나가고있다.

동화극문학 《열두달의 집》은 섣달그믐날 어머니로부터 한해동안 범한 잘못을 일기에 쓰라는 과업을 받은 두 학생이 흘러간 자기들의 생활속에서 교훈을 찾는 이야기이다. 그들이 아무리 머리를 쥐여짜도 자기들의 잘못을 찾지 못하자 묵은해할아버지가 나타나서

그들의 지나간 생활을 펼쳐보여준다.

철이 : 난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걸 뭐.
용이 : 나두, 잘못한게 생각나지 않아 그래.

△ 두 아이 멍청하니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있다.

용이 : 엥이, 열두달을 몽땅 붙잡아오면 좋겠네.
철이 : 열두달을? 야! 열두달이 어디 있니?

△ 묵은해할아버지 등장한다.

묵은해할아버지 : 허허, 너희들이 그렇게도 제 잘못이 생각나지 않으면 내가 열두달을 불러주지. 얘, 열두달들아, 어서 차례로 나와 이 애들의 잘못을 보여줘라.

이렇게 되여 1월과 2월을 비롯한 열두달들이 차례로 나와 교통질서를 잘 지키지 않다가 단속되는 용이의 모습과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듣지 않고 뽈차기하는 운동장만 바라보다가 망신당하는 철이의 모습 등을 비롯하여 한해동안의 생활을 차례로 영사막에 펼쳐보여준다.

이러한 환상적인 회상식구성형식은 동화극문학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독특한 이야기줄거리조직수법으로서 동화극적인 이야기의 흥미를 돋구어주고 극적견인력을 보장할수 있게 한다.

한편 동화극문학 《달나라를 찾아서》에서는 수학연구소조의 두 학생이 서로 다른 공식으로 연구한 궤도를 따라 달나라로 날아가는 래일의 환상적인 생활을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동화극문학에서는 과장 및 환상의 수법을 리용하여 현재로부터 과거에로,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에로의 생활을 무대우에 펼쳐나가는 독특한 이야기줄거리조직수법으로 자기의 형태적특성을 살려나간다.

물론 동화극문학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있다고 하여 영화문학이나 동화문학에서처럼 시공간을 자유자재로 리용할수 있다고는 볼수 없다.

그러나 무대라는 제한된 범위에서 현실생활을 반영하는 희곡의 다른 형태들과의 관계에서 놓고볼 때 이러한 이야기줄거리조직수법은 동화극문학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중요한 특성이다.

2.3.2. 특색있는 갈등에 기초한 이야기줄거리조직

인물들의 호상관계에 의하여 생겨나고 뻗어나가는 이야기줄거리는 갈등에 따라 전개되고 발전하여나간다. 극에서는 인물들의 극적관계가 갈등에 기초하여 맺어지고 심화발전되는것만큼 인물관계의 발전체계인 이야기줄거리도 갈등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게 된다.

동화극문학에서 보여주는 선과 악, 옳은것과 그른것, 고운것과 미운것은 초계급적인 순수 미형태인것이 아니라 언제나 로동계급적관점에서 평가된 개념으로 된다.

그러므로 동화극문학에도 리해관계에서 서로 모순되는 적대적인 대상들사이의 대립과 충돌, 투쟁을 반영한 예술적갈등인 적대적갈등과 리해관계가 근본적으로 대립되지 않는 대상들사이에 존재하는 비적대적갈등이 있게 된다.

실례로 동화극문학 《사슴동산에서 있은 일》, 《뿔나팔소리》에서는 의인화된 적대되는 등장인물들사이에 적대적갈등을 설정하였고 동화극문학 《숨겨놨던 바구니》, 《베짱이가 찾

은 기쁨》에서는 비적대적갈등을 설정하고 긍정인물들에 의한 교양과정속에서 부정인물들이 교양개조되여나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동화극문학에는 극문학의 일반적형태들에 존재하는 적대적갈등과 비적대적갈등이 설정된다.

《땅속나라 소동》, 《풍년장훈》과 같이 자연개조를 위한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반영한 작품들의 이야기줄거리조직에서 특징적인것은 등장인물들사이에 설정되는 갈등을 적대적갈등처럼 심각하게 설정하고 풀어나간것이다.

이 작품들에서의 갈등은 사회계급적으로 첨예하게 대치되는 그 어떤 계급들사이의 대립과 충돌, 투쟁을 반영한것이 아니다. 그러나 동화극문학 《땅속나라 소동》에서는 착암기, 뽐프와 같은 채굴설비들과 가스, 지하수사이의 충돌과정을 보여주고있으며 동화극문학 《풍년장훈》에서는 풍년벼이삭, 비닐박막장수, 저수지장수, 살초제장수들과 이상기후두령, 왕가물장수, 무더기비장수 등 사이의 치렬한 대결과정으로 이야기를 흥미있게 엮어나가고있다.

그것은 우리 인민이 자연을 정복해나가는 투쟁과정이 곧 전쟁과 같이 치렬하고 심각한 투쟁과정으로 되기때문이다. 동화극문학에서 이러한 작품들의 이야기는 적대적갈등이 설정된 작품들에서처럼 부정인물들의 파멸과정으로 그려진다.

동화극문학에서는 갈등을 직접 설정하지 않고도 이야기줄거리를 전개해나갈수 있다.

일반적으로 갈등이 없는 극문학형태들에서는 덕성소재나 미담자료를 작품의 소재로 한다. 그러나 의인화된 인물들이 등장하는 동화극문학에서는 주제를 비속화할수 있으므로 이러한 소재를 선택할수 없다. 그러므로 갈등을 설정하지 않고 동화극문학의 이야기를 극적으로 엮어나간다는것은 창작실천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지난 시기 동화극문학창작과정을 보면 이러한 갈등이 없는 동화극문학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여 훌륭히 형상되여 공연되였다.

동화극문학 《자랑많은 무지개들》, 《행복의 큰 문》 등이 그 실례로 된다.

이 작품들에서 갈등을 설정하지 않고도 이야기를 흥미있게 엮을수 있은것은 작가가 현실긍정의 열정과 지향을 안고 기발한 동심적인 형상세부들을 발견하고 그에 기초하여 흥미있게 사건조직을 해나간데 있다.

동화극문학 《자랑많은 무지개들》에서 작가의 발견은 풍년든 농장벌의 풍경을 아롱다롱 고운 무지개로 본데 있다.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자기들밖에 없다고 뽐내던 하늘무지개들이 천리마나라에 비낀 무지개를 보고 놀란다. 주체농법대로 농사를 지어 벼풍년, 사과풍년, 남새풍년자랑이 가득한 농장벌에 비낀 무지개들의 사연을 알게 된 하늘무지개들은 천리마나라 무지개들은 땅에서, 자기들은 하늘에서 천리마나라를 곱게 단장하자고 약속한다.

한편 동화극문학 《행복의 큰 문》에서는 물맑은 대동강을 찾아오는 물고기들의 이야기를 흥미있게 펼쳐보이고있다. 공해로 오염된 바다에서 병을 만나 고생하던 물고기들이 물맑은 대동강을 찾아오다가 서해갑문이 건설된것을 보고 대동강으로 갈수 없게 되였다고 오해하게 된다. 그러다가 대동강숭어를 비롯하여 대동강에서 사는 물고기들의 안내를 받으며 서해갑문의 물고기길을 따라 대동강에 들어와서 병도 고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동화극문학 《행복의 큰 문》에서는 속도전의 기상높이

전진하며 위대한 전변을 안아오는 주체조선의 위력에 대하여 긍지높이 보여주고있다.

2.3.3. 명백하고 간결한 이야기줄거리조직

동화극은 전환되는 무대장면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생활내용을 행동적으로 펼쳐보이며 충격적인 감정을 안겨주는 특성을 띠고있다.

동화는 한토막씩 떼여 읽을수 있고 읽다가도 앞에서 본 내용이 생각나지 않으면 지나간 페지를 다시 펼쳐볼수 있지만 동화극에서는 한번 지나간 장면은 그 자리에서 다시 되돌려볼수 없다. 하기에 그 장면에서 똑똑히 알지 못하고 넘어간것은 어린 관중들이 동화극이 끝날 때까지도 리해못하게 된다.

동화극문학의 이야기줄거리가 간결하고 명백하다는것은 결코 심도가 얕다는것이 아니다. 동화극문학의 이야기줄거리는 짧지만 사상적알맹이가 박힌 생활의 흐름이 있으며 단순하지만 굴곡이 있다.

동화극문학에서 이야기줄거리를 명백하고 간결하게 짠다는것은 사건과 등장인물들을 필요없이 많이 벌려놓지 말고 사건을 단순하게 설정하고 직관적으로 내용을 리해할수 있도록 극적인 생활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는것이다. 동화극문학에서 성인문학처럼 사건과 인간관계를 복잡하게 얽히게 하고 등장인물들을 많이 설정하면 사고가 단순하고 지속성이 약한 어린이들이 작품의 내용을 리해하는데 혼란을 줄수 있다.

자연개조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반영한 작품들인 동화 《불구슬》과 동화극문학 《풍년장훈》을 대조해보면 잘 알수 있다.

동화 《불구슬》은 추운 겨울에도 얼지 않는 땀방울을 의인화한 불구슬이 소한, 대한과의 거듭되는 싸움을 벌리면서 벼랑산에 구멍을 뚫고 다리도 우뚝우뚝 세워나가는 이야기이다. 동화에서는 불구슬이 흘러가면서 일해나가는 과정을 시공간적제한을 받음이 없이 차례차례 보여줄수 있다. 만일 이 이야기를 무대우에서 동화극으로 형상한다면 수많은 장면을 설정하고 부단한 무대변화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야기줄거리는 언어행위가 실현되는 현실적시공간을 불가피하게 고정시킬것을 요구하는 동화극의 형상적특성에는 맞지 않는다.

동화극문학 《풍년장훈》에서는 어린이들이 리해하기 쉽게 장기경기라는 이야기의 흐름을 타고 이상기후두령이 눈서리장수, 왕가물장수, 무더기비장수를 공격에로 내몰지만 풍년벼이삭편의 비닐박막장수, 저수지장수 등에 의해 먹히우는 흥미있는 장면들을 펼쳐보이고있다. 동화극문학 《풍년장훈》에서는 이처럼 농장벌에서 이상기후와의 투쟁을 벌리며 풍년작황을 이룩해나가는 과정을 장기경기라는 간단한 이야기속에서 어린이들이 직관적으로 리해할수 있도록 명백하면서도 집약화하여 보여주고있다.

동화극문학에서는 이야기를 명백하고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의 순서를 뒤바꾸거나 여러 갈래의 이야기들을 무질서하게 끼워놓지 않는다. 또한 이야기줄거리의 흐름을 사건의 발생, 발전, 절정, 해결의 흐름으로 명백히 하면서 마감에 가서 어린 관중들이 작품에서 주려는 사상을 정확히 알도록 한다.

3. 결 론

발전하는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아동문학의 다양한 형태들을 우리 어린이들의 사상정서교양에 이바지할수 있게 창작하는것은 아동문학작가들앞에 나서는 영예로운 임무이다. 우리 어린이들의 사상감정과 정서에 맞는 동화극을 더욱 발전시키자면 그 사상예술적기초인 동화극문학의 사상예술성부터 높여야 한다.

론문에서는 동화극문학의 형상적특성을 밝히는것을 연구과제로 제시하고 의인화적이며 과장된 성격형상, 동화극적환상창조, 다양하면서도 굴곡있는 이야기줄거리조직과 같은 형상창조의 측면에서 리론적해명을 주려고 하였다.

론문은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하여 어린이들의 생활을 현실그대로 반영하는 일반아동극문학 그리고 동화문학과 구별되는 동화극문학의 고유한 형상적특성을 해명함으로써 아동문학의 중요한 형태인 동화극문학의 형태적특성을 명백히 밝히는데 일정하게 기여하게 되리라고 본다.

우리 어린이들의 사상의식수준과 지적수준은 끊임없이 높아지고있다.

아동극문학작가들과 문예리론가들은 아동문학의 다양한 형태들에 대한 리론적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어린이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창조적지혜와 재능을 키워줄수 있는 새롭고 참신한 동화극문학작품들을 어린이들의 동심적특성에 맞게 더 많이 창작해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아동문학, 아동극문학, 동화극문학, 형상, 어린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주체108(2019)년
어문학 제65권 제2호

조선어에서 수식기능을 수행하는 품사의 력사적발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원사 교수 박사 **김 영 황**

1. 서 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말은 문법구조도 째였습니다. 문법구조가 째였다는것은 언어가 그만큼 발전되였다는것을 말합니다.》(《**김정일**전집》 제3권 130페지)

우리 말의 우수성의 하나는 문법구조가 매우 째여있는 점이다. 매개 품사들의 력사적인 형성발전과정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기초하여 그것이 가지는 문법적특성을 옳게 밝히는것은 우리 말 문법구조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시대적요구에 맞게 언어규범화를 확립해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론문에서는 수식기능을 수행하는 품사들의 력사적형성발전과정을 과학적으로 밝히는것을 중요한 문제로 내세웠다.

조선어에는 체언수식기능을 수행하는 품사로서의 관형사와 용언수식기능을 수행하는 품사로서의 부사가 있다. 수식기능을 수행하는 품사와 관련하여 확증하여야 할 문제는 관형사가 생겨나 그것이 자립적품사로 확립되는 과정과 상징어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문법적기능이 다양화되는 문제이다.

2. 본 론

2.1. 자립적품사로서의 관형사의 확립과정

2.1.1. 련체적수식기능의 단어

세나라시기 조선어를 반영하고있는 향가에는 관형사로 볼수 있는 자료들이 극히 부분적으로나마 나타나고있다.

- <u>毛冬</u>居叱沙(<u>모든</u> 것사)(죽지랑가)
- <u>皆</u>佛體(<u>한</u> 부톄)(고행가)
- <u>皆</u>吾衣(<u>한</u> 내희)(회향가)

《毛冬》을 독해함에 있어서 《조선고가연구》(1942)에서는 《모ᄃᆞᆫ》으로, 《향가해석》(1956)에서는 《모ᄃᆞᆯ》로 독해하고있는데 그것이 체언수식기능을 가지고있는데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고있다.

한편 《皆》를 《조선고가연구》에서는 《한》으로 독해하면서 《한》은 《大》의 뜻을 가지고있다고 하였으며 《향가해석》에서는 그것을 《모ᄃᆞᆫ》으로 독해하면서 《모ᄃᆞᆫ(모ᄃᆞᆯ)》은 현대말로 《모든》이라고 하였다. 결국 그것들은 다 련체적수식기능을 수행하는것으로 보고있다.

그런데 이 말들은 초기국문문헌에 다음과 같이 반영되여있다.

- 모ᄃᆞᆫ 사ᄅᆞᆷ과 六師왜 보고 ᄀᆞ마니 몯 이셔(《석보상절》 6권 30장)
- 嗔心이 한 젼ᄎᆡ라(《월인석보》 1권 14장)

기원적으로 볼 때 《모ᄃᆞᆫ(모ᄃᆞᆯ)》은 동사 《몯다(集)》에서 파생된것으로서 체언우에서 규정형으로 쓰이면서 련체적수식기능을 지니게 된것이다.

- 奉天討罪실ᄊᆡ 四方諸侯ㅣ 몯더니 聖化ㅣ 오라샤 西夷 ᄯᅩ 모ᄃᆞ니(《룡비어천가》 9장)
- 모ᄃᆞᆯ 도 都(《류합》 상권 19장)
- 모ᄃᆞᆯ 합 合(《류합》 하권 48장)

이처럼 《몯다(集)》는 원래 동사인데 그것이 규정형으로 되면서 《都, 合》의 뜻으로 되여 련체적수식기능*을 수행하게 되였다.

* 련체적수식기능이란 체언우에서 그것을 수식하는 기능임.
- 모ᄃᆞᆫ 사ᄅᆞᆷ과 六師왜 보고 ᄀᆞ마니 몯 이셔(《석보상절》 6권 30장)

마찬가지로 《한》도 형용사 《하다(多, 衆)》로 널리 쓰이던것인데 술어로 쓰일 때와는 달리 체언우에서는 규정형으로 쓰이면서 련체적수식기능을 수행하고있다.

- 그^긔 쇠 하아(《월인석보》 1권 24장)
- 多ᄂᆞᆫ 할씨라(《훈민정음언해》)
- 衆은 할씨라(《월인석보》 서문 6장)
- ᄆᆞ쇠로 한 쇼를 디여다가(《악장가사》 정석가)

물론 많은것은 아니지만 《모ᄃᆞᆫ(모ᄃᆞᆯ)》이나 《한》처럼 련체적수식기능을 수행하는 단어부류가 15세기 국문문헌자료에는 물론이고 세나라시기의 향가자료에까지 나오고있는것은 주목할만 한 일이다.

우의 자료를 통하여 이 단어부류는 동사, 형용사의 규정형으로부터 파생되였음을 쉽게 알수 있는데 그것이 일단 화석화되면 그 상태에서 체언수식기능을 수행하게 되는것이다.

그런데 련체적수식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단어부류가 다 동사, 형용사의 규정형에서만 나오는것은 결코 아니였다.

- 온 體ㅣ 오로 업스며(《원각경언해》 상권 1/2. 140장)

사실상 《온》은 수사 《온(百)》과 기원을 같이하고있다.

- 百ᄋᆞᆫ 오니라(《월인석보》 1권 6장)

그런데 《온 體ㅣ》의 경우에 《온》은 수사의 본래의미보다 의미폭을 훨씬 넓히고있다. 다시말하여 수사 《온(百)》의 의미가 아니라 《전체》의 의미로 쓰이게 된것이다.

《온》은 《갖(가지)》과 결합하여 《온갖(온가지), 온갇》으로 되면서 새로운 문법적기능 즉 련체적수식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 상ᄉᆞ와 영장 온갓 이ᄅᆞᆯ 모ᄃᆞᆫ 형의게 미디 아니 ᄒᆞ니 (《동국신속삼강행실도》 효자 3권 33장)
- 百寶ᄂᆞᆫ 온가짓 보ᄇᆡ라(《월인석보》 8권 7장)
- 아ᄇᆡ 병이 극ᄒᆞ여 온갇 약이 효험 업거ᄂᆞᆯ(《동국신속삼강행실도》 효자 8권 48장)

또한 련체적수식기능을 수행하는 단어의 다른 례로 《샹녯》을 들수 있다.

- 샹녯 사ᄅᆞᄆᆞᆫ 煩惱를 몯 ᄲᅧ ᄇᆞ릴ᄊᆡ(《월인석보》 1권 12장)

《샹녯》은 본래 한자말명사 《常例》에서 온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사ᄅᆞᆷ》과의 결합에 의하여 합성명사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샹녯》의 경우에 규정촉음소* 《ㅅ》이 삽입되여있는것으로 보아 이것은 분명히 단순한 합성명사가 아니라 규정적결합을 의미하고있는것이다. 그렇다면 《샹녯》은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수행하는것으로 보아야 한다.

* 규정촉음소는 뒤에 오는 말을 수식하면서 그 첫소리를 된소리화하는것을 이르는 말.

그러나 《샹녜》가 규정촉음소 《ㅅ》의 첨가없이 뒤에 오는 명사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ㅇ 내 지븨셔 샹녜 環刀ㅣ며 막다히ᄅᆞᆯ 두르고 이셔도(《월인석보》 7권 6장)

ㅇ 受生ᄒᆞᆫ ᄯᅡ해 샹녜 宿命을 알리니(《월인석보》 21권 93장)

이 경우에 《샹녜 環刀, 샹녜 宿命》의 《샹녜》는 명사로서 뒤에 오는 명사와 결합하여 합성명사화한것이다.

이것은 같은 말도 규정촉음소 《ㅅ》을 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문법적기능이 달라진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또 다른 실례로서 《녀나ᄆᆞᆫ, 녀나믄, 녀ᄂᆞ, 녀느, 년》을 들수 있다.

ㅇ 녀나ᄆᆞᆫ 祥瑞도 하며(《월인석보》 2권 46장)

ㅇ 그 밧긔 녀나믄 일이야 分別ᄒᆞᆯ줄 이시랴(윤선도 시조)

ㅇ 녀ᄂᆞ 뫼ᄒᆞᆫ 다 듣거운 ᄡᅡᄒᆞᆯ 므던히 너기거ᄂᆞᆯ(《두시언해》 13권 5장)

ㅇ 녀느 나랏 王이 ᄒᆞᆫ 날 다 아ᄃᆞᆯ 나ᄒᆞ며(《월인석보》 2권 45장)

ㅇ 내 님 두ᅀᆞᆸ고 년 뫼ᄅᆞᆯ 거로리(《악학궤범》 리상곡)

《녀나ᄆᆞᆫ, 녀나믄, 녀ᄂᆞ, 녀느, 년》은 다 《다른》의 뜻으로서 련체적수식기능을 수행하고있는데 이것들은 본래 《녀느/년ㄱ》으로 쓰이던 미정대명사에서 기원하고있는 말이다.

ㅇ 녀느 타 他(《류합》 하권 6장)

ㅇ 半길 노ᄑᆞᆫ 년기 디나리잇가(《룡비어천가》 48장)

ㅇ 四海ᄅᆞᆯ 년글 주리여(《룡비어천가》 20장)

이처럼 《녀느, 년기, 년글》은 《년ㄱ》의 각이한 격형태들이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련체적수식기능을 수행할 때에는 《녀ᄂᆞ, 녀느, 년》과 같이 그 어떤 격토의 첨가없이 각이한 변종을 가지고 쓰이고있으며 《녀나ᄆᆞᆫ, 녀나믄》과 같은 경우에는 《녀느》에 기원한 《녀》와 《남다》의 규정형인 《나ᄆᆞᆫ, 나믄》과 결합하여 련체적수식기능을 수행하고있다.

또 다른 실례로 《아모(아므)(某)》는 뒤붙이 《란(ᄅᆞᆫ)》을 취하여 《아ᄆᆞ란, 아모란, 아므란, 아므ᄅᆞᆫ》으로 되면서 련체적수식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ㅇ 아ᄆᆞ란 ᄆᆞᅀᆞᆯ히어나 자시어나(《석보상절》 9권 40장)

ㅇ 아므란 딥지즑 잇거든(《로걸대언해》 상권 23장)

ㅇ ᄒᆡ 이리 노ᄑᆞᆺ고 앏픠 ᄯᅩ 아므ᄅᆞᆫ 店이 업ᄉᆞ니(《로걸대언해》 상권 35장)

련체적수식기능을 수행하는 단어가운데서 오랜것으로는 《므스》도 들수 있는데 이것은 대명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있다.

ㅇ 므스 ᄒᆞ라 너를 기들오료(《로걸대언해》 하권 18장)

ㅇ 므슴 호려 ᄒᆞ시ᄂᆞ니(《월인석보》 1권 10장)

이 경우에 《므스》와 《므슴》은 의문대명사이다.

그런데 《므스》와 《므슴》은 그대로 련체적수식기능을 수행하는 일이 있었다.

ㅇ 므스 이를 잘 ᄒᆞᄂᆞ뇨(《동국신속삼강행실도》 동명화전)
ㅇ 내 또 므슴 시름 ᄒᆞ리오(《월인석보》 21권 49장)

이 경우에 《므스》는 분명히 뒤에 오는 《일》에 대하여, 《므슴》은 뒤에 오는 《시름》에 대하여 수식적기능을 수행하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또한 《므스》는 《므ᄉᆞ》와 같은 변이형으로 쓰이면서 련체적수식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ㅇ 하ᄂᆞᆯ의 추미러 므ᄉᆞ 일을 ᄉᆞ로리라(《송강가사》 관동별곡)

그렇다면 《므스》와 그 변종인 《므ᄉᆞ》는 의문의 대명사이면서 한편으로 련체적수식기능도 수행하고있었던것으로 된다.

그리고 《므슴》의 경우에도 《무엇》이라는 의미의 의문대명사로도 쓰이고 또 한편으로 《무슨》이라는 의미로서 련체적수식기능도 수행하고있었다.

ㅇ 므슴 호려 ᄒᆞ시ᄂᆞ니(《월인석보》 1권 10장) 대명사의 기능
ㅇ 므슴 利益 이시리오(《월인석보》 21권 49장) 련체적수식기능

그런데 《므슴》이 변이형들로 《므슴, 므스, 므슷》으로 되여서는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수행하고있다.

ㅇ 네 高麗 ᄯᅡ히 므슴 貨物 가져온다(《로걸대언해》 하권 2장)
ㅇ 므스 이를 잘 ᄒᆞᄂᆞ뇨(《삼강행실도》 동명화전)
ㅇ 그ᄃᆡ 子息 업더니 므슷 罪오(《월인석보》 1권 7장)

초기국문문헌에 의하면 다른 명사도 련체적수식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ㅇ 여러히 다 道ᄅᆞᆯ 窮究호ᄃᆡ(《릉엄경언해》 10권 23장)
ㅇ 諸小王ᄋᆞᆫ 여러 혀근 王이라(《석보상절》 13권 13장)

이 경우에 첫째것은 《여러》가 격토 《히》를 취한 명사로 되지만 둘째것은 《혀근 王》에 대한 수식기능을 수행하고있으므로 기능상 같은것이 아니다.

이처럼 중세조선어에서 련체적수식기능을 수행하는 단어부류는 다른 품사에서 분화되여나오면서 여러 변이형을 취하고있었는데 이것은 이 시기에 자립적품사로서의 자격을 점차 갖추어나가는 과정을 거치고있었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이러한 부류의 단어들로는 《모ᄃᆞᆫ(모ᄃᆞᆯ), 한, 온, 샹녜, 녀느, 아ᄆᆞ란, 므슴, 여러》 등 초기국문문헌에서 그 가지수가 많지 않았지만 명사, 수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등 다른 품사에서 분화되여 점차 련체적수식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 《관형사》라는 독자적인 하나의 품사부류를 이루는데로 발전하게 되였던것이다.

2.1.2. 자립적품사로서의 관형사설정

조선어발전의 력사적과정을 볼 때 관형사가 처음부터 자립적인 품사로서의 자격을 가지고있었던것은 결코 아니였다.

지난 시기 문법학자들은 《모든》과 《많은》이 체언앞에 놓이여 그것을 수식한다는 공통성으로 묶이여지는 문법적특징을 인정하고 그 문법적기능에 대하여 론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을 자립적인 품사로까지 인정하지는 않았다.*

* 《대한문전》(1908)과 《초등국어어전》(1909)

그러나 주시경은 《국어문법》(1910)의 《기난틀》에서 국어품사로서 임(명사), 엇(형용사), 움(동사), 겻(조사), 잇(접속사), 언(관형사), 억(부사), 놀(감탄사), 끗(종결사)의 9개품사를 설정하고 다시 《기갈래의 난틀》에서는 개별적품사내부의 단어부류들을 례를 들어 설명하였는데 여기서는 관형사에 해당하는 《언의 갈래》를 11개로 나누었다.

① 가르침언: 이, 그, 저
② 물품언: 좋은, 귀한, 무른
③ 물모언: 큰, 적은
④ 행품언: 착한, 순한, 강한
⑤ 행모언: 깃븐, 궁금한, 답답한
⑥ 때언: 이른, 늦은, 오란
⑦ 헴언: 한, 두, 세
⑧ 견줌언: 이러한, 저러한, 그러한
⑨ 모름언: 엇더한
⑩ 움언: 간, 먹는, 가는
⑪ 임언: 돌(돌집), 나의(나의 칼)

이 문법에서는 지시(가르침), 여러가지 물건의 품질(물품), 여러가지 물건의 모양(물모), 여러가지 행위의 품성(행품), 여러가지 행위의 모양(행모), 시간(때), 수량(헴), 비교(견줌), 미정(모름) 등 뒤에 오는 체언의 어떤 특징을 꾸미여주는가에 따라 나누는 경우(①～⑨)와 다른 품사에서 전성되여 쓰일 때 그 근원을 밝히는 경우(⑩～⑪)를 뒤섞고있었다. 그 련체적수식기능의 공통성만을 중시한데로부터 《언》의 분류에서 일관한 기준이 없기때문에 그 구성이 잡다하게 규정되였다.

이처럼 주시경은 체언우에 얹히여 수식의 기능을 수행하는 단어라는데서 《언》의 표식을 잡고 《언》의 범주에 규정어로 쓰이는 대명사, 수사, 형용사, 동사, 명사를 다 포함시키였다. 《언》의 이러한 잡다한 구성은 《듬》(문장성분)으로서의 《금이》(수식어)와 일치시키려는 시도에서 나온것으로 짐작되는데 이것은 《언》의 설정에서 단어의 문장성분적기능만을 선차적으로 고려한데서 온것으로서 관형사의 독자적인 의미기능을 력사적견지에서 옳게 가려보지 못한것과 관련되여있다.

주시경은 《국어문법》의 품사분류에서 《언》이 드러내고있던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후 《말의 소리》(1914)에서는 실질적 《기》와 문법적 《기》가 결합하여 《언》을 이루었던것을 해체하여 《크, 착하, 이러하》는 《엇》에, 《먹》은 《움》에 소속시키는 한편 《언》의 구성속에 들어있는 《ㄴ, 은, 는, 던》과 《의》를 모두 《기》로 인정하여 《겻》에 포함시키고 토없이 《언》으로 될수 있었던 《이, 그, 저》는 《임》에 소속시키였다.*

* 《이, 그, 저》를 《국어문법》에서는 《밋언》이라고 하면서 다른 《기》에서 온것이 아니라 본바탕부터 《언》으로 된것이라고 하였음.

그리하여 주시경은 《국어문법》에서 설정한 《언》과 관련한 모순을 극복한다고 하면서 결국 《말의 소리》에서는 《언》이라는 품사를 아예 없애버리고말았다.

그후 《현금조선문전》(1920)에서는 《언씨는 명사를 지정하여 형용하는 씨》로서 반드시 임씨우에서 쓰인다는것을 강조하면서 관사(冠詞)를 설정하였다.

이 문법책에서 《언씨》로 들고있는 다음과 같은 네개 부류는 그 구성이 매우 단순한 것이 특징적이다.

① 고, 요, 조

② 한, 두, 여러, 모든

③ 새, 외, 돌

④ 어느, 무슨, 웬

이처럼 이 문법책에서는 그 어떤 토도 붙지 않고 련체적기능을 수행하는것만이 《언씨》로 렬거되고있다. 이것은 이 부류 단어의 문법화에서 상당한 정도로 정리되고 전진한 것으로 평가할수 있다.

관사의 련체적기능을 형용사와 비교하여보게 되면서 관사적인 형용사라는데로부터 그 이름을 《관형사(冠形詞)》로 고쳐부르게 된것은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였다.

《조선어학》(1935)에서는 조선어의 관형사는 그것이 수식어로 사용되는 점에서 영어의 형용사(Adjective)와 같지만 영어형용사는 동사 Be와 합하여 서술어로 되지만 관형사는 서술어로 전혀 쓰이지 못한다는것을 들고 관형사를 보통관형사, 표수관형사, 지시관형사, 의문 및 부정관형사의 네개 부류로 나누고 그 구체적인 용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보통관형사는 《보통으로 사물의 상태를 표시하는 관형사》를 이르는데 고유조선어로 된것은 그 수가 많지 않다고 하면서 《강, 날, 들, 통, 맨, 메, 풋, 새, 수, 숫, 찰, 암, 올, 외, 햇, 헛》을 들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정한 문제점이 내포되여있었다. 즉 고유한 의미에서의 관형사와 형태부로서의 앞붙이가 구별되지 않고 혼동되고있는것이다.

물론 단어로서의 관형사와 형태부로서의 앞붙이를 구별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의미론적전일성, 구조－형태론적전일성과 함께 단어의 기본표식인 명명적기능과 문장론적기능을 가지고있으면 관형사로 될것이며 그러한 표식을 가지고있지 못하면 형태부인 앞붙이로 될것이다.

이런 각도에서 분석할 때 《조선어학》에서 보통관형사라고 하여 렬거한것들가운데는 관형사라기보다는 앞붙이로 처리해야 할것들까지 섞여있는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말본》(1937)은 일정하게 전진하였다고 할수 있다. 즉 《우리말본》에서는 《임자씨를 꾸미는 말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규정어로 쓰일수 있는 일곱가지 경우를 들고 명사, 동사, 형용사가 규정어로 되는것을 관형사에서 제외하였으며 《올벼, 홀어미, 외아들》의 경우에 《올, 홀, 외》를 《머리가지(앞붙이)》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정말 어떤씨인것》이라고 하면서 《어느, 무슨, 웬, 요, 그, 한》을 들고 이것들은 대명사나 수사와 어원상 동일하지만 어떤씨(관형사)로서 독특한것임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선행문법책에서 발로되였던 일련의 부족점을 극복하고 독특한 품사로서의 관형사의 범위를 확정한것으로서 관형사조성의 력사적과정을 일정하게 고려한것이다.

20세기초부터 많은 문법학자들의 관심사의 하나로 되여왔던 관형사문제는 20세기 후반기에 이르러 그 품사적특징이 리론적으로 정식화되고 그 종류도 확정되게 되였다.

《조선어문법》(1)(과학원출판사, 1960.)에서는 관형사란 대상의 표식을 나타내는 단어들의 부류로서 형용사와는 달리 형태변화체계를 가지지 않고 오직 규정어로만 쓰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결합적특성을 리론적으로 해설하고있다.(449～450페지)

첫째로, 관형사는 형용사와 달리 명사로 명명되는 대상의 표식만을 나타내며 대명사로 지시되는 대상의 표식을 나타내는 일이 거의 없기때문에 관형사는 대명사와의 결합이 어렵다는 점을 들고있다.

례를 들어 《전선에서도 용감했던 네가 아니냐.》에서 형용사 《용감했던》은 대명사 《네가》와의 결합이 가능하지만 관형사는 이런 일이 거의 없다는것이다. 혹시 《그것을 어느 누가 새겼는지?》와 같은 문장에서 관형사 《어느》가 대명사 《누가》와 결합하는 일이 있으나 이것은 극히 례외적인 현상이라고 할수 있다.

둘째로, 관형사는 일반적으로 수사가 나타내는 수량이나 순서에 대하여 그 어떤 표식을 나타내지 않는다. 다시말하여 관형사와 수사와의 결합은 거의 없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특수하게 《근, 단, 제》와 같은 관형사는 수사앞에서 수량적 또는 순서적표식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례를 들어 《근 삼십이 된 사람, 단 하나도 없다, 제 륙십, …》 등에서 관형사 《근, 단, 제》는 수사 《삼십, 하나, 륙십》과 결합하고있는데 이것은 특수한 경우이다.

셋째로, 관형사에는 그 어떤 토도 취할수 없다.

결국 관형사는 특히 명사와만 관련을 가지는 단어라고 할수 있는것만큼 이것을 체언앞에 공통적으로 결합하는것처럼 인식하면서 그전에 일반적으로 《련체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수 없다.

이 문법책에서는 관형사를 그 의미의 특성에 따라 성질관형사(례: 막다른, 별별, 별의별, 본, 순, 새, 허튼, 딴, 여느, 오른, 옛, 왼)와 분량관형사(례: 각, 근, 단, 모든, 매, 여러, 온, 온갖)로 나누었다.(450～452페지)

《현대조선어》(2)(고등교육도서출판사, 1961.)에서는 관형사의 품사적특성을 론하면서 특히 관형사와 앞붙이의 차이에 대하여 관심을 돌리였고 단음절관형사인 《온, 별, 딴, 새, 전, 제, 각》 등은 그것이 어떤 명사와 결합할 경우에 관형사로서 명사와 결합한것인지 또는 앞붙이로서 말뿌리와 결합한것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그 구별적 표식으로서 다음의 세가지를 들고있다.

첫째로, 관형사는 그자체가 한개 단어로서 자립적인 소리마루를 가지며 다음단어와의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발음하지만 앞붙이는 그렇지 못하다.

둘째로, 관형사는 론리적련계가 가능한 문장에서 다른 어떤 명사와도 자유롭게 결합할수 있으나 앞붙이는 그자체가 한 단어안의 형태부이기때문에 단어조성수법에 의하여 극히 제한된 말뿌리와만 결합할수 있다.

셋째로, 적지 않은 관형사는 그 다음단어와의 사이에 다른 규정어가 끼일수 있으나 앞붙이의 경우에는 이것이 불가능하다.(94～95페지)

그리고 이 책에서는 관형사의 단어조성문제에 대해서도 서술하면서 말뿌리합성과 품사전성이 기본으로 되여있다고 하였다.

결국 관형사의 문법적특성에 대한 리론적해명은 1960년대에 와서야 일단락짓게 되였다.

이처럼 문장에서 련체적수식기능을 수행하는 단어부류인 관형사는 조선어의 발전력사에서 후기적으로 형성되여 점차 증가되면서 자립적품사로까지 되는 과정을 밟은것으로서 조선어의 고유한 품사라고 말할수 있다.

2.2. 상징어의 증가와 그 문법적기능의 다양화

조선어문법구조의 력사적발전에서 주목되는 문제의 하나는 상징어의 대량적인 증가와 그 문법적기능의 다양화에 대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소리나 모양을 본따서 나타내는 상징어는 언어의 형상적표현에 쓰이는것으로서 그 사용의 범위는 비교적 넓다.

그러나 상징어와 률조어는 엄연히 갈라보아야 한다.

고려가사에서는 다양한 률조어*들이 쓰이고있었다.

*률조어란 일정한 선률을 보장하는 말을 이르는것임.

청산별곡(靑山別曲)

살어리 살어리랏다
靑山애 살어리랏다
멀위랑 ᄃᆞ래랑 먹고
靑山애 살어리랏다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노라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서경별곡(西京別曲)

西京이 아즐가
西京이 셔울히마르는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닷곤 ᄃᆡ 아즐가
닷곤 ᄃᆡ 쇼셩경 고외마른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여히므론 아즐가
여히므론 질삼뵈 ᄇᆞ리시고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청산별곡》에서는 구절마다에서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를 되풀이하고있으며 《서경별곡》에서는 분절들에서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를 반복하여 일종의 률조를 보장하고있는데 이것은 결코 상징어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어떤 문법적기능을 수행하고있는것이 아니기때문이다.

그것들은 가사의 률조를 보장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는것으로서 뒤에 오는 용언에 대해서 수식하는 그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이러한것들을 률조어라고 하여 상징어와 엄격히 구별하는것이다.

상징어가 그 어떤 사물현상의 각종 특성을 감각적으로 상징하여 표현하는것이라면 률조어는 사물현상의 특성과 무관계하게 가사에 음악적인 운률을 더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상징어가 일정한 언어적인 표현수단으로 되는것과는 달리 률조어는 단지 가사의 운률을 조성함으로써 그 음악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할뿐이다.

우리 말에서 의성의태적의미로 쓰이는 상징어의 사용은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다.

정석가(鄭石歌)

삭삭기 셰몰애 별헤 나ᄂᆞᆫ
삭삭기 셰몰애 별헤 나ᄂᆞᆫ
구은 밤 닷되를 심고이다

고려가사인 《정석가》에 나오는 《삭삭기》는 세모래를 밟는 소리를 형상적으로 《바삭바삭하게》라는 의미로 표현하고있는 상징어로서 가사에서 생략된 《밟는》 행동에 대한 수식의 문법적기능을 수행하고있다.

상징어가 련용수식적기능을 수행하게 될 때 그것은 상징부사로 인정된다.

상징부사는 15~16세기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점차 다양해지고있다.

- 밥을 <u>쟉쟉</u> 먹어 ᄲᆞᆯ리 ᄉᆞᆸ세 들어서며(《소학언해》 3권 24장)
- <u>ᄎᆞᆫᄎᆞᆫ</u> 십고 ᄃᆞᄉᆞᆫ 술이나 더운 믈에나 ᄉᆞᆸ세고(《태산집요》 5장)
- 이 ᄆᆞᆯ이 쇠 거름 ᄀᆞᆺ티 <u>ᄌᆞ늑ᄌᆞ늑</u> ᄒᆞᄃᆡ 재니라 (《로걸대언해》 상권 11장)
- 東風이 <u>건듯</u> 부러 積雪을 헤텨내니(《송강가사》 관동별곡)
- ᄭᅩᆺ나모 가지마다 간ᄃᆡ <u>쪽쪽</u> 안니다가(《송강가사》 사미인곡)
- 麻衣ᄅᆞᆯ 니믜 ᄎᆞ고 葛巾을 기우 쓰고 <u>고브락비기락</u> 보ᄂᆞᆫ거시 고기로다(《송강가사》 성산별곡)
- 달 업슨 黃昏의 <u>허위허위</u> 다라가셔(《로계집》 루항사)
- 측 업슨 집신애 <u>설피설피</u> 물너오니(《로계집》 루항사)
- <u>너울너울</u> 츔을 츄니(《청구영언》 백구사)
- 어화 <u>둥덩실</u> 써셔 노자(《청구영언》 황계가)
- 녹음방초 우거져 금잔듸 <u>좌르륵</u> ' 인 고ᄃᆡ (《렬녀춘향수절가》)

《쟉쟉, ᄎᆞᆫᄎᆞᆫ, ᄌᆞ늑ᄌᆞ늑, 건듯, 쪽쪽, 고브락비기락, 허위허위, 설피설피, 너울너울, 둥덩실, 좌르륵》은 전형적인 상징어들이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서 상징어인 《ᄌᆞ늑ᄌᆞ늑》은 소의 걸음걸이를 형상적으로 묘사한것이며 《고브락비기락》은 고기가 물속에서 노는것을 형상

적으로 표현한것이고《허위허위》와《좌를륵》은 뒤에 오는《다라가서》와《'인》에 대한 수식의 기능을 수행하고있어 상황부사로 된다.

이것은 그후 더욱 늘어나게 되면서 문장에서 술어로도 쓰이게 되였다.

- 임을 못보니 가ᄉᆞᆷ이 답답, 어린 樣姿 고은 소ᄅᆡ 귀에 쟁쟁(《청구영언》 상사곡)
- 東風이 건듯 불 젹마다 이리로 졉두젹 저리로 졉두젹 (《청구영언》 백구사)
- 발 미ᄐᆡ 씌걸 바람 조차 펄펄(《렬녀춘향수절가》)
- …

  기암은 충층, 장송은 락락
  에이 굽으려져 광풍에 흥을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춘다
  층암절벽상에 폭포수는 콸콸
  수정렴 드리운듯
  이 골 물이 주룩주루룩, 저 골 물아 쏼쏼
  으르릉 콸콸 흐르는 물결이
  은옥 가티 흐터지니

  (유산가)

우의 실례들에서 보듯이《상사곡》에 나오는《가ᄉᆞᆷ이 답답》과《귀에 쟁쟁》에서《답답》과《쟁쟁》은《ᄒᆞ다》와 결합한《답답ᄒᆞ다》와《쟁쟁ᄒᆞ다》에서《ᄒᆞ다》를 생략한 상태에서 술어로 쓰인것이다. 그리고《백구사》에 나오는《졉두젹》역시《ᄒᆞ다》가 생략된 상태에서 술어로 쓰인것이며《유산가》의《주춤ᄒᆞ야》는 당당하게 술어의 기능을 수행하고있다.

이로부터 상징어는 부사의 한계를 벗어난것으로 하여 그것을 하나의 독자적인 품사로 보아야 한다면서《상징사》라는 품사까지 설정하자는 견해*가 나오게 되였다.

*《현대조선어》(2) 고등교육도서출판사, 1961. 106～113페지

그 견해에 의하면 상징어는 아무런 형태조성적접사나 토의 도움이 없이 쓰인다는 점에서 다른 부사와 같지만 극히 제한된 일부 경우에《옥신각신이 없다, 아이구 깜짝이야》와 같이《이, 이야》와 같은 토가 붙을수 있으며 그리고 문장에서 상황어로 될뿐아니라 술어로도 될수 있고 심지어 규정어로도 될수 있다는것이다.(례: 북소리가 둥둥, 으스럼 달밤, 쾅 소리)

끝으로 단어조성적특성을 들수 있는데 어음변화의 수법(례: 동동 — 둥둥, 졸졸 — 줄줄), 접사의 수법(례: 불그스럼, 얼떨떨), 말뿌리합성의 수법(례: 반짝반짝, 너울너울) 등 여러 수법에 의한 단어조성이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고있는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된다.

그리하여 상징어는《상징사》라는 독립적인 품사로 될수 있다는 견해까지 나오게 된것이다.

이것은 17세기이후에 상징어가 일층 풍부화되고 그 쓰임이 다양해지면서 용언수식기능의 한계를 넘어서 규정어나 술어로까지 쓰이게 됨으로써 그 문법적기능에서 일정한 변화가 생기게 되고 다양화된 결과이다.

이처럼 조선어발전의 력사적과정에 체언수식기능을 담당한 단어부류는 관형사라는 하나의 자립적인 품사로 설정되는데까지 이르게 되였으며 용언수식적기능을 수행

하는 상징어부류는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용언수식기능을 담당한 품사부류인 부사에 속하면서도 그 쓰임이 활발해짐에 따라 그 문법적기능이 일층 다양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였던것이다.

3. 결 론

조선어문법에서는 전통적으로 대상성을 나타내는 품사를 체언이라고 하고 서술성을 나타내는 품사를 용언이라고 한다. 이러한 전례에 비추어 수식성을 나타내는 품사를 수식언이라고 하는것은 자연스러운것이다. 그렇다면 감동사는 응당 독립언이라고 하여야 할것이다.

결국 조선어의 품사는 크게 체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의 4개 부류로 .나누어지게 된다고 할수 있다.

조선어품사가운데서 체언과 용언에 대한 수식기능을 수행하는 수식언은 문장에서 규정어나 상황어로 되는것이 기본기능으로 된다. 그러나 상징어와 같이 술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지난날 일부 학자들은 그것을 자립적인 품사로 보면서 《상징사》를 설정하기도 하였던것이다.

이처럼 조선어에서 수식기능을 수행하는 단어가 걸어온 력사적과정은 단순하지 않았다.

앞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부사에 비해서 관형사와 상징부사가 걸어온 길은 일정한 우여곡절이 있어 복잡하였다.

그렇기때문에 수식기능을 수행하는 일련의 단어들의 문법적특성과 그것이 걸어온 력사적과정에 대하여 옳바른 리해를 가지고 그에 대한 연구를 일층 심화시키는것은 앞으로 우리 말 문법구조의 우수성을 밝히고 더욱 빛내여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실마리어 관형사, 상징사, 상징부사, 수식기능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주체108(2019)년
어문학 제65권 제2호

한나라시기 문학비평의 발전과 특징

최 충 혁

1. 서 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비평이 없이는 문학예술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수 없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1권 324페지)

문학비평은 문학의 새로운 형상분야를 탐색하고 작품창작과정을 바로잡아주는 문학발전의 힘있는 추동력이다. 력사적으로 문학은 문학비평에 의하여 총화되고 평가되여왔다.

문학비평을 시대와 문학예술발전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문학비평의 본질과 특성을 잘 알고 문학평론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는것과 함께 선행시기 비평의 연구성과는 물론 다른 나라의 문학비평발전에 대하여서도 주체적립장에서 비판적으로 연구분석하여야 한다.

중국에서도 문학비평은 문학의 발전에서 큰 역할을 놀았으며 중국문학비평사연구는 중국문학사연구를 심화시키고 과학적으로 체계화하여 외국문학연구분야의 성과를 풍부히 하는데서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

지난 시기 우리 나라에서는 중국문학비평에 대한 연구가 거의나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그와 관련한 연구론문도 나온것이 별로 없다.

더우기 한나라시기 문학비평에 대해서는 중국국내에서도 일정하게 진행되였다고는 하나 그것을 당시의 문화발전과의 련관속에서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분석평가하지는 못하였다.

한나라시기(B.C.206－A.D.220)는 중국문화 및 중국문학비평발전의 중요한 시기로서 이 시기 비평은 진나라이전시기의 맹아적인 문학비평으로부터 위진남북조시기의 독자적인 문학비평에로 발전하던 과도적단계의 비평으로 된다.

이로부터 이 글에서는 중국문학비평사연구의 일환으로서 한나라시기 문학비평의 발전과정을 당시의 사회문화적배경과의 련관속에서 분석하며 비평내용과 형식에서의 특성을 해명하려고 한다.

2. 본 론

2.1. 한나라시기 문학비평발전의 사회문화적배경과 그 단계별특징

한나라문화의 발전과정은 황로(황제와 로자)의 도학으로부터 시작되여 모든 학파들을 경시하고 유교학술만을 존중하며 유교의 패권적지위가 보장되여 유교경전을 해석하는 경

학으로 발전하였다가 경학이 다시 참위학(일식, 월식, 지진 등으로 사람의 운명을 예측한다는 방법을 론하는 비과학적인 학문)과 합류되고 종당에는 쇠퇴하는 과정으로 특징지어진다.

이에 따라 이 시기 문학비평발전과정을 크게 세단계로 나누어볼수 있다.

첫 단계는 황로의 도학이 지배적이였던 한나라초기이다.

한나라초기(B.C.206－B.C.140) 통치자들은 진나라(B.C.221－B.C.206)말기 농민폭동과 진나라의 급속한 멸망에서 교훈을 찾고 근로대중의 반항의식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정치, 경제 등의 측면에서 비교적 완만한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처음에는 로자의《무위이치》(사람들을 자연적상태에 그대로 내버려두고 간섭하지 않는 정치)에 법가사상의 이러저러한 요소들을 결합시킨《황로지학》(황제와 로자의 학문이라는 뜻)을 내세웠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 와서 경제는 진나라시기에 비해 발전하였고 정치는 비교적 공고해졌다.

《사기》의 저자인 사마천(B.C.145－?)의 아버지 사마담은 한나라초기 황로의 도교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상가인 륙가의 사상을 론한《륙가의 요지를 론함》이라는 글에서 여러 학파들에는 모두 결함들이 있었으나 오직 도가만은 여러 학파들의 장점과 결함들을 모두 취하여 어떠한 편견과 페단도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한나라초기 정치적으로 황로의 도학이 우선시되면서 문학비평은 그 영향을 받아 주로 황로의 도학관념이 반영된것이 특징이다. 굴원(B.C.340경－B.C.278경)에 대한 가의(B.C.200－B.C.168)의 평가로부터 아름다움과 추한것에 대한 류안의 서술과 한무제시기에 산 사마천의 문예리론에도 모두 이러한 특징이 반영되였다.

둘째 단계는 경학이 지배한 서한 중엽 및 말기(B.C.140－A.D.8)이다.

한무제(B.C.156－B.C.87)가 즉위할 시기에 이르러 한나라의 경제는 일정하게 회복되고 국고에는 물질적부가 축적되였다. 황로의 도학은 근로대중의 반항의식을 무마시키는데 유리한 점이 있었으나 통치체제를 강화할수 없는 난점을 가지고있었다. 이것으로 하여《무위이치》의 사상과 정책은 더는 통치체계를 강화하려는 통치배들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게 되였다. 전제통치에 적합한《정통의식》을 수립하기 위하여 한무제때 사람들사이의 등급차별을 절대화하는 기만적인 통치를 설교하는 유교를 국교로 내세웠다.

동중서(B.C.179－B.C.104)가 한무제에게 내놓은《백가를 배척하고 유교만 숭상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사상적전환의 요구에 부합되는것으로 하여 한무제의 동의를 얻었다. 이때부터 유가의 다섯가지 경전은《５경》으로 지위가 높아지고 유가경전저작들을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학문인《경학》이 나오게 되였다. 유학자들은 대다수가 경전을 옳고그름을 가르는 유일한 기준으로, 학술사상의 근본원천으로 보았으며 유가경전에 주해를 달고 해석하고 그것을 발양시키는것을 가장 기본적인 학문탐구의 방법으로 보았다. 이때부터《유학》은 많은 경우《경학》의 형식으로 존재하고 발전하였다.

경학은 한나라시기 문학비평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여 한나라시기 문예창조의 기본준칙으로 되였다.

양웅(B.C.53－A.D.18)은《５경》에는 이미 모든 류형의 글이 다 포함되여있기때문에 사람들은 단지《５경》의 글을 모방하기만 하면 된다고까지 주장하였다.

한나라시기 경학연구는 주로 진나라이전시기의 경전들에 대한 정리와 경전의 의미에

대한 해석령역에서 진행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문학비평분야에서는 진나라이전시기부터 내려오는 문학비평리론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서술하는 활동이 벌어졌다.

실례로 한나라시기 《5경》의 하나인 《시경》에 대한 연구가 전례없이 활발히 벌어졌다.

문학비평이 주로 경전을 중시하고 고대《성인》들의 《훈시》를 존중하며 경전에 의거하여 전개된것은 이 시기 비평의 주되는 특징으로 되였다.

셋째 단계는 참위학이 지배적이였던 동한시기(25−220)이다.

경학의 대표자인 동중서가 음양오행설로 경서의 의미를 억지로 해석하면서부터 유교경전을 연구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학은 옛글의 문장이나 따고 자질구레하고 부차적인것을 모방하는 길로 나아갔으며 이것으로 하여 침체와 미신의 미궁속에 빠져들게 되였다. 동한시기에 이르러서는 국가의 정통학술인 금문경학이 당시 류행되던 참위미신과 결합되여 비과학적인 참위학으로 변이되였다.

한나라 장제시기에 이르러 여러 유생들을 《백호관》이라는 학당에 모여놓고 참위학으로 경전을 해석하게 하였는데 그것을 력사가이며 문학가인 반고(32−92)가 기록하고 정리한것이 《백호통의》라는 책이다. 이때부터 참위학으로 유교경전을 해석하는 학술기풍이 크게 류행되였다.

반고는 참위학의 옹호자이고 선전자였다. 반고는 유학사상으로 작가와 작품들을 평가하는데서 신학적이고 미신적인 색채를 부여하였다.

참위학은 황당한 미신사상으로 일관되여있는바 그 목적은 《천자》와 《성인》을 신성화하고 봉건적신분제도와 통치질서를 유지공고화하자는데 있었다.

이러한 신학화경향은 문학비평을 신비스럽고 황당한 방향으로 이끌어갔으며 그것은 문학비평의 발전에 커다란 부정적작용을 하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이 시기 적지 않은 작가들의 글은 진실감이 부족하고 부드럽고 유순하기만 하며 옛것을 모방하고 답습한것들도 많아 창조성이 크게 결여되여있었다.

참위미신의 류행은 필연적으로 반참위, 반미신사상을 산생시켰으며 그 과정에 참위를 반대하고 황당한것을 타매한 환담, 왕충 등과 같은 사상가들이 배출되였다. 환담은 《참위로 경전을 해석할수 없다.》(《후한서•환담전》)고 과격한 언사로 론박하였으며 왕충(27−97경)은 참위학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된 비평집 《론형》을 내놓았다. 왕충은 《론형》에서 《황당한것을 타매한다.》는 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참위미신사상을 강하게 비판하였으며 이로부터 일련의 문학비평사상을 내놓았다.

참위학과 결부된 동중서, 반고 등의 비과학적이며 보수적인 문학비평과 반참위, 반미신사상을 고취하는 왕충 등의 진보적인 문학비평이 대립되여 나타난것은 이 시기 문학비평발전의 특징이다.

2.2. 한나라시기 문학비평에서 제기된 비평적론의의 기본내용

한나라시기에 비교적 뚜렷한 체계와 내용을 갖춘 비평적론의를 전개한 비평가들로는 한나라초기의 가의와 서한 중엽시기의 사마천, 동한시기의 정현과 왕충을 들수 있다.

이들의 비평적론의가 집중적으로 반영되여있는 저서들로는 《사기》, 《론형》, 《시대서》 등을 들수 있다.

물론 진나라이전시기의 문학비평리론을 전제로 하여 발전한 한나라시기의 문학비평리론은 정론문과 경학, 력사산문, 철학 등이 혼잡된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례하면 가의, 사마천, 반고 등의 문학비평리론은 그들의 정론문과 력사산문의 한 부분이고 동중서, 왕충 등의 문학비평리론은 그들의 철학의 한 부분인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저서들에 산재되여있는 여러가지 비평적론의들을 몇가지로 체계화하여 언급할수 있다.

그것은 우선 문학의 특성을 새롭게 밝히면서 그것을 경학, 력사학을 비롯한 다른 사회적의식형태들과 구별하여 인식하려는 일련의 긍정적인 시도들이다.

한나라시기문학에는 시가외에도 사부, 산문이 있었는데 모두 순수한 문학양식으로서 학술리론저작들과 크게 구별되였다. 문학은 독립적으로 하나의 체계를 이루었는바 특히 부의 대량적인 창작은 문학의 예술적특징을 충분히 보여주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더욱 심화시켰다.

한나라시기 문학비평가들은 점차 인식적측면에서 문학을 경학과 력사학, 제자학파들의 학술저작과 구별해보기 시작하였다.

한나라시기에 이르러 《문학》과 《문장》 혹은 《문》이라는 개념이 서로 구별되여 쓰이였다. 이 시기 《문학》이란 일반적으로 학술저작을 가리키는것이였다. 실례로 《사기•효무본기》에는 《유교의 학술을 중시하고 어진이들을 불러들이였으니 조관, 왕장 등이 문학으로 공경의 벼슬에 올랐다.》고 기록되여있는바 이때의 《문학》은 경학을 가리켰다. 《사기•조착렬전》에는 《조착은 문학으로 태상장고로 되였다.》라고 썼는데 이때의 《문학》은 사학 즉 력사학을 가리켰다. 《문장》, 《문》은 문학작품을 가리켰다. 례를 들어 《론형•서해》에서는 《한나라시기 문장을 다룬 사람들로는 륙가, 사마천, 류자정, 양자운… 등이 있었다.》라고 하였다. 《한서》에서도 《사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문학을 《문장》이나 《문》으로 표현하였으며 《문학》이나 《학》은 학술을 가리키는 말로 썼다. 아버지의 사업을 계승하여 《칠략》을 써낸 류흠은 《시부략》을 《륙예략》, 《제자략》과 동등하게 서술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문학과 학술을 구분한것으로서 진나라이전시기 문학과 력사, 철학을 한데 뒤섞어 론한데 비해 일정한 발전으로 된다.

이러한 견해는 사회력사발전과정에서 문학이 자기의 기능과 특성을 뚜렷이 나타내는데 맞게 문학이 사회적의식형태중의 독자적인 분야임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시도였다.

또한 문학의 본도에 대한 유교적이며 신비주의적인 견해와 그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비평적론의들이 있었다.

서한중엽의 시학론문인 《시대서》에서는 시문학의 본도에 대하여 《시는 곧 뜻의 발현이다.》라고 하였다.

《시는 곧 뜻의 발현이다.》(시언지)라는 견해는 이 시기에 와서 비로소 제기된것이 아니며 이미 진나라 이전시기 고대문헌인 《좌전》에서부터 제기되였다.

이러한 견해는 장자, 순자 등에 의하여 이어져 내려왔는데 이들의 세계관으로 보아 현실생활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반영하는것을 문학의 본도로 여긴 긍정적인 견해라고 볼수 있다. 여기서 《뜻》이란 현실생활에서 느낀바 그대로라는 의미를 담고있다.

유교경전이 문예창조의 기초적원리로 된 서한 중엽 및 말기에는 문학의 본도에 대한

견해에서도 선행시기 유학자들의 견해를 그대로 답습하였다.

그런가 하면 참위학이 지배적이였던 동한말기에는 문학의 본도를 신비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대두하였다.

문학의 본도에 대한 종교적이며 신학적인 견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비평적 론의를 전개한 대표적인 비평가는 동한말기의 왕충이다.

당시 특권을 옹호하는 관념론적이며 종교미신적인 경학사상을 반대한 대표적인 유물론자이며 비평가인 왕충은 문학에 대한 종교적이며 신비주의적외곡을 타파하고 그에 대한 옳은 견해를 확립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었다.

한나라시기 비평적론의의 기본내용을 이루는것은 또한 문학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론의이다.

사마천은 분노가 글을 낳는다고 주장하는 《발분저서설》을 내놓았다. 그것은 공자(B.C.551－B.C.479)의 시로써 풍자할수 있다는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킨것으로 된다.

물론 이러한 견해는 불합리한 현실에 대하여 분노하는 도교의 특성에도 부합되는것으로서 유교와 도교를 결합시킨데서 나온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에 세계관적제한성이 있기는 하나 불합리한 현실을 비판하는 정신을 가진 시문학의 기능에 대하여 론한것은 일정하게 의의가 있다.

동한말기 경학가인 정현(127－200)은 시에는《긍정》과《부정》의 구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시대의《옳음과 그름》에 따라 시가의《긍정과 부정》이 결정된다고 하였다.《긍정》의 시는 의심할바없이《태평성세의 노래》이며《부정》의 시는《어지러운 세상의 노래》라고 하였다.

물론 정현의 견해는 문학을 지배계급의 통치리념을 실현하는데 복무하는 수단으로 본 제한성은 있으나 문학과 시대현실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시를 론하면서 시가 사회현상에 대한 비판정신을 가지고있으므로 부정을 비판하고 긍정을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본것은 긍정적인 의의를 가진다.

2.3. 한나라시기 문학비평의 특징

한나라시기 문학비평은 그 문예리론에서 취급한 내용은 물론 비평전개방식과 비평형태에서도 진나라이전시기 문학비평의 특징을 계승하면서도 진나라이전시기와 구별되는 일련의 특징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우선 비평전개방식에서 이전시기에 비하여 비교적 론리가 째이고 체계정연하며 원리적인 분석평가로 일관되여있는것이다.

한나라시기 문학비평리론의 독자성은 진나라이전시기 제자학파들을 크게 릉가하였다. 진나라이전시기의 문학비평리론에는 많은 경우 제자철학이나 력사전기와 혼합되여 그 론술에서 독자적인 의식이 매우 미약하였다. 그러나 한나라시기에는 그 리론서술에서 비교적 강한 독자성을 보이고있다.

한나라시기 문학비평의 존재형식은 대체적으로 진나라이전시기 문화와 경전의 여러 문체들속에 붙어서 존재하는것이였으나 문학리론 및 비평학설은 결코《시경》이나《론어》식의 몇마디 말이나《맹자》나《장자》식의 분산된 몇개의 단락이 아니였다. 그것은 상당히

긴 분량을 가지고 한개 혹은 몇개의 문학리론이나 비평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론의한 글들이였다.

이러한 문학비평에서는 진나라이전시기의 분산적이고 짤막하며 학술비평에 껴묻혀있던 느낌을 더는 찾아볼수 없으며 문학비평이 기타 학술활동들과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발전하였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대표적으로 사마천의 《사기》나 반고의 《한서•예대지》 등 문학비평리론을 비교적 집중적으로 서술한 글들을 들수 있다.

그 이후의 문학비평가들은 《한서》의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여 여러 문체의 작품들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부류별로 력사적발전과정에 대해 분석하군 하였다.

한나라시기 사서에서 리론의 서술은 진나라이전시기의 여기저기 널려져있는 토막토막의 론의와 비해볼 때 눈에 띄는 발전이 이룩되였으며 이 과정에 단독으로 문학비평리론을 서술한 글들과 도서들도 나왔다.

전문적인 시학론문 《시대서》와 왕충의 비평집 《론형》의 출현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의 유학자들이 《시경》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는 과정에 생겨난 《시대서》는 중국시학사상 처음으로 되는 전문론제를 단 론문이다. 이전시기의 시론들은 모두 경서, 사서, 제자서 등에 드문드문 끼여있는 한두마디의 짤막한 글들이였다면 《시대서》는 이러한 짤막한 글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시가의 본질과 창작수법, 사회적기능 등을 론술한것으로서 진나라이전시기 및 한나라시기 시학리론의 집대성으로 불리웠다.

이러한 사실들은 한나라시기 문학비평리론의 독자적인 측면과 체계정연한 특징을 보여주는것으로 된다.

한나라시기 문학비평의 특징은 또한 비교적 상대적독자성을 가지는 비평형태들이 다양하게 출현한것이다.

한나라시기 문학비평의 형태는 크게 문학론설과 작품평, 작가론평으로 이루어져있다.

한나라시기 문학론설과 작품평은 경서, 사서, 제자서, 문집 등에 널리 퍼져있다. 그러나 진나라이전시기와 비해볼 때 한나라문인들은 이미 문학과 그 리론비평에 보다 큰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돌렸다.

한부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론의한 반고의 《량도부서》, 악부에 대하여 론의한 사마천의 《한서•예문지》, 초사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평가한 왕일 등의 론설형식의 비평들은 비교적 체계화되여있고 그 론점도 명백하다.

시가를 전문론제로 하여 론의한 작품평들 례하면 시가집 《시경》을 비평한 《모시서》, 《모시대서》, 《소서》, 《모대서》, 《모전》, 《모시전전》과 정현의 《시보서》도 론점이 명백하고 체계정연하다.

작가론평은 주로 굴원이나 가의, 사마상여, 조착 등 이름난 작가들의 생애와 활동, 문학사적공적에 대한 평으로 주어졌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이채를 띠고 활발히 전개된 작가론평은 주로 굴원에 대한 평이였다. 그러나 굴원에 대한 평가는 같지 않았으며 시대를 달리하는 학파들의 서로 다른 주장과 견해에 따라 서로 엇갈리는 평가가 주어졌다.

력사학자인 사마천은《사기》에서 문학가에 대한 첫 전기인《굴원가생렬전》을 서술하였다. 여기에는 굴원의 작품인《어부》와《회사》, 가의의 작품인《조굴원부》와《부조부》가 수록되여있으며 이것은 사마천이 굴원과 가의를 사부작가로 인정하고 작가론적인 평을 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사마천은 문학가들을 위해 전기를 써냈으며 후세의 력사가들은 그것을 저저마다 모방하였다.

반고는《한서》에《사마상여전》,《양웅전》을 설정하였다.

왕충은《론형》의《예증》과《초기》두편의 글에서 비록 문학문제를 전문적으로 론하지는 않았지만 전자는 비교적 집중적으로《시경》의 과장수법에 대해 론하였고 후자는 재능을 가진 작가의 심리적자질과 그 평가표준에 대해 중점적으로 론하였다.

이처럼 한나라시기 문학비평은 진나라이전시기 문학비평의 기초우에서 비평리론의 체계성과 내용, 형식 등에서 일정한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그것은 위진남북조시기(220—581) 문학비평리론의 토대로 되였다.

한나라시기에 이르러 중국문학비평은 비로소 독자적인 발전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하였으며 자체의 비평형태와 서술방식을 갖추게 되였다.

3. 결 론

날로 발전하는 오늘의 현실은 외국어교육부문에서 외국어뿐아니라 해당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력사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한 실력가들을 더 많이 키워낼것을 요구하고있다.

중국문학사과목은 중국어를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의 필수과목으로서 중국문학비평에 대한 연구는 중국문학사과목의 내용을 풍부히 하고 중국문학의 발전과정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데서 의의가 있는 연구분야이다.

중국문학비평의 발전과정의 측면에서 볼 때 한나라시기는 문학비평리론이 이전의 맹아단계에서 벗어나 독자성을 띠고 발전하기 시작하여 여러가지 문체의 비평글들이 나온 시기로서 이 시기에 대한 문학비평발전에 대한 연구는 중국문학비평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론문에서는 이 시기 문학비평을 분석하는것을 연구과제로 정하고 이 시기 문학비평의 발전과 문화적배경사이의 관계 그리고 이 시기 문학비평에서 나타난 일련의 특징들을 밝히였다.

우리는 앞으로 중국문학비평분야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그 성과를 확대하며 그것을 교수실천에 구현함으로써 외국관계전문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더욱 높이며 높은 외국어실력과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한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문학비평, 한나라시기문학, 중국문학비평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주체108(2019)년
어문학 제65권 제2호

로어본문의 의미해석에 대한 일반적리해

전 철 남

1. 서 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언어는 인간생활의 힘있는 수단이다. 인간의 활동은 언어를 떠나서 이루어질수 없으며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의 호상관계는 언어의 역할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291페지)

본문은 언어교수의 종합적인 교수자료이다.

첫째로, 본문은 발음과 억양, 단어와 표현, 문법과 같은 언어지식을 습득하는 기본자료이다. 본문을 통하여 단어들과 문장, 단어들의 변화와 련계규칙, 문장의 구성원리를 습득하게 된다.

둘째로, 본문은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와 같은 언어행위기능과 숙련을 키워나가는 기본자료이다. 본문을 통달하는 과정에 듣고 말하며 묻고 대답하는 입말기능을 키울수 있으며 본문을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하거나 일정한 사상과 내용을 글로 표현하는 글말기능을 키우게 된다.

셋째로, 본문은 정보파악, 정보도출, 정보교환과 같은 정보처리능력을 키우는 기본자료이다. 본문을 통하여 본문에 담겨진 정보를 파악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를 도출하며 교제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교환하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 본문에 대한 연구는 주체84(1995)년에 출판된 《본문언어학》의 발표를 계기로 활발하게 진행되였다. 저서에서는 언어학의 한 분과인 본문언어학이 다른 언어분과들과 구별되는 특징들을 종합체계화하였다.

첫째로, 연구대상에서 본문언어학은 문장보다 더 큰 언어적단위들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둘째로, 연구목적에서 본문언어학은 언어적단위들의 교제적관계와 역할, 교제적조건과 효과 등과 관련된 언어적교제를 연구한다.

전통적인 언어분과들에서는 많은 경우 고립된 문장이나 단어, 단어결합을 놓고 연구하였으며 교제적환경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그것들의 결합관계와 구성을 연구하였다. 본문언어학은 이와는 달리 언어환경에서 언어의 교제적기능을 연구한다.

셋째로, 연구방법에서 본문언어학은 기능적인 문장구획법을 적용하여 문장과 문장과의 호상 련관관계를 연구하며 본문의 언어정보를 분석한다. 전통언어학에서는 문장성분분석방법으로 단어들을 결합하여 문장을 만드는 법칙을 제시하였고 20세기 60년대에 류포되였던 변형생성문법은 변형분석방법으로 문장의 생성법칙을 제시하였다.

넷째로, 본문언어학은 문장과 문장의 련결을 연구함에 있어서 문법적접속련결수단과 함께 론리의미적관계에 의한 련결, 문체론적수법에 의한 련결, 어휘적수법에 의한 련결 등 다양한 련결수단들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본문언어학》이 나온 이후 여러 어종들에서 본문에 대한 연구사업이 두가지 측면에서 활발히 진행되였다.

첫번째 측면은 본문의 구성단위로 되는 문장통일체에서 구성단위들의 련계수단과 련계수법에 대한 연구이다.

언어학석사론문《현대영어본문의 의미론리적련결관계에 대한 연구》,《현대로어문장론적복합체의 구조-의미적특성과 그의 습득방도에 대한 연구》,《현대로어본문에서 문장들사이의 련계에 대한 연구》,《영어본문에서 지시적단어에 의한 문장련결과 문체론적특성에 대한 연구》,《에스빠냐어단락에서 실현되는 문장들사이의 접속에 대한 연구》등에서는 본문에서 문장들사이의 련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연구하였다. 론문들에서는 련관관계의 류형을 구조문법적련관성과 론리의미적련관성으로 구분하고 그 련관성을 실현하는 어휘적수단, 문법적접속수단, 대응수단들을 체계화하였다.

두번째 측면은 외국어교수에서 리용되는 교재본문들에 대한 언어학적분석에 대한 연구이다.

언어학석사론문《영어본문의 언어실용적분석에 대한 연구》,《언어자료의 정보론적분석과 영어본문에서 그 응용에 대한 연구》,《영어본문의 문체론적분석에 대한 연구》,《영어본문의 구조와 어용적의미의 문체론적분석에 대한 연구》, 언어학박사론문《현대영어의미론연구》의 제4편《현대영어본문의미론》등에서 본문에 대한 어용론적분석, 문체론적분석, 정보론적분석, 의미론적분석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였다. 그리하여 외국어교수에서 취급되는 다양한 본문에 대한 다방면적인 분석방법이 체계화됨으로써 외국어본문교수의 리론적기초를 닦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본문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과학적으로 더욱더 구체화하여야 할것이다.

첫째로, 본문에 대한 연구를 린접과학들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구체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린접과학들의 급속한 발전과 언어학과의 련계가 심화됨에 따라 통신언어학, 심리언어학, 응용언어학, 언어실용론, 사회언어학, 문화언어학 등의 린접분과들이 출현하였으며 언어학은 여러 린접과학과의 종합적인 련계속에서 폭넓게 연구되고있다.

린접과학과의 련계속에서 언어연구가 진행되면 교제과정에 나타나는 언어의 다양한 총체적특징을 구체화할수 있다. 그 총체적특징은 일정한 통신적목적과 방식으로 조직되고 구성된 언어행위에서 본문이 나타내는 특성이다. 이로부터 본문을 이루는 언어적기초뿐아니라 본문의 통신적기초와 어용론적기초, 인식심리적기초를 해명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이것은 본문언어학이 통신언어학, 어용론,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과의 일정한 련계속에서 연구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둘째로, 본문의미의 기초에 놓이는 기본원리와 그에 기초한 수법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종전까지는 본문의 기본특성을 응집성과 구조의미적완결성으로 보면서 구조문법적련관관계와 론리의미적전일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론의하였으며 이와 같은 련관성이 주로 어휘적수단들과 문법적인 접속수단과 대응수단에 의하여 표현된다는것을 밝혔다. 이것은 본문이 주로는 언어적인 규범과 법칙에 따라 구성된다는 원리에 머무르는 결과를 가져왔다.

본문의 의미는 언어적원리뿐아니라 교제환경과 교제참가자들과의 통일속에서 구현되는 통신적, 어용론적, 인식적원리에 기초하고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원리들이 실현되는 수법들도 매우 다양하다. 통신적의도에 따라 본문전반에 관통된 어조를 비롯한 어음론적수단들과 어휘반복, 동의어와 반의어, 주제어들을 비롯한 어휘론적수단들, 접속수단들과 대응수단들을 비롯한 여러가지 문법적수단, 대칭구조나 평행구조, 어순을 비롯한 문장론적수단들과 함께 인과관계, 설명관계를 비롯한 여러가지 론리의미적련관을 표현하는 수단들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수단들은 통신적목적과 교제환경에 따라 여러가지 수법에 의하여 본문속에서 적용된다. 이로부터 본문의미에 작용하는 원리와 그에 기초한 수단들과 수법들을 통신적, 어용론적, 인식적견지에서 통일적으로 연구하는것은 본문언어학의 내용을 보다 풍부화할뿐아니라 본문을 다루고 구성하는 언어활동에서나 본문을 습득시키는 외국어교육실천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론문에서는 본문언어학에 대한 선행연구자료들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본문의 의미는 언어적원리뿐아니라 교제환경과 교제참가자들과의 련관속에서 구현되는 통신적, 어용론적, 인식적원리에 기초하고있으며 이와 같은 원리와 그 원리가 실현되는 수단들과 수법들을 통일적으로 연구하는것은 본문언어학의 내용을 보다 풍부화할뿐아니라 본문을 구성하고 활용하는 언어활동에서나 외국어본문을 습득시키는 교육실천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본문의 의미는 언어교제과정에 본문을 통해서 주고받게 되는 언어내적의미와 언어외적의미의 통일로 표현되며 응집성에 의하여 본문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의미가 방향성을 가지며 그 구성요소들사이에서 생성되는 언어외적의미를 가지는것이 본문의미의 기본특징이라는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론문에서는 로어본문의 의미해석에서 중요한 응집성의 개념과 특징, 응집성의 의미기능을 풍부한 자료들을 안받침하여 분석하였다.

2. 본 론

본문의미는 언어교제과정에 본문을 통해서 주고받게 되는 언어내적의미와 언어외적의미의 통일이다.

본문의미는 언어내적의미를 전제로 한다. 언어내적의미를 이루는 기본구성요소는 어휘의미와 문장의미이다. 그러나 이때의 어휘의미나 문장의미는 어휘론적질서나 문장론적질서속에서 얻게 되는 《사전적의미 (죽은 언어의미)》인것이 아니라 현실세계에 등장하는 현실화된 《산 언어의미》이다.

Над седой равниной моря ветер тучи собирает. Между тучами и морем гордо реет Буревестник, чёрной молнии подобный.

То крылом волны касаясь, то стрелой взмывая к тучам, он кричит, и тучи слышат радость в смелом крике птицы. В этом крике жажда бури.

Чайки стонут перед бурей, стонут, мечутся над морем и на дно его готовы

прятать ужас свой перед бурей.

(무연한 바다의 검푸른 수면우에서 바람이 검은 구름을 몰아오고있다. 검은 구름과 바다사이에서 검은 번개마냥 해연이 의기양양하여 날아예고있다.

해연은 날개로 파도를 스치기도 하고 쏜살같이 검은 구름속으로 솟구치기도 하며 소리치는데 검은구름은 이 새의 용감한 웨침소리에서 기쁨을 느낀다. 이 웨침에는 폭풍에 대한 갈망이 있다.

갈매기는 폭풍앞에 신음한다. 바다우에 떠서 신음하며 갈팡질팡하면서 폭풍앞에 자기의 공포를 바다밑으로 감추려 한다.)

우의 본문에서 표현된 어휘들이나 문장들은 현실화된 의미내용들을 보여주고있다.

본문에서는 혁명을 열렬히 갈망하면서 원쑤들의 온갖 탄압을 박차고 용맹하게 투쟁하는 혁명가를 상징하는 буревестник와 닥쳐오는 혁명앞에서 겁을 먹고 갈팡질팡하며 신음하는 속물적근성의 소시민들을 상징하는 чайка를 대조적으로 그렸다.

표현된 어휘들과 문장들이 주제어들인 буря와 море에 의하여 의미적으로 통일되여있으며 대조적인 의미관계가 кричать – стонать, жажда бури – ужас перед бурей, реет – мечутся와 같은 어휘들과 표현들의 대립과 대조관계를 통하여 실현되고있다.

본문의미는 이처럼 현실화된 어휘의미, 문장의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의미이다.

본문의미는 언어내적의미를 전제로 하면서 수많은 언어외적의미를 포함하고있다.

본문의 론리적기초는 추리이다. 언어내적의미내용을 기초로 하여 추리과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언어외적의미들이 생겨나게 된다.

Современная химия связана со многими отраслями знаний. Этот процесс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химии с другими науками идёт непрерывно и даёт замечательные результаты. Химия оказывает влияние не только на естественные науки. Она помогает и археологу, и историку, даже искусство не осталось в стороне от химии.

Одним словом, нет ни одной сферы челове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торая не имела бы дела с наукой о веществах и их превращениях.

(현대화학은 많은 지식분야와 련관되여있다. 화학과 다른 학문들과의 호상작용과정은 끊임없이 진행되며 훌륭한 결실을 가져다주고있다. 화학은 자연과학에만 영향을 미치는것이 아니다. 화학은 고고학에도, 력사학에도 도움을 주며 예술도 화학과 인연이 없는것이 아니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인간의 모든 활동은 물질과 그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과 련관되여있다.)

우의 본문에서 어휘의미나 문장의미의 호상관계에 대한 추리과정을 통하여《현대화학이 자연과학뿐아니라 사회과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와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있다.》,《화학과 련계되지 않은 인간의 활동분야란 없다.》등의 언어외적의미를 도출할수 있다.

본문의미는 일련의 특징을 가진다.

첫째로, 본문의미는 방향성을 가지며 응집성에 의하여 하나의 의미중심(주제의미)을 나타낸다. 이것은 본문의미가 가지는 가장 주요한 특징으로 된다.

응집성은 언어적형식, 의미내용, 언어적환경 등을 결합시키는 성질로서 그에 의해 이

루어지는것이 바로 의미중심(주제의미)이다.

본문의 의미는 응집성의 작용에 의하여 본문을 구성하는 개개의 언어적요소 즉 단어나 단어결합, 문장 등의 의미가 하나의 주제의미로 향해짐으로써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

Однажды летом к вечеру собралась гроза. Зашумели деревья. Стало темно. Дождь хлынул как из ведра. Сильный ветер почти до земли пригибал деревья.

(어느 여름날 저녁녘에 소낙구름이 몰려왔다. 나무들이 설레이기 시작했고 사위는 어두워졌다. 비는 억수로 내렸다. 강풍은 나무들을 거의 지면까지 휘여뜨렸다.)

실례에서 매개의 단어, 문장들은 모두 의미중심 гроза를 지향하여 선택되고 쓰이면서 응집성의 작용을 보여준다. 응집성은 본문을 이루는 언어적구성요소들을 지배하여 하나의 의미중심을 표현하는데로 지향시키였다. 만약 이 본문안에 гроза와 인연이 없는 문장이 삽입된다면 응집성은 파괴되고 이 글이 본문으로 될수 없게 만들며 방향성을 잃게 한다.

둘째로, 본문의미는 언어체계에 내재한 의미 즉 사전적의미가 아니라 본문을 통한 언어교제과정에 실현되는 실천적의미를 나타낸다.

셋째로, 본문의미에는 문장의미들사이에 이루어지는 련관적의미가 포함된다.

Ребёнку холодно! Так что накройте его одеялом, чтобы не простудился.

(아이가 추워해요! 그러니 아이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이불을 잘 덮어주세요.)

실례에서 첫째 문장의 의미가 둘째 문장의 의미의 원인으로 되였고 둘째 문장의 의미는 첫째 문장의 의미의 결과로 나타났다. 즉 두 문장사이의 련관적의미는《원인—결과의 의미》로 되였다. 이런 분석은 문장의미론에서는 다루지 않는것으로서 본문의미론에서 취급하는 내용의 하나이다.

넷째로, 본문의미는 내용에 있어서 진리성 또는 허위성을 지닌다.

어휘론적 및 문장론적으로 어휘의미나 문장의미가 진실인가 허위인가 하는것을 론하는것은 상대성을 띤다. 그것은 어휘의미나 문장의미는 언어행위과정에 여러가지 주객관적요인들의 작용하에 변화될수 있는 사정과 련관되여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본문속에서 종합적으로 작용하게 되지만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언어적형식, 객관세계의 통일로 이루어지는 본문의미는 명백한 자기의 의미내용을 가지며 진리와 허위를 명백히 판단할수 있게 하여준다.

— Ты пришёл раньше!

이 하나의 문장의미는 말그대로《평상시보다 시간을 앞당겨왔다.》는것을 표현하고있다.

이 문장 하나만으로는 의미가 허위인지, 진실인지를 론의할수 없다.

И сегодня он поздно вернулся домой с работы.

— Ты пришёл раньше! – сказала жена и глядела на него исподлобья.

(그는 오늘도 늦게 퇴근하여 집에 들어섰다. 그의 안해는《일찍 오셨군요.》하며 아니꼬운 눈으로 바라다보았다.)

이 본문 한 토막속에서《일찍 오셨군요.》는 문장그대로의 의미의 반대의미를 나타낸다. 다시말하여《일찍 오셨군요.》라는 표현은 객관적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성을 띠고있다.

다섯째로, 본문의미는 언어적의미이며 여기에는 실질적의미, 색채적의미, 문법적의미, 어용적의미 등이 포함된다.

언어적의미는 본문속에서 현실적의미로 전환된다. 다시말하여 정적인 《사전적의미》가 아니라 동적인 《현실적의미, 산 의미》로 나타난다.

본문의미해석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응집성은 본문속에서 자기 고유의 의미기능을 수행한다.

본문의 응집성이 가지는 의미기능은 첫째로 본문을 구성하는 언어적표현들의 련관관계를 이루어주는것이다.

본문을 구성하는 언어적표현들은 해당 언어의 어휘—문법적구성체계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서술되여있다.

이러한 언어적표현들의 의미적련관관계를 지어주는것이 바로 본문의 응집성이다. 응집성의 특징은 본문의 하나하나의 단어로부터 단어결합, 개별적인 문장으로부터 문장들의 질서있는 묶음에 이르기까지 서로 의미적인 련관성을 가지고 하나의 교제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는데 있다.

Настала осень прекрасная, золотая осень. Тихий ветерок шевелит листьями деревьев. Ни единого облачка на синем небе. Солнце заливает земли своими лучами, щедро дарит своё тепло. Птицы, уставшие от долгого перелёта, в сумерках спускаются на землю. Тяжелели колосья на полях.

(멋진 황금가을이 왔다. 바람결에 나무잎새들이 흔들린다. 푸른 하늘에는 구름한점 없다. 태양은 빛으로 온 대지를 감싸고 아낌없이 따스함을 선사한다. 오래동안 날고날다 지친 새들이 황혼이 깃들자 땅에 내려앉기 시작한다. 벌판의 이삭들이 무르익어갔다.)

실례본문의 주제는 가을의 도래로서 첫 문장에 주어져있다. 다음문장들은 본문의 주제를 실현해주는 구체적인 세부묘사로서 동등한 자격으로 서로 종속됨이 없이 가을의 도래라는 본문의 기본주제와 의미적으로 련계되면서 의미적통일을 이루고있다.

본문의 응집성이 가지는 의미기능은 둘째로 사상적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언어적표현의 선택과 제한, 언어적환경이 련관을 이루는것이다.

본문의 응집성의 작용이 미치는 사상적내용, 언어적표현, 언어적환경 등 세 요소가운데서 사상적내용은 주도적이며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하며 나머지 두 요소 즉 언어적표현과 언어적환경은 그에 복종한다.

사상적내용이 변하는데 따라 언어적표현이 달라지며 그에 맞는 언어적환경이 이루어진다. 다시말하여 본문이 가지는 중요한 속성인 응집성은 본문의 사상적내용을 중심으로 언어적표현과 언어적환경이 거기에 응집되여 이루어지는 속성인것이다.

Самое дорогое у человека – это жизнь. Она даётся ему один раз, и прожить её так, чтобы не было мучительно больно за бесцельно прожитые годы, чтобы не жёг позор за подленькое и мелочное прошлое и чтобы, умирая, смог сказать: вся жизнь и все силы были отданы самому прекрасному в мире – борьбе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человечества. И надо спешить жить. Ведь нелепая болезнь или какая-либо трагическая случайность могут прервать её.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것은 생이다. 생은 사람에게 있어서 한번밖에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목적없이 산 지난날때문에 뼈저린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비굴하고 너절한 과거때문에 치욕을 맛보지 않도록 그리고 죽으면서도 일생의 모든 힘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 인류해방을 위한 투쟁에 바쳤다고 긍지높이 말할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 그리고 달음질쳐 살아야 한다. 별치 않은 병이나 혹은 어떤 비극적인 우연이 생을 끊어버릴수도 있지 않는가!)

실례로 든 본문에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치고 거기에서 최대의 행복을 느끼며 바로 거기에서 삶의 최고목적을 찾아야 한다는 사상이 반영되여있으며 그 의미내용에 따라 언어적표현과 언어적환경이 서로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밀접한 련관관계를 이루고있다.

작은 언어적표현들이 모여서 더 큰 언어적표현들의 모임을 이루고 그것이 다시 또 다른 언어적표현들의 모임과 결합하여 보다 큰 언어적표현들의 모임을 이루어나가면서 하나의 옹근본문을 이루며 거기에 하나의 상대적으로 완결된 의미내용을 담는다.

언어적환경의 한개 요소인 대화자들의 직위, 지식수준, 습관 등에 따르는 언어적표현의 차이는 본문의 응집성의 특성을 보다 선명히 해주고있다.

(대화자들은 서로 나이가 동일한 중학교학생)

— Эй, ты куда? (얘, 너 어디 가니?)

— Домой. Чего? (집에. 왜 그러니?)

— Постой-ка! (좀 서라!)

— Чего? (뭐야?)

— Чего, чего ... сейчас! (잠간이면 되는데 뭘 그래!)

— Говори быстренько! Что надо? (빨리빨리 말하라. 뭐야?)

(대화자들은 선생님과 학생)

— Коля, куда ты сейчас идёшь? (꼴랴동무, 지금 어디로 갑니까?)

— Иван Петрович, домой иду. Что с вами? (선생님, 집으로 갑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 Можешь, одну минутку. (잠간이면 됩니다.)

— Да, пожалуйста. (무슨 일입니까?)

— Сейчас, сейчас ... (잠간이면 됩니다.)

— Ну, пожалуйста. Чем вам помочь? (예, 어서 말씀하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우의 본문들에서 의미내용은 기본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전달되는 의미내용의 언어적표현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것은 언어적환경의 차이로 하여 이루어지는것이다.

결국 우의 본문들은 본문의 의미내용과 언어적환경, 언어적표현사이의 호상의존성, 응집성을 보여주고있다.

각이한 본문에서 응집의 특성이 어떻게 작용하며 하나의 완전한 본문의미를 구성하도록 하는데 어떻게 이바지하는가를 연구하는것은 본문의미를 리해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문의 응집성은 본문의 류형에 따라서 그 작용방향이 각이하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는 사상적내용과 언어적환경, 언어적환경과 언어적형식 그리고 매개 요소들자체의 응집 등이 본문의 류형에 따라 큰 차이를 가진다.

본 론문에서는 시본문, 소설본문, 단신보도본문을 기본대상으로 하여 응집성의 작용을 구체적으로 보려고 한다.

— 시본문에서 응집성의 작용

시본문에서 응집성은 시본문의미의 형성에서 어음론적, 어휘론적, 문법론적 등 각이한 측면으로 작용한다.

응집성의 어음론적작용은 시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된다. 시본문은 어음론적단위인 억양이나 소리마루, 소리마디, 소리토막, 소리매듭 등이 본문의 응집에 따라 본문의 의미내용을 해명하는데로 지향되면서 이루어진다. 본문의미의 형성에서 어음론적작용은 여러 류형의 본문에서 다같이 나타나지만 특히 시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난다.

О! Слушали ли вы	오! 당신은 들었는가
Глухое рокотанье	밋밋한 절벽사이에서 울리는
Меж пропастей тупых?	우르릉소리를
И океан угроз	그리고 맥빠져 애처로운
Бессильно жалобных?	대양의 위협을
И грозы мирозданья?	그리고 우주의 뢰성을
Аккорды резкие	설음이 가셔지지 않는 눈물의
Невыплаканных слез?	예리한 화음소리를 듣고있는가

우의 시본문에서는 어음론적상징법과 자모반복법이 리용되였다. 즉 로어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강하고 결단성있는것으로 표상되는 유향자음 [р](연자음 및 경자음)가 반복되는 단어들과 유순하고 부드러운것으로 안겨오는 유향자음 [л, м, н]이 반복되는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집중배렬하였다.

말소리는 뜻을 가지는 가장 작은 단위인 형태부와 단어의 물질적외피를 이루며 그것들의 문체론적뜻빛갈을 나타내는데 일정한 기여를 한다. 즉 말소리는 일정한 소리느낌을 가지면서 단어의 어휘적의미가 아닌 감정정서적평가를 나타낸다.

매개 말소리는 그것의 생리음향학적성질로부터 출발하여 사람들의 일정한 감정정서를 불러일으킬수 있다. 이것이 바로 소리느낌이며 그 소리느낌이 전사회적성격을 띠게 되면 그것은 해당 언어의 고유한 법칙으로서 력사적으로 계승되고 발전한다.

실례로 조선어의 말소리 《ㅏ》는 밝은 느낌을, 《ㅜ》는 어두운 느낌을 준다고 평가한다. 모음 《ㅏ》가 《ㅜ》보다 밝은 느낌을 준다고 하는것은 모음자체가 밝은것이기때문이 아니라 소리가 주는 느낌이 밝은것을 련상시키기때문이다.

로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의 의식속에서 말소리 《А》는 넓다는것, 자유, 붉은색 등과 련상되며 말소리 《У》는 슬픔, 불안, 비좁은것, 어두운 색과 련상된다.

Пусть меня, отдай меня, Воронеж:	워로네쥬여, 나를 놓아달라, 제발 놓아달라:
Уронишь ты меня или проворонишь,	나를 떨궈버리던가 아니면 놓아달라
Ты выронишь меня или вернешь,	나를 놓쳐버리던가 아니면 돌아가게 해달라
Воронеж – блажь, Воронеж – ворон, нож.	이 어리석고 갈구리, 칼날같은 워로네쥬야

시에서 Воронеж는 уронишь, проворонишь, выронишь, вернешь, блажь, ворон, нож 등과 같은 단어들에서 자음반복에 의해 되풀이되면서 소리형상적, 어음의미론적단어의 지위를 얻고있다.

자모전도법은 단어속에 있는 자모를 바꾸어놓아 새 단어를 조성함으로써 형상적, 표현적효과를 얻는 방법이며 두운법은 머리글자를 같은 자음으로 반복하는 수법이다.

실례에서는 [в, р, н, ш]와 같은 자음들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형상적효과를 얻고있다.

또한 ров – вор와 같은 문자어음론적형상도 얻고있다. 자음 [в, р, н, ш]가 들어간 단어들을 자모전도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죽음을 눈앞에 둔 공포, 무서움》이라는 총적인 본문의 의미를 보다 형상적으로 실현해주고있다.

이밖에도 말소리측면은 시본문의 운률체계, 선률구조(혹은 억양구조)창조에서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분석해놓고볼 때 응집성은 시본문의 어음론적측면에 강한 작용을 하여 본문을 구성하는 언어적표현의 강약관계, 높낮이관계를 조절통제한다는것을 알수 있다. 다시말하여 본문의 의미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의미중심이 이동할 때마다 어음론적측면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어음론적측면에서 시본문의 응집성의 작용은 하나의 법칙적현상으로서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있다.

응집성의 어휘적작용은 주로 어휘를 선택하여 적중한 위치에서 어휘를 중복한다든가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어휘를 서로 대치시켜놓는다든가 지시적인 어휘를 서로 가깝게 배치하지 않고 본문의 서로 다른 부분에 놓고 호상 련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문의 의미내용을 표현하는데 이바지한다.

시본문의 응집성은 우선 어휘의 반복사용을 통해서 의미내용을 부각시켜 강조해주고 하나로 통일시켜준다. 그 어떤 본문이든지 어휘의 반복사용이 불가피한것은 매 본문마다에 의미중심이 있기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시본문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ЗИМНИЙ ВЕЧЕР	**겨울의 저녁**
Буря мглою небо кроет,	눈가루 휘말아올리며
Вихри снежные крутя;	모진 바람 눈안개로 하늘 가린다
То как зверь, она завоет,	짐승처럼 울부짖고
То заплачет, как дитя,	아이처럼 울음 울고
То по кровле обветшалой	고삭은 집이영에 날아와
Вдруг соломой зашумит,	갑자기 밀짚을 뒤설레놓고
То, как путник запоздалый,	길 저문 나그네같이
К нам в окошко застучит.	내 집 영창을 두드린다
Наша ветхая лачужка	우리네 낡은 오막살이
И печальна и темна.	어두워라, 구슬퍼라
Что же ты, моя старушка,	여보시오, 할멈, 어인 일로
Приумолкла у окна?	창가에 앉아 말이 없는가?
Или бури завываньем	혹시나 눈보라 울부짖는 소리
Ты, мой друг, утомлена,	할멈이여, 그 소리에 지치였나

Или дремлешь под жужжаньем	혹시나 물레도는 소리
Своего веретена?	당신의 졸음을 부르는가?

Выпьем, добрая подружка	마시자, 가난한 이 내 청춘의
Бедной юности моей,	정답고 살뜰한 벗아
Выпьем с горя; где же кружка?	화술을 마시자, 잔은 어디?
Сердцу будет веселей.	마음은 한결 흥겨워질라
Спой мне песню, как синица	노래를 나에게 불러다오
Тихо за морем жила;	바다건너 평화롭던 비비새노래
Спой мне песню, как девица	노래를 나에게 불러다오
За водой поутру шла.	아침물 길러가던 처녀의 노래

Буря мглою небо кроет,	눈가루 휘말아올리며
Вихри снежные крутя;	모진 바람 눈안개로 하늘 가린다
То, как зверь, она завоет,	짐승처럼 울부짖고
То заплачет, как дитя.	아이처럼 울음 우노나
Выпьем, добрая подружка	마시자, 가난한 이 내 청춘의
Бедной юности моей	정답고 살뜰한 벗아
Выпьем с горя; где же кружка?	화술을 마시자, 잔은 어디?
Сердцу будет веселей.	마음은 한결 흥겨워질라

실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많은 어휘들이 시의 주제에 맞게 반복사용되였다.

반복된 단어들과 단어결합들은 본문의 의미내용의 표현에서 주동적인 작용을 하며 신통히도 반복된 단어들의 결합으로 본문의 의미중심이 형성되는것을 알수 있다. 즉 본문의 응집성은 본문속에서 어휘의 반복사용을 추동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있다고 할수 있다.

시본문의 응집성은 또한 서로 의미상대립을 이루는 단어들의 련결을 통해서 의미내용을 부각시켜준다.

В холоде голых прозрачных аллей	잎이 다 진 환한 가로수길 추위속에서
Пробует цокать, трещит соловей.	꾀꼴새가 노래하며 쫓고있고
В доме, уж тёмном, в раскрытом окне	어두운 집안의 활짝 열린 창문에서는
Девочка косы плетёт при луне.	달빛속에서 처녀애가 머리태를 땋고있네

본문의 응집성은 본문을 구성하고있는 부분본문 또는 구체적인 개별적인 문장들이 의미상 호상 련관되여 총체적인 본문을 이루게 하는 중요한 특징이다.

ИЮЛЕ	**7월에**
В полях созрел ячмень	보리가 무르익는 벌
Он радует меня!	나는 기쁘노라!
Брожу я целый день	온 종일 나는 거니노라

По волнам ячменя.	보리밭의 물결을 따라
Смеётся мне июль,	7월이 나를 조롱하네
Кивают мне поля.	들에서는 곡식들이 고개를 숙이고
И облако - как тюль,	하늘엔 비단같이 구름이 드리웠네
И солнце жждёт, паля.	태양은 모든것을 지지고 태운다
Блуждаю целый день	온 종일 헤매노라
В сухих волнах земли,	건조한 대지의 물결속에
Пока ночная тень	곡식들에 밤의 어둠이
Не омрачит стебли.	드리울 때까지
Спущусь к реке, взгляну	강변으로 내려가 바라보노라
На илистый атлас;	감탕에 그려진 지도를
Взгрустнётся ли, — а ну,	문득 서글퍼지는 마음
А ну печаль от глаз.	눈가에 어리네
Теперь ли тосковать,	보리가 무르익는 지금
Когда поспел ячмень?	슬퍼할 때인가?
Я всех расцеловать	오늘 나는 모두를
Хотел бы в этот день!	입맞추어주고싶노라

우의 시본문에서는《радует меня》(나는 기쁘다),《смеётся мне июль》(7월이 나에게 웃음지워보이다),《А ну печаль от глаз》(근심은 눈에서부터 나타난다),《Теперь ли тосковать,》(그래 지금 아수해할 때인가),《Я всех расцеловать хотел бы в этот день》(나는 이날 모두를 입맞추어주고싶은 심정이였다) 등의 표현을 통해서 7월의 보리밭과 내려쪼이는 태양, 메마른 대지, 그와 대조를 이루는 밤을 통하여 기쁨에 넘친 시인의 감정을 보여주고있다. 이 모든 수법과 언어표현들은 다 시본문의 응집성이 의미내용의 표현과 전달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도록 한다.

— 소설본문에서 응집성의 작용

소설본문은 문학작품본문가운데서도 가장 전형적인 형태이다. 그것은 소설본문의 언어적표현이 다른 류형의 본문들에 비하여 매우 풍부하기때문이다.

소설본문에서는 설명, 대화, 묘사, 주정토로 등과 같은 언어표현수법들을 널리 리용하고있으며 사건의 흐름을 타고 본문이 전개되는것만큼 부분본문들이 복잡하게 뒤엉켜 본문의 구조를 명백히 구분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진다. 때문에 소설본문의 의미내용과 언어적형식, 언어적환경의 관계로부터 로출되는 특징 즉 응집의 특징도 소설본문에서는 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작용한다.

소설본문의 응집성은 우선 본문의 구성과 그 의미적인 기본단위인 문장군, 문단, 단편의 구분에 작용한다.

본문의 응집성은 본문의 의미내용, 언어적형식, 언어적환경 등이 서로서로 련관되게 하는 성질로 하여 본문을 구성하는 언어적단위들이 일정한 덩어리로 묶이여지게 하며 본문의 의미적인 기본단위인 문장군이나 문단, 단편의 구분에 적극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

문장군은 본문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문장덩어리이다. 즉 두개 또는 그이상의 문장들이 일정한 문장관계와 문장접속수단으로 구성되는 구조상에서나 의미상에서 긴밀히 련관된 본문의 단위이다.

문장군은 문장의 집합체로서 글에서나 대화에서 언제나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며 문장보다 한급 높고 문단보다 낮은 단위로 이루어진다.

문단은 두가지이상의 문장관계로 구성되여 의미나 구조상에서 긴밀히 련관된 본문의 단위이다.

С юга двое суток дул тёплый ветер. Сошёл последний снег на полях. Отгремели пенистые вешние ручьи. Стала над широкой донской степью весна.

(남쪽에서 이틀째 따스한 바람이 불어왔다. 벌판에는 마지막 눈이 내렸다. 봄을 맞은 시내물이 거품을 일며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흘러갔다. 돈지역의 넓은 초원에 봄이 깃들었다.)

실례에서 매 문장들은《봄》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면서 의미적으로 련결되여있을뿐아니라 구조적으로 반복되면서 본문을 하나의 구조적전일체로 이루는데 이바지한다. 이렇게 문단을 구성하는 문장들사이의 관계는 적어도 두세개의 의미적인 련관으로 존재한다.

문장군과 문단의 차이는 첫째로, 문장군은 대체로 하나의 문장관계로 이루어지지만 문단은 일반적으로 두개 또는 그이상의 문장관계로 이루어진다는것이며 둘째로, 문단은 하나의 소주제의미를 반드시 가지고있지만 문장군은 가질수도 있고 가지지 못할수도 있다는것이며 셋째로, 문단은 일반적으로《발단－전개－결말》등으로 구성되지만 문장군은 그렇지 못하다는것이다.

단편은 부분본문으로서 문단보다는 크며 장, 절보다는 작은 본문의 단위이다. 단편도 큰 범위에서《발단－전개－결말》로 구성된다.

문단은 일반적으로《발단－전개－결말》등 세개의 요소들가운데서 한 요소가 빠지여도 구성될수 있지만 단편은 세개의 요소가 모두 구비되여야 한다.

본문의 응집성은 본문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문장들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군을 이루고 다시 문장군들이 모여 하나의 문단으로, 문단들이 다시 모여 단편으로, 단편들이 모여 하나의 전일적인 옹근본문을 이루게 하는데 항상 작용한다. 다시말하여 언어적형식, 언어적환경, 언어적의미내용이 하나로 융합되게 하여준다.

소설본문의 응집성은 또한 의미내용의 융합을 보장하는데 작용한다.

언어적의미는 언어적형식에 의하여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언어적형식에는 말소리, 단어, 단어결합, 문장 등 여러가지 언어적단위들이 있으며 이러한 언어적단위들에 의하여 본문의 의미내용이 형성된다.

소설본문의 응집성은 또한 본문의 발전부분, 전개부분, 결말부분 등이 의미중심을 향해서 흐르게 하는 작용을 한다.

본문에서는 본문을 구성하는 각이한 언어적요소들이 의미중심을 축으로 움직이게 되

는데 이런 작용을 하게 하는것이 바로 응집성이다.

소설본문에서 응집성의 작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례를 통하여 보기로 한다.

Необычная операция

Это произошло в 1961 году в Антарктике. На одной станции работали 12 учёных, среди которых был молодой врач Леонид Рогозов. Все сотрудники станции вели работу по своей специальности, а врачу приходилось выполнять обязанность хозяйственника, потому что его товарищи никогда не болели.(1)

Но наступил день, когда помощь врача стала необходимой. Заболел сам Леонид Рогозов. Он почувствовал сильные боли в правой части живота и понял, что у него аппендицит.(2)

Рогозов принял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лекарства, но они не помогли ему. Нужна была срочная операция. До ближайшего пункта, где находился врач, можно было добраться только на самолёте, но была страшная пурга и самолёты не летели.(3)

Состояние больного продолжало ухудшаться и врач Рогозов принял решение: сам немедленно оперировать себя.

Рогозов оперировал, а одиннадцать человек, затаив дыхание, следили за ходом операции.(4)

Эта операция длилась 105 минут. И Рогозов блестяще провёл эту операцию.(5)

(**특이한 수술**

이 일은 1961년에 남극지방에서 있은 일이다. 어느 한 탐사대에서 12명의 학자들이 일하였는데 그들속에는 젊은 의사 레오니드 로고조브가 있었다. 탐사대의 모든 일군들이 자기 전공에 해당한 일을 하였지만 의사인 그는 동무들이 한번도 앓지 않아 경리일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였다.(1)

그런데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날이 왔다. 레오니드 로고조브자신이 앓았던것이다. 그는 배 오른쪽부위에서 심한 아픔을 느꼈는데 이것이 충수염이라는것을 알아차렸다.(2)

로고조브는 필요한 약들을 다 썼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 구급수술을 하여야 했다. 의사가 있는 제일 가까운 위생소까지도 비행기로만 갈수 있었는데 눈보라가 심해서 비행기들이 뜨지 못했다.(3)

병상태가 더욱더 심해져 로고조브는 더 미룰것없이 직접 자기를 수술하기로 결심하였다. 로고조브는 수술을 진행하였고 11명의 사람이 숨을 죽이고 수술과정을 지켜보았다.(4)

수술은 105분간 진행되였다. 로고조브의사는 이 수술을 훌륭하게 해냈다.(5))

본문의 첫 부분(1)은 사건이 진행된 시공간적정황과 사건참가자들에 대한 소개가 주어진 부분으로서 사건의 배경을 서술한 서론이라고 할수 있다. 본문의 두번째 부분(2)은 의사자신이 충수염에 걸린 사건의 발단을 서술한 부분이며 세번째 부분(3)은 병이 계속 악화되여가나 수술을 할수 없는 극적정황이 조성된 사건의 진전과정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본문의 네번째 부분(4)은 사건의 절정을 보여주는 부분이고 마지막 부분(5)은 사건의 해결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부분본문의 모든 단어나 문장은 두말할것도 없고 문장군과 단편은 다 전체 본문의 의미내용의 해명에 복종되고있다. 이것은 본문의 응집성의 특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현상

이며 응집성의 이 특성이야말로 본문을 하나의 의미내용으로 통일시키고 언어적형식과 본문의 단위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특징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응집성은 소설본문에서 본문의 시작을 알리는 앞머리부분본문의 의미내용과 언어적 형식면에서 일정한 틀거리를 갖추게 하여준다.

Пришла весна. Зазеленела молодая трава. Научились почки липкой спиртовой берёзы. На обсыпанной золотым цветом лозине загудела пчела. Залились невидимые жаворонки над бархатом зелени. Высоко полетели с весенним гоготанием журавли. Заревела на выгонах скотина.

Заиграли кривоногие козлята вокруг матерей. Затрещали на пруду весёлые голоса деревенских баб с холстами. Пришла настоящая весна.

(봄이 왔다. 파릇파릇 풀들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찐득찐득한 진이 흐르는 봇나무에 싹이 텄다. 포도덩굴우에서는 벌들이 윙윙거리고 비로도처럼 펼쳐진 풀밭우에서는 종달새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창공높이로 두루미떼가 봄을 맞아 큰소리를 내며 날아간다. 집짐승우리에서는 울부짖음이 들려온다.

다리굽은 새끼양들이 어미주위에서 맴돌아치고 늪가에서는 빨래하는 마을아낙네들의 즐거운 말소리가 들려온다. 진짜 봄이 왔다.)

소설본문의 시작에는 환경묘사가 대부분의 자리를 차지한다.

여기에서 다음의 결론을 도출해낼수 있다.

그것은 첫째로, 본문의 응집성은 글의 형태와 그 분량에 따라 달리 작용한다는것이며 둘째로, 본문창조자에 따라 그 작용의 특징이 달라진다는것이며 셋째로, 본문의 전과정에 항상 작용한다는것이다.

— 단신보도본문에서 응집성의 작용

출판보도물에는 정론, 사설, 론설로부터 시작하여 단상이나 수필과 같은 문학작품본문과 짤막한 내용의 단신보도본문도 있다.

단신보도본문에서 응집성은 본문정보내용의 명료성과 간결성을 담보해주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정보적내용을 담고있는것은 본문이며 그것은 정보의 기본단위로 된다. 언어적으로 아무리 규범에 맞고 일정한 사상을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완결된 정보적내용을 전달하지 못하고 응집성의 특성을 지니지 못한다면 자료적가치를 전혀 가질수 없다.

단신보도본문은 사실정보, 확인정보, 배경정보, 평가정보, 간접정보, 지시정보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확인정보는《누가, 무엇》에, 배경정보는《언제, 어디서, 어떤 조건에서》등에 해당한 정보이다. 그리고 평가정보, 간접정보, 지시정보는 부차적인 정보이며 이것들은 사실정보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단신보도본문은 바로 이렇게 《누가(무엇이)》, 《누구를(무엇을)》, 《무엇이다(어찌하다)》,《언제》,《어디서》,《어떤 조건에서》등의 간결하고 명료한 형식을 갖추고있다.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하나의 완결된 본문의미내용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응집된다.

이것을 통하여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수 있다.

첫째로, 단신보도본문이 극히 간결하다는것

둘째로, 단신보도본문의 틀거리가 일정하다는것

셋째로, 단신보도본문이 일반적으로 가장 작은 본문류형으로 될수 있다는것

Объявление

1 октября в 16 часов в библиотеке университета состоится конференция на тему《Наука – дело молодых》.

Просим ознакомиться с программой конференции 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её работе.

(**알림**

10월 1일 16시 종합대학 도서관에서《과학은 청년들의 의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토론회진행계획을 알아보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응집성은 이런 작은 규모의 본문도 의미내용의 구성요소들을 다 갖추고 독자들에게 완결된 의미내용을 주는 방향으로 지향시킨다는것을 알수 있다.

3. 결 론

이상에서 우리는 외국어교육의 종합적인 교수자료인 본문을 본문의미론의 견지에서 분석하였다.

본문의미론은 본문과 관련된 여러 학문들에서 이룩된 성과에 토대하고있을뿐아니라 본문을 연구하는 학문들의 리론적기초를 마련해주고있다.

본문의미론은 언어사용현상으로서의 본문을 전면적으로 연구하는 종합적인 학문인것으로 하여 그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본문의미론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외국어본문교육내용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며 그에 맞는 교수방법들을 적극 탐구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로어본문의미, 응집성, 언어내적의미, 언어외적의미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주체108(2019)년
어문학 제65권 제2호

영어행위에서 정보전달의 통속화실현

교수 박사 서중남

1. 서 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외국어는 리해하는데 그칠것이 아니라 써먹을수 있도록 학습하여야 합니다.》

(《**김정일**전집》 제2권 197페지)

최근시기 언어행위에서 정보전달의 통속화수준을 높이는것은 언어사용자들과 학습자들속에서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그것은 언어사용자들과 학습자들이 제한된 언어습득조건과 과정의 요구에 맞게 정보전달에 대한 원리적인식에 기초하여 언어행위에서 보다 과학적인 자료를 효과적으로 습득하고 편리하게 활용하기 위한데로 나가고있기때문이다.

언어행위에서 정보전달을 통속화하는 문제는 현재까지 국내외의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제기되고 론의되여왔다.

참고서 《통속적인 영어글투에 대한 연구》(외국문도서출판사, 석정근, 주체92(2003))에서 《말과 글을 통속화하는것은 시대의 요구이며 인민대중의 지향의 반영이다. 영어에서도 이 요구를 반영하여 글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쓰는것이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문체로 발전하고있다.》라고 하면서 통속적인 글은 누구나 다 알기 쉽고 정보교환에 편리하게 되여야 한다고 밝히였다.

참고서 《영어변종에 대한 사회언어학적연구》(외국문도서출판사, 리주철, 주체104(2015), 270～271페지)에서는 《언어란 그의 구조를 잘 안다고 해서 그리고 많이 숙련한다고 해서 사회적교제의 환경과 목적에 맞게 적중하게 사용할수 있게 되는것은 아니며 언어사용의 정확성도 적합성이 담보될 때에야 의의를 가진다.》라고 하였다.

언어학자 프랭크 파커(Frank Parker)는 《비언어학자들을 위한 언어학(Linguistics for Non-linguists)》)에서 《통속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그들이 좋아하는것이여야 한다. 즉 그것은 어떤것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지지를 받을 때 얻어지는 속성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통속화는 주로 문체론적현상으로 분석되여왔으나 지금에는 언어생활에서 대중적인 성격으로 평가되는 보편적인 언어현상으로 인식되고있다고 하였다.

여러 언어학자들은 정보전달의 통속화를 언어환경에 대한 적합성의 기초로 보면서 통속적인 정보는 리해하기 쉽고 널리 쓰이며 신속한 교제실현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하여보면 정보전달의 통속화는 주어진 사회적교제의 환경과 목적에 맞게 사람들속에서 리해하기 쉽고 널리 쓰이며 편리하게 교제하게 하는 정보전달방식이라고 말할수 있다.

론문에서는 영어행위에서 정보전달의 통속화실현방식과 실현방도를 기본과제로 제기하고 체계화하여 영어학습자들과 교육자들이 주어진 교제환경과 교제대상에 맞게 적합한

언어자료를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려고 한다.

2. 본 론

2.1. 영어행위에서 정보전달의 통속화실현방식

정보전달의 통속화실현방식은 일반적으로 언어적실현방식과 비언어적실현방식으로 갈라볼수 있다.

언어적실현방식은 언어적수단을 리용한 정보전달방식으로서 언어교육의 기본대상으로 되며 비언어적실현방식은 일련의 비언어적수단들 즉 몸짓, 눈짓, 각종 신호와 그림, 표식 등에 의한 정보전달방식을 말한다. 론문에서는 정보전달의 통속화실현방식에서 주되는 방식인 언어적실현방식을 보기로 한다.

최근시기 언어학자들속에서 언어정보전달의 통속화보장을 위한 연구는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에 깊이 들어가 포착된 자료들로 언어자료기지를 축성하고 빈도수가 높은 관습화된 언어자료들과 현시기 새로운 양상을 띠고 널리 쓰이는 자료들 그리고 외국어와 자기 민족어와의 접촉과정을 통하여 굳어지고 보편화된 통속적인 언어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주어진 언어환경과 교제대상에 적합한 실용적인 교제를 실현하는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영어행위에서 정보전달의 통속화실현방식에 대하여서는 어휘화된 단어결합과 단어합성의 사용을 통한 통속화, 관습화된 어휘표현의 사용을 통한 통속화, 관습화된 문법적형태적용을 통한 통속화, 관습화된 어휘문체론적수법적용을 통한 통속화의 측면에서 보기로 한다.

2.1.1. 단어결합과 합성의 사용을 통한 통속화

영어에서 단어결합과 합성이 두 단어범위에서 진행되던것이 지금에 와서는 셋 혹은 그이상의 단어들에서도 활발해지고있다.

실례로 post-it notes(뒤면에 접착제를 바른 색종이, 알림표), do-it-yourself(집에서 자체로 하는 일, 가사), shopping on line(망을 통한 물건사기), nine-to-five office job(9시부터 17시까지 하는 로동) 등을 들수 있다.

이러한 단어결합과 합성들은 최근에 출판된 영어참고서들과 인터네트망을 통하여 수집된것들로서 사전상에서는 그 대역을 찾아볼수 없을뿐더러 그 사용상측면에서도 결코 소홀히 할수 없는 통속적인 어휘표현들로서 입말과 글말에서 널리 쓰이고있다.

최근 영어사용자들은 단어줄임과 합성과 같은 여러가지 단어조성수법들을 동시에 리용하면서 새말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사용하고있다.

실례: camcorder (사진기가 설치된 록음기)
　　faxphone (확스전신기/전화기)
　　sci-tech complex (과학기술전당)

이와 같은 새말들은 독특한 단어조성수법으로 하여 그 의미가 집약적이면서도 생동하고 풍부한것으로 하여 영어사용자들속에서 널리 쓰이고있다.

2.1.2. 관습화된 어휘표현의 사용을 통한 통속화

영어에서 어휘적의미의 관습화는 굳어진 단어결합들에서 많이 찾아볼수 있다.

단어결합 the red carpet는《붉은 주단》으로 리해될수 있지만 영국사람들속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 붉은 주단을 펴고 영접례식을 하는데서 유래되여《경의식》,《정중한 환대》라는 의미로 쓰이고있다. 또한 red ball은 렬차나 뻐스 등에 붉은 색의 동그라미표식을 붙이는 관습에서 생겨나 지금 the red ball train이《급행렬차》라는 의미를 가지고있다.

단어결합 white lie는 아이들의 나쁜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 어른들이 전통적으로 써온 관습적인 표현으로서《악의 없는 거짓말, 교훈적인 거짓말》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관습화된 어휘표현들은 해당 민족의 사고방식의 반영으로서 민족마다 자기 고유의 특성을 가진다.

영어의 비유표현과 조선어의 비유표현의 대응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어	영 어
거부기처럼 꾸물거리는	as slow as a snail(달팽이같이 꾸물거리는)
황소같이 힘이 센	as strong as a horse(말처럼 힘이 센)
양처럼 온순한	as gentle as a dove(비둘기처럼 온순한)

관습화된 어휘표현의 사용을 통한 통속화실현에서 해당 민족의 오랜 력사적관습화로 민족성을 짙게 나타내고있는 성구, 속담들의 사용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Old friends and old wine are best.(친구는 옛친구가 좋고 옷은 새옷이 좋다)

He who laughs last laughs best.(최후에 웃는자가 진짜 승리자이다)

Little and often fills the purse.(티끌모아 태산)

이처럼 해당한 단어의 어휘적의미조성의 력사적전통과 그 변화발전 및 관습에 대한 리해는 그 단어나 단어결합 및 표현들의 정확한 의미와 활용을 과학화하는데서 실천적의의를 가진다.

2.1.3. 관습화된 문법적형태적용을 통한 통속화

영어에서 문법적형태적용에서는 고대영어시기에 전형적으로 쓰이던 굴절형태가 소극화되는 반면에 어순과 보조어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며 동사비인칭형이 다품사화되고 그 변종들이 생겨나 쓰이게 되면서 관습화가 이루어지게 되였다.

이러한 실례는 영어동사 be going to의 미래적쓰임과 be able to와 have to의 양태적쓰임 그리고 일부 부사들인 finally, accordingly, consequently, nevertheless, moreover, hence 등과 명사단어결합들인 on the other hand, in case, at the same time, in a word, in brief, in short, by the way 등의 접속사적쓰임, 일부 자동사들의 련결사적쓰임 등에서 찾아볼수 있다.

또한 문법적관습화는 입말언어행위에서 정확한 문장형식을 갖추지 않은 형태의 말들이 해당한 언어정황에서 쓰이기 시작하여 지금은 매우 적극적인것으로 된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개별적인 단어나 단어결합은 일정한 형태론적요구와 정보론적요구에 부합되고 문법

적관습화가 이루어지면 진술성을 가진 완전한 문장으로 되는데 여기에서 일정한 형태론적요구는 문법구조상의 요구이고 정보론적요구는 진술구조상의 요구이다.

Hey, you! (여보게, 친구!)

Yes, madam? (예, 부인, 무슨 일입니까?)

Certainly, at 8:15.(좋아, 8시 15분에 만나세.)

우의 실례와 같은 문장들은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대화들에서 시간절약을 위하여 쓰이며 구정보와의 련계밑에 신정보를 담고있다.

영어에서 경구문은 주로 전통적인 언어문화에 의하여 형성되여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속에서 공고한 구조적형식으로 인식되고 관습화되여 널리 쓰이고있다.

No parking! Wet paint!

Easy come, easy go.

정확한 형식을 갖추지 않은 구조의 영어문장들은 통신시간과 비용의 절약을 위하여 텔렉스나 손전화의 통보문들에서 자주 쓰이고있다.

RUOK? (Are you OK?)

CU2 morrow.(See you tomorrow.)

F2T? (Are you free to talk?)

일부 학자들은 언어행위의 기본단위인 문장의 구조적형식화에 대한 견해에서 문법적관습화는 세계를 인식하고 반영하는 사고형식이 문장구조에 반영되는것과 많이 관련된다고 하였다.

한편 사람들의 언어문화생활에서의 변화도 영어문법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즉 일부 사람들의 언어생활에서는 문법의 규범적인 틀에서 벗어나 언어자료들을 사용하는 습관이 생겨나게 되였으며 그것이 차츰 굳어지고 보편화, 전통화되게 된것이다.

○ 대명사의 부사적쓰임

영어지시대명사에 일부 문법적요소들이 첨부되여 부사처럼 쓰이는 경우들이다.

I have done this much.(나는 이만큼 했다.)

I cannot walk that far.(=so far)(그는 그렇게 멀리까지 걷지 못한다.)

I caught a fish of this big.(=so big)(나는 이만한 물고기를 잡았다.)

Oh, it isn't that urgent.(=so urgent)(아, 그렇게까지 급하진 않습니다.)

○ 형용사의 명사적쓰임

The mysterious unknown kept his room.(이상야릇한 알지 못할 그 무엇이 방안을 괴괴하게 짓눌렀다.)

○ 자동사에 의한 피동의미의 표현

The cloth washes well.

These books sell well.

○ 상태동사의 지속시칭으로서의 쓰임

I am feeling better today.(나는 오늘따라 기분이 좋다.)

일반적으로 상태동사가 지속시칭으로 잘 쓰이지 않지만 기분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지속시칭형태로 쓰인다.

최근시기 언어행위에서 언어관습화의 산물로 나타나는 문법적수형태들에 상당한 관

심을 돌리고있다. 여기에서는 개별명사의 수범주형태(문법화)와 관습화된 수범주형태(어휘화)들을 대비해보기로 한다.

water→waters/work→works[어휘화]

antenna→ antennae[어휘화] → antennas[문법화]

여기서 우리는 셀수 있는 개별명사에는 규정된 문법화가 적용되며 관습화된 형태에는 어휘화가 작용하게 된다고 볼수 있다.

현대영어에서 이러한 수형태의 이중성은 영어교육에서 복잡한 문제로 된다. 그 류형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이중복수형태

이중복수형태는 하나의 대상단어에 어휘화와 문법화가 구별되는 형태이다.

brother brothers(형제들)[문법화]

brethren(동포)[어휘화]

○ 절대복수형태

절대복수형태는 복수형으로만 쓰이는 형태이다.

scales(천평, 저울) tongs(집게)

pants(짧은 바지) suspenders(멜띠)

linguistics(언어학) economics(경제학)

○ 분화복수형태

분화복수형태는 단수형과 복수형의 뜻이 서로 분리되는 형태이다.

이 형태는 단수형의 개별적인 단어의미의 산수적합이 아닌 새로운 어휘적의미조성의 산물로 된것으로서 새로 생겨난 복수형의 의미가 기초로 되는 단수형의 의미와 근본적으로 차이나는 형태이다.

air(공기) → airs(분위기) / color(색갈) → colors(군기)

custom(습관) → customs(세관) / force(힘) → forces(군대)

2.1.4. 관습화된 어휘문체론적수법적용을 통한 통속화

영어에서 어휘문체론적관습화는 여러가지 수법들로 민족적인 감정정서를 독특하게 묘사하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영어본문들에서 쓰이는 어휘문체론적수법들로는 비유법, 과장법, 에두름법, 야유법 등을 들수 있다.

Tom's life was as poor as a church mouse.[비유법]

(톰의 생활은(교회당의 생쥐처럼) 몹시 빈곤하였다.)

To use a steam-hammer to crack nuts.[과장법](대포로 참새잡기.)

Tom kicked the bucket.[에두름법](톰은 뒈졌다.)

How clever of you! [야유법](참 령리하군!)

2.2. 영어행위에서 정보전달의 통속화실현방도

2.2.1. 영어단어조성과 그 리용의 변화들을 제때에 포착하고 적극 리용하는것이다.

최근 영어사용자들은 단어줄임과 합성, 혼성과 같은 여러가지 단어조성수법들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새말들을 적극 만들어쓰며 자기의 의사를 통속적으로 신속히 전달하고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어조성수법들에 의거하여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정확히 포착하는것은 신속한 정보전달의 주요요구로 나선다.

2.2.2. 영어의 어휘습득과 활용에서 해당 외국어와 모국어사이의 언어접촉관계를 긴밀하게 하는것이다.

언어의 접촉현상은 두 언어를 사용하는 과정에 새로 생겨나는 사물현상이나 대상에 대하여 접촉되는 언어의 어음소들을 접촉하는 언어의 의미소로 음역하는 방식을 리용하면서 자기 언어의 어음구성에 맞게 적응시키는 언어현상이다.

분석한데 의하면 영어와 우리 말의 접촉현상으로 생겨난 새말들은 두 언어의 어음소와 의미소가 일정한 정도로 일치하면서 그 의미가 매우 통속적인것으로 하여 두 언어에 대한 인식과 습득능력을 높여주고있다.

따라서 두 언어의 접촉현상에 대한 리해는 언어습득과 활용을 통속화하고 신속성을 보장하는데 유리한 언어적조건을 마련하게 한다.

2.2.3. 영어사용자들의 언어관습에 최대한 익숙하는것이다.

최근시기 영어사용자들이 관습화된 언어자료들을 적극적으로 리용하고있는 조건에서 영어학습자들은 영어습득과정에 영어의 일반적인 언어자료에 대한 인식만이 아니라 영어의 언어관습에까지 정통하여야 영어를 모국어처럼 소유하고 활용할수 있다.

2.2.4. 문법적규범화가 뚜렷하지 않은 언어자료들을 해당 언어정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는것이다.

영어의 일부 언어자료들은 문법적규범화의 측면에서 볼 때 명백하지 못한것들이 있다. 이런 리유로 하여 흔히 영어문법에는 례외적인것이 적지 않다.

영어인칭대명사 we의 쓰임을 실례로 들수 있다.

영어문장에서 인칭대명사 we는 의미기능적으로 1인칭만을 가리킬 때도 있고 2인칭이나 3인칭을 포괄하여 가리킬 때도 있다.

우선 I대신에 we를 써서 자기 개인의 의견을 말하면서도 보다 정중성과 공정성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다.

례: “We have ordered it already”, the chairman was angry.

(《그것을 이미 지시한 상태요.》라고 의장은 노발대발하였다.)

또한 저자나 연설자 등이 I대신에 we를 써서 독자나 청중에 대한 친근감을 나타내는 동시에 이러한 사람들의 의사를 대변하고있다는것을 암시해준다.

례: Our present plan is to add more about what we already touched upon our preceding

volumn.(현재 나의 계획은 내가 이미 쓴 책에 더 많은 내용을 첨부하는것이다.)

뿐만아니라 특별히 누구라고 지적하지 않고《같은 처지의 사람은 누구나 다》라는 뜻을 나타낼 때 we를 쓰게 된다.

례: We don’t know him, he is honest.(그를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현대영어에는 you대신에 we를 써서 친근감, 추어주기, 동정, 격려 등과 같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실례는 의사나 간호원이 아침에 병동에 들어설 때 자신도 환자인체 하면서《How are we this morning?》(오늘아침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환자가《We are feeling quite well.》(참 좋습니다.)라고 대답하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이때 환자는 대답을 하고보니 방에는 자기 혼자뿐이였으나 크게 잘못했다는 감을 느끼지 않는다.

다른 실례로 상대방을 호되게 비판하면서 그것이 비록 상대방의 결함이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결함이라는 의미에서《Aren’t we getting just a trifling insolent?(좀 무례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라고 함으로써 상대방의 감정을 크게 자극시키지 않는 경우를 들수 있다.

그러므로 문법적규범화가 뚜렷하지 않은 언어자료들을 교제의 목적과 해당 언어정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여 고정격식화된 규범문법의 틀에서 벗어나 정보전달의 통속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며 교제의 목적을 원만히 달성하게 된다.

2.2.5. 입말체언어교제에서는 문체론적관습화문제를 특별히 고려하는것이다.

문체론적관습화는 언어의식과 사고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관습화이며 동시에 전통적인 민족적어감과 감정정서의 표현방식으로 된다. 따라서 영어학습에서는 문체론적으로 관습화된 언어자료들을 많이 습득하며 그 활용능력을 갖추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람들의 의식속에 자리를 잡고 오랜 력사적과정에 굳어진 관습과 사람들의 필수적인 언어적사고는 긴밀한 관계를 이루고있는것으로 하여 력사적으로 형성되여 굳어진 문체론적관습까지 습득하는것은 해당 언어에 완전히 정통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특히 글말체문장들에서 문법규범의 요구에 맞는 언어자료의 리용을 기본으로 한다면 입말체문장들에서는 통속화를 위한 언어자료의 리용을 중시하게 된다. 따라서 정보전달의 통속화를 보장하는 문제는 주로 입말체언어교제에서 중요한 요구로 내세우고 영어습득과 실천에 구현해나가야 한다.

3. 결 론

론문에서는 최근시기 영어학습자들이 영어교육과 실천에서 보다 합리적인 언어자료를 습득하고 보다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하는데서 의의가 있는 정보전달의 통속화문제를 제기하고 그 본질과 영어행위에서의 정보전달의 통속화실현방식 그리고 그 방도문제를 론하였다.

그러나 현재 영어가 세계적판도에서 널리 쓰이고있는것으로 하여 정보전달의 통속화

문제는 계속 복잡하게 제기되고있으며 새로운 언어자료의 수집과 분류, 그 활용과 관련한 연구는 끊임없이 계속되게 된다.

우리는 언어생활에서의 정보전달의 통속화문제를 중시하고 그에 대한 연구를 근기있게 진행하며 그 성과를 교수사업에 적극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외국어습득의 효률성을 최대한 높이며 높은 외국어실천능력을 소유한 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해내는것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영예로운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통속화, 영어행위, 정보전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주체108(2019)년
어문학 제65권 제2호

전문영어교수설계에 대하여

부교수 장 철

1. 서 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학들에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와 과학기술의 발전추세에 맞게 교육의 질적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없으며 기술자, 전문가들을 바로 키워낼수 없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0권 486페지)

현시기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대학전문영어교육을 발전시키는데서 전문교육과 영어교수의 특성을 잘 알고 그에 맞게 전문영어교수설계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자면 전문영어교수설계에서 나서는 원리적이며 기초적인 방법론적문제들에 대하여 잘 아는것이 필요하다.

전문영어교수는 교육과정기간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 특정한 전문학술분야나 전문직업분야의 언어사용환경에 맞는 능란한 영어교제능력을 키울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의 학습수요충족과 해당 전문분야교육과의 밀접한 련관속에 진행되는 비교적 높은 단계의 영어교수과정이다.

론문에서는 전문영어교수설계의 과학성, 교육학적효과성을 보장하는데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지는 전문영어교수설계공정과 수요분석방법, 원리적이며 기초적인 설계방법론적문제들에 대하여 론하려고 한다.

2. 본 론

2.1. 전문영어교수설계공정

일반적으로 교수설계는 교수대상과 단계, 교수목적과 목표설정, 교수내용구성, 교수형태와 방법, 수법적용, 교수수단과 자원리용, 교수평가와 같은 전반적인 교수과정을 연구하고 교수계획을 작성, 체계화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교수설계공정은 수요분석단계, 교수방향토의 및 교수계획작성단계, 교수리행단계, 교수평가단계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할수 있다.

수요분석단계에서는 주로 교수설계자가 교수내용과 방법결정을 위해 목표영어(해당 전문분야의 영어: 관광봉사영어, 무역실무영어 등)사용환경상특성과 학습환경, 학생들의 학습수요 등을 면밀히 조사연구하며 교수방향토의 및 교수계획작성단계에서는 교원, 연구사, 해당 전문가들과의 집체토의, 교원 및 학생들의 의견종합 등을 통하여 교수요강작성, 교수내용구성, 교수방법과 수법, 교수수단확정, 총교수시간과 단계별교수시간수를 규정하고 계획화한다. 여기에서 교수요강작성은 교수목적과 목표, 교수과정에 포함시킬 언어

지식 및 언어기능교수내용, 교수방법을 규제하는 매우 중요하고 구체적인 교수목표설정단계로 된다.

교수리행단계에서는 학기, 학년별 총교수시간과 과별교수시간, 한강의분교수시간과 같은 각이한 교수시간들을 계획화하고 매 강의의 교수목적과 부분목적설정, 적합한 교수형태와 수법, 수단들의 선정리용, 교수활동에서 교원과 학생의 역할관계규정 등을 진행한다.

교수평가단계에서는 교수설계자가 여러가지 다양한 교수평가방법과 형식, 시험방법 등을 계획화하고 집행한다. 교수의 질평가에서는 교수의 질개선을 위해 교수과정전반을 평가하고 평가기준과 비교하며 때때로 수정할 각이한 도달기준들을 확정하게 된다. 교수의 질평가관리는 교육과정안과 교수과정을 표준화하고 그 질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하다.

2.2. 수요분석

수요분석은 전문영어교수설계에서 첫 필수기초공정으로서 교수의 과학성, 효과성, 현실성을 보장하고 교수설계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된다. 수요분석결과에 따라 교수목적과 목표가 설정되며 그에 따라 적합한 교수요강과 교재의 선정, 평가, 개작, 집필 그리고 교수형태와 방법선정 및 리용, 교수과정평가 및 개선 등이 합리적으로 진행되게 된다.

수요분석방법은 1960년대－1970년대에 교제식영어교수방법이 널리 적용되면서 영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의 학습심리를 중시하는 응용언어학자들과 영어교수자들의 견해로부터 전문영어교수가 활발히 진행되는것과 동시에 영어교수설계에 도입되게 되였다.

당시 영어를 교제수단으로 리용하려는 사람들의 사회적관심과 영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의 학습심리태도가 교육의 효과성, 학습효과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인식이 점차 강렬해지면서 전문영어교수설계자들은 사회실천적요구와 학생들의 학습수요등을 체계적으로 밝히고 그에 맞추어 교육과정안과 교수요강작성, 교재의 선정, 평가, 개작, 집필과 같은 교수설계를 현실성있게 하려고 하였다.

전문영어교수설계를 위한 수요분석에 대한 리해를 바로하자면 우선 수요분석목적과 수요분석대상, 수요분석자, 수요분석방법과 시기 및 기간, 수요분석자료리용대상과 리용방법문제 등에 대하여 정확히 아는것이 중요하다.

수요분석의 목적은 해당 전문영어교수에 적합한 교수요강류형과 교수내용, 교수수단, 교수－학습형식과 방법을 선정하고 해당 교수과정에 따르는 교수단위(학급)편성에 도움을 주며 학술잡지론문들을 통하여 전문영어교원들과 관계자들에게 필요한 관련자료들을 알려주자는데 있다.

수요분석은 주로 전문영어교원들과 교수설계자, 연구자, 해당 전문교육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해당 전문분야의 학생, 졸업생, 교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한다.

수요분석에서는 목표영어사용환경과 학생들의 현상태, 부족점, 제약조건, 필요성, 욕망, 교수－학습형식과 수단 및 수법 등을 조사분석하며 시험결과분석, 조사질문표제시, 담화, 조사, 관찰, 교수자료수집분석, 문헌조사, 관계자들과의 비격식적인 토론 등 여러가

지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하게 된다.

수요분석결과에 따라 해당 전문영어교수의 목적과 도달목표, 교수대상과 교수단위규모(학생인원), 교수단계와 시기 등을 정하며 그에 맞는 교수요강작성 및 교재준비, 교수－학습형식과 교수수법들의 선정과 적용, 교재와 교수수단의 리용, 교수리행과 교수평가 및 질개선이 진행되게 된다.

전문영어교수설계를 위한 수요분석에 대한 리해를 바로하자면 또한 수요분석항목내용에 대하여서도 정확히 아는것이 중요하다.

수요분석항목에는 목표수요와 학습수요가 있다.

목표수요는 학생들이 목표한 해당 전문분야의 영어사용환경에서 영어를 교제수단으로 하여 능률적으로 일하자면 무엇을 알아야 하며 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것이며 학습수요는 학생들이 학습을 위해서 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것이다.

목표수요분석은 보다 포괄적인 용어로서 《필요한것》(necessities), 《부족점》(lacks), 《원하는것》(wants)에 대한 분석으로 이루어지며 이것은 목표영어사용환경분석(target situation analysis)과 학생분석(learner analysis)을 통하여 진행한다.

목표영어사용환경분석과 학생분석을 통한 목표수요분석은 학생들이 영어를 교제수단으로 하여 무엇을 할수 있는가 하는 해당 분야의 영어사용방식과 언어적특성, 목표수요와 학생들의 현재수준, 부족점, 도달목표와의 수요차이를 분석하고 전문영어교수설계목적과 목표설정, 실용화, 종합화의 기초자료를 마련해준다.

《필요한것》은 목표영어사용환경수요 즉 목표한 해당 분야의 영어사용환경분석과정에 학생들이 영어를 교제수단으로 하여 효과적으로 자기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들에 의해 결정되는 수요류형이다.

목표수요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목표영어사용환경분석에서는 우선 학생들이 전문영어교수를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나 필요성, 학생들이 목표영어사용환경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형식과 방식, 전문분야내용과 교수대상들의 수준, 학생들의 영어사용대상과 목표영어사용환경 등의 측면들을 분석한다.

목표수요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목표영어사용환경분석에서는 또한 해당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영어입말 및 글말본문들의 언어적특성들에 대한 분석 즉 언어사용역분석, 담화나 본문분석, 쟝르분석을 진행한다.

실례로 대학과 같은 학술영어교수환경분석에서는 일반학술 및 전문학술본문에 대한 독해능력과 과학연구소론문, 졸업론문 및 학위론문, 각종 학술보고서자료수집 및 작성능력, 학술강의나 강연, 학술토론회청강능력, 요점적기능력, 학술토론 및 발표능력, 학습 및 연구능력 등 학습 및 학술적내용과 관련되고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기능과 같이 특정한 언어사용환경과 관련된 언어행위기능형성방법에 대하여 분석한다.

경제실무영어교수환경분석에서는 각종 경제실무편지 및 계약문건, 시장조사표, 상품명세표 등에 대한 독해능력과 자료수집 및 작성능력, 경제실무면담능력 등 경제실무거래활동에 필요한 글말 및 입말기능들에 대하여 분석한다.

목표영어사용환경분석자료는 학생들이 앞으로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언어사용환경이 어떠한가 하는것을 관찰하고 그 구성부분과 요소들을 분석하면 되므로 상대적으로 수집하기 쉽다.

전문영어교수설계에서 주요 관심사가 특정한 학생들의 수요이므로 《필요한것》에 대한 분석결과만으로는 목표수요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할수 없다.

이로부터 수요분석에서는 학생분석을 통하여 목표수요에 비한 그들의 현재《부족점》과 《원하는것》에 대하여서도 분석한다.

학생들의 현재《부족점》에 대한 분석은 학생들이 이미 무엇을 어느 정도 알고있으며 목표영어사용환경에 필요한것들중에서 현재 학생들이 무엇이 부족한가 하는데 대한 분석이다.

실례로 어느 한 목표영어사용환경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것이 해당 전문분야관련본문에 대한 독해능력이라면 학생들이 이러한 독해능력배양을 위한 교수과정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것은 그들이 이미 독해를 얼마나 잘할수 있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목표한 영어활용능력은 학생들의 현재영어활용능력과 비교하여야 하며 이러한 목표영어활용능력과 현재영어활용능력사이의 차이가 바로 학생들의 《부족점》으로 된다.

수요분석에서 《필요한것》과 《부족점》에 대한 분석자료들은 모두 객관자료들로서 학습의 주체인 학생들의 주동적인 역할과 작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한것들이다. 그러나 학생들도 자기의 목표수요와 관련하여 일정한 견해를 가지고있다.

전문영어교수환경을 특징짓는것은 바로 이러한 수요에 대한 인식이다. 학생들은 목표영어사용환경에 《필요한것》과 자기들의 《부족점》에 대하여 명백한 견해를 가지고있을수 있으며 그러한 견해가 다른 전문영어교수관계자들의 견해와 모순될 가능성도 있다.

전문영어교수설계에서는 학생들의 학습의욕이나 학습동기에 대하여 중시되여야 하며 수요분석에서 학생들이 《원하는것》에 대하여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교수설계자는 수요분석과정에 얻게 되는 《필요한것》과 《부족점》, 《원하는것》사이의 차이에 대하여 잘 알고 교수요강작성과 교재선정 및 집필, 교수방법선정리용에서 학생들의 요구를 잘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영어교수설계를 위한 수요분석항목에는 목표영어사용환경분석, 학생분석과 같은 목표수요분석과 함께 학습수요분석도 있다.

학습수요분석은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즉 무엇을 어떻게 학습하여야 하는가 하는것을 분석하는 학습환경분석공정으로서 설정된 교수목적과 목표달성을 위해 학생들의 기존지식과 능력(언어지식과 언어기능, 해당 전문분야지식), 학습자원과 학습방식, 학습목적과 심리적동기, 태도, 학습취미, 학습능력과 학습조건 등에 대하여 분석한다.

학습수요분석은 학습의 주체인 학생들과 그들의 학습에 주는 학습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정으로서 교수목적과 목표설정, 교수요강 및 교수자료선택, 교수방법적용 등 교수방향설정리행의 기초로 된다.

학습수요분석에서는 학생들이 전문영어교수를 받으려는 목적이나 리유, 학생들의 학습방식, 리용가능한 학습자원, 학생자체에 대한 분석자료, 전문영어교수환경과 진행기간 및 시간 등 여러 측면들을 분석한다.

전문영어교수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인 수요분석은 매우 복잡한 과정으로서 단순히 학생들이 목표영어사용환경에서 무엇을 하여야 할것인가 하는데 대하여 리해하는것보다 더 많은것을 내포하고있다.

수요분석에서는 목표영어사용환경수요분석과 학습수요분석을 다같이 진행하여야 한다. 목표영어사용환경수요분석은 주로 해당 분야에서의 언어사용방식과 관련된것으로서 사람들이 영어를 교제수단으로 하여 무엇을 할수 있는가 하는데 대하여 보여줄수 있으나 이것은 총체적인 수요분석결과에서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수요분석에서는 사람들이 영어를 교제수단으로 하여 하여야 할 내용을 어떻게 배우는가 하는데 대한 분석도 진행하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수요분석에서는 학습중심수요분석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처럼 수요분석은 전문영어교수설계방향을 결정하고 그 과학성, 효과성, 현실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공정으로 된다.

2.3. 전문영어교수설계방법

전문영어교수설계는 수요분석결과, 교수목적과 대상, 교수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언어중심교수설계방법》(Language-centred course approach), 《언어행위기능중심교수설계방법》(Skill-centred course approach), 《학습중심교수설계방법》(Learning-centred course approach)과 같은 각이한 언어교수설계방법이나 그 결합형식에 기초하여 진행된다.

2.3.1. 언어중심교수설계방법

언어중심교수설계방법은 일반적으로 영어교수설계에서 가장 널리 적용되는 방법으로서 초기전문영어교수설계에서 적지 않게 리용되여왔다. 언어중심교수설계방법은 목표영어사용환경분석과 전문영어교수내용사이의 직접적인 련계를 지어줄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어중심교수설계방법에서는 해당 전문영어교수를 받으려는 학생들의 요구와 리해관계, 학습동기, 현재의 전문지식 및 어학수준, 현재 또는 앞으로 사업하게 될 목표영어사용환경에서 영어를 수단으로 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며 해결하려는 내용과 도달목표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에 따르는 언어에 대한 리론적견해들을 료해분석하고 목표영어사용환경의 언어적특성을 확정한 다음 그에 기초하여 교수요강작성과 교수자료들의 선정, 평가, 개작, 집필 그리고 교수요강내용항목들에 대한 습득정형료해평가 등을 진행한다.

이 방법은 영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의 요구와 리해관계, 그들의 수준과 부족점, 목표영어사용환경의 언어적특성에 대한 분석자료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일반영어교수와 달리 교수과정의 목적지향성, 실용성, 효률성보장에 의의가 있으나 일정한 제한성도 가지고있다.

그 제한성은 우선 학생들에 의해 제한된 언어내용범위만을 위주로 하여 교수가 진행되는것으로 하여 교수내용이 제한적이라는것이다.

이 방법은 학생들의 요구와 리해관계, 그들의 목표영어사용환경상특성을 고려하여 교수요강작성, 교수내용구성, 교수리행, 교수평가가 진행되므로 외견상 학생중심교수설계방법으로 리해될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이 방법에서 학생은 단순히 목표영어사용환경을 분석확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며 일반영어교수와 달리 제한된 영어만을 가르치게 된다. 다시말하여 학생은 단지 그 제한된 범위의 교수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되며 전문영어교수설계에서 그이상의 역할을 놀지 못한다.

그 제한성은 또한 인간활동에 내재하고있는 심리적요인들을 거의나 고려할수 없는것

으로 하여 정적이고 수정할 가능성이 적은 방법으로 된다는것이다.

일단 목표영어사용환경에 대한 초기분석이 진행되면 교수설계자는 고정격식화된 설계공정과 방법에 의거하게 되며 학생들의 학습동기, 심리태도와 같은 일부 중요한 고려항목들에 대한 초기분석이 정확치 않은 경우 수정할 가능성이 거의나 없게 된다. 교수설계방법은 예견치 않았거나 발전적요소들에 대응할수 있는 신축성과 교수에 대한 반응이나 평가의견종합에 기초한 오유수정가능성도 가지고있어야 한다.

그 제한성은 또한 언어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표상이 학생들에게 있어서 곧 체계적인 학습과정으로 되지 않는다는것이다.

학습의 체계화과정은 그렇게 단순한것이 아니다. 지식의 체계화과정은 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논다. 학생들은 개별적인 지식내용항목들을 결합시켜 기존표상과 예측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그것이 외적요인에 의한 체계가 아니라 내적요인에 의한 체계로 되여야 한다는것이다. 지식의 체계적분석과 표상은 결코 지식의 체계적습득과정으로 되지 못하며 학생자신이 그 체계적인 지식을 체계적인 학습과정으로 만들어 자기의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지능이 실지 지식의 내적체계를 형성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못하였다. 언어가 서술가능한 체계로 구성되여있다고 하여 그 체계에 대한 서술(분석)이 곧 체계적인 학습과정으로 되는것이 아니다.

그 제한성은 또한 언어교수설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인자들을 거의나 고려하지 못한다는것이다.

수요분석자료 그자체는 그리 중요치 않으며 수집작성된 자료들을 해석하면서 분석과정에 밝혀지지 않은 각종 지식자료들을 리용하여야 한다. 언어중심교수설계에서는 분석모형이 예측모형으로 적절히 리용되지 못한다. 특정한 환경에 대한 분석자료는 교수요강내용항목과 교수자료에 대한 판단결정에 리용되지만 여기에 각종 다른 인자들이 작용할수 있다. 실례로 교육학적으로 잘 만들어진 교재의 기본특성의 하나가 그것이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야 한다는것이다. 언어적내용항목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본문이나 교수활동이 흥미있는가 없는가 하는데 대하여 충분히 보여줄수 없다. 교수내용을 언어중심교수설계방법에 기초해서만 구성하게 되면 이 방법에서는 고려되지 않는 다른 인자들이 리용되거나 적지 않은 학습인자들이 중요한것으로 고려되지 못하게 된다.

그 제한성은 또한 목표영어사용환경에 대한 언어중심분석이 단지 표층적인 분석과정으로 된다는것이다.

2.3.2. 언어행위기능중심교수설계방법

언어행위기능중심교수설계방법은 두가지 기초원리 즉 리론적원리와 실용적원리에 기초하고있다.

이 교수설계방법의 기초리론적전제는 어떤 언어행위의 밑바탕에 일정한 언어행위기능과 전략들이 놓여있으며 학생은 담화본문을 만들거나 리해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리용한다는것이다. 이 방법은 표층적인 언어활용능력자료분석에서 벗어나 그 언어활용능력의 밑바탕에 놓여있는 언어능력을 분석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 방법은 언어활

용능력과 언어능력의 견지에서 학습목표를 제시하게 된다. 아래에 도서정보학과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한 전문영어교수요강에서 뽑은 일부 실례자료가 있다.

△ 총적목표(언어활용능력수준제고)

학생들은 영문도서들을 목록작성 및 분류할수 있어야 한다.

△ 구체적인 목표(언어능력수준제고)

－ 본문을 훑어읽고 그 요지를 뽑아 발취할수 있어야 한다.

－ 도서의 기본부분으로부터 련관정보자료들을 뽑아 발취할수 있어야 한다.

이 교수설계방법의 실용적근거에 대해서는 결과위주형교수와 과정위주형교수사이의 차이에서 추론할수 있다.

결과위주형교수는 교수의 결과 즉 교수기간에 도달해야 할 지식습득과 기능배양에 중점을 두는 교수이며 과정위주형교수는 학습체험과정과 학습능력배양에 중점을 두는 교수이다.

과정위주형교수인 전문영어교수는 그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목표달성이 아니라 학생들이 주어진 제약조건내에서 달성할수 있는 수준에 이를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전문영어교수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능력과 잠재력을 인식하고 교수기간에 자기들의 수준을 부단히 높여나갈수 있게 하는 학습능력배양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언어행위기능중심교수설계방법은 전문영어교수의 기초로서 전문영어사용역에 대한 개념과 제한된 교수시간과 교수자원에 의해 생기는 학습과정의 실제적인 제약조건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방법으로, 전문영어교수가 학생들이 교수과정을 마친 다음에도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할 언어행위기능들과 학습능력을 키워나가도록 도와주는 과정으로 되게 한다. 이 설계방법의 목적은 특정한 언어지식자료를 제공해줄뿐아니라 학생들이 정보자료들을 보다 훌륭히 처리해나갈수 있게 만드는것이다.

이 교수설계방법에서는 수요분석의 역할을 두가지 측면에서 볼수 있다.

그것은 우선 사람들이 목표영어사용환경에서 발휘할수 있는 기초적인 언어능력을 밝히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해주며 또한 교수설계자가 학생들이 전문영어교수시간에 참가할 때 가지고있는 잠재적인 지식과 능력을 밝힐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이 교수설계방법에서는 명백히 언어중심교수설계방법에서보다 학습의 주체, 인식의 주체인 학생들을 더 중시하게 된다. 다시말하여 이 방법에서는 학생들의 지능이 언어를 어떻게 처리해나가는가 하는 견지에서 언어를 보고 대하며 학생들의 《부족점》이라는 부정적측면보다도 그들이 교수과정에 참가할 때 가지고있는 긍정적측면에 기초하여 교수설계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 교수설계방법도 여전히 학생들을 언어학습자로서가 아니라 언어사용자로 대하고있으며 결국 이 방법이 관심하는 과정들은 언어학습과정이 아니라 언어사용과정들인것이다.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그 극복을 위해 나온것이 학습중심교수설계방법이다.

2.3.3. 학습중심교수설계방법

교수설계방법의 측면에서 볼 때 언어중심교수설계방법에서는 언어 그자체가 목표영어사용환경에 맞는 언어활용능력의 본질적특성으로 되며 그에 의해 전문영어교수과정이 판단결정되게 된다.

언어행위기능중심교수설계방법에서는 전문영어학습환경을 목표영어사용환경에 지나치게 의존시키기때문에 학생들을 중시하면서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단지 그들을 목표영어사용환경을 분석확정하는데만 리용한다. 그리하여 언어중심교수설계방법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거의나 무시되며 목표영어사용환경분석에서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거의나 없이 교수내용을 판단결정하는데 리용된다. 결국 이 교수설계방법도 충분하지 못하며 어떤 과정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언어활용을 가능하게 하는가 하는것을 밝히기 위해 목표영어활용능력자료들의 리면에 대한 관찰을 통해 전문영어교수과정을 판단결정하게 된다.

학습중심교수설계방법도 역시 충분하지 못하며 실제적으로 밝혀야 할 내용은 언어능력 그자체가 아니라 학습자가 어떻게 그 언어능력을 터득하는가 하는것이다.

학습중심교수설계방법은 교수설계과정의 모든 단계들에서 학생을 고려하고있다. 이것은 두가지 의미를 담고있다.

우선 교수설계과정이 호상 토론하여 합의를 보는 협상과정이나 같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교수설계과정에 직접 결정적영향을 주는 유일한 인자란 없다는것이다. 전문영어학습환경과 목표영어사용환경은 다같이 교수요강과 교수자료, 교수방법과 교수평가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매개 구성요소들은 다른 구성요소들에도 영향을 주며 또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또한 교수설계과정이 부단히 변하는 동적과정으로 된다는것이다.

수요와 교수자원은 시간이 감에 따라 부단히 변하게 되므로 교수설계에서는 교수과정의 변화발전에 대응할수 있게 자동적으로 참고하고 평가의견을 받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전문영어교수설계에 학습중심교수설계방법을 받아들이는데서 나서는 일련의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독해능력배양을 목적으로 한 전문영어교수설계를 실례로 든다면 우선 교수설계의 첫 필수기초공정인 수요분석단계에서 전문영어교수과정을 받는 학생들이 자기 전공관련영어본문자료들을 읽기 위해 영어가 필요하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영어본문자료에 대한 독해능력이다. 교수설계에 언어중심교수설계방법이나 언어행위기능중심교수설계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교수활동은 오직 전공관련영어본문읽기련습에만 집중하게 된다고 볼수 있다. 이렇게 되면 듣기련습과정이 전혀 필요없게 되고 모든 토론련습활동들이 모국어로 진행되게 되며 글쓰기련습과제는 최대한 줄어들게 된다. 이것은 우에서 언급한 언어중심교수설계방법이나 언어행위기능중심교수설계방법에 의한 교수—학습모형의 론리적적용실례로 된다.

그러나 학습중심교수설계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교수내용과 교수방법을 판단결정하기 전에 이보다 더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게 되며 다음과 같은 인자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선 오직 읽기련습활동으로만 효과적인 읽기방법을 배울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다른 언어행위기능들이 읽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수 있게 도움을 줄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실례로 학생들이 자체로 본문쓰기를 하면서 본문구조를 보다 쉽게 파악하는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들수 있다. 만일 표상이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와 같은 여러 언어

행위기능경로를 통하여 뇌수에 들어오게 되면 십중팔구 한가지 기능경로를 통해서만 들어오는것보다 더 생생하고 공고하게 되며 더 많은 련상관계와 형식들이 지식망안에 형성구축되게 되면서 훨씬 더 쉽게 리해되고 받아들일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본문읽기련습을 할 때 다른 언어행위기능형성련습과 적절히 배합하여 진행하는것이 필요하다는것을 알수 있다.

또한 한가지 기능중심교수방법과 교수활동의 다양성부족문제 다시말하여 제한된 범위의 련습형식으로 하여 학생들이 인차 지루감, 권태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다른 언어행위기능들이 교수활동의 다양성보장에 리용될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들이다.

또한 학생들이 다른 언어행위기능들이 필요되는 과제수행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다 다양하고 흥미있는 련습활동들을 좋아하는가, 현재 진행되는 교수활동에 대해 부정적감정을 가지지 않는가, 교실안의 교수 및 학습자원들이 다른 언어행위기능들의 활용을 가능하게 해주는가, 교원이 통합식언어행위기능교수방법을 활용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이다.

이와 함께 교수진행기간 학생들의 태도와 립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문제로 된다.

처음에 학생들은 독해능력배양을 위한 읽기교수가 새롭고 자기들의 학습목적에 부합되는것으로 하여 이 교수방법을 좋아할수 있으나 이러한 자극동기가 교수활동의 전과정에 계속 지속되겠는가 하는것과 같은 문제가 나서게 된다. 똑같은 형식의 련습활동들이 학생들에게 지루감을 느끼게 하고 보다 다양한 다른 교수방법을 요구할수 있다는 점도 역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문제로 제기된다.

이로부터 전문영어교수에서는 읽기교수와 함께 다른 언어행위기능교수가 배합된 통합식기능교수가 필요하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러므로 목표영어사용환경수요와 함께 학생들과 학습환경, 학습과 관련된 인자들이 전문영어교수설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데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고려되여야 한다.

3. 결 론

목표영어사용환경분석자료는 교수요강과 교재, 교수방법과 수단, 시험형식과 방법의 설계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학습관련인자들도 설계공정의 모든 단계들에서 고려되여야 한다.

우리는 이전시기 언어중심교수설계에 기초한 글말본문독해 및 번역위주의 전문영어교수로부터 과학적인 수요분석결과에 기초하여 해당 전문분야의 특성에 맞는 영어지식과 언어행위기능 및 학습능력을 다같이 키워줄수 있는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교수설계방법을 정립하고 교수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도들을 해결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전문영어교수설계와 관련한 수요분석과 교수설계방법들의 우단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과학적인 전문영어교수설계원리에 기초하여 교수요강작성과 교재설계, 교수형식과 교수방법, 교수수법과 수단들의 선정적용, 교수평가와 같은 교수설계의 전과정을 과학화, 원리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잘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외국어교육을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과 세계교육발전추세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우리 혁명과 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는 능력있는 학술형인재, 실천형인재들을 더 많이 질적으로 키워내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전문영어교수설계, 수요분석, 학습중심교수설계방법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주체108(2019)년
어문학 제65권 제2호

현대영어의미론연구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교수 박사 리 정 숙

1. 서 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과학연구를 혁명실천과 결합시켜 혁명과 건설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가며 사회과학리론을 새로운 높이에로 더욱 발전풍부화시켜야 합니다.》

많은 나라 대학들의 언어교육실태를 보면 언어교육에서 의미론에 대한 교육을 중시하고있다. 그것은 언어가 어음(글자)과 의미의 통일체로 존재하며 여기에서 의미가 언어의 중핵적인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실지에 있어서 언어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해당 언어의 말과 글로 표현되는 의미내용을 정확히 리해하고 그에 대한 활용능력을 높여주는 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므로 언어교육내용을 꾸리는데서 언어의미에 대한 과학리론적토대를 튼튼히 하는것은 해당 외국어교육의 질을 높이며 학생들의 외국어실천능력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론문에서는 먼저 국내외의 학자들속에서 진행되고있는 언어의미에 대한 선행연구분석에 기초하여 현대영어의미론연구에서 제기되는 주요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밝히려고 한다.

1.1. 의미에 대한 선행연구분석

1.1.1. 의미에 대한 선행리론과 그 분석

언어의미에 대한 견해에서 대표적인것은 의미에 대한 심리주의적 및 물리주의적견해라고 찾아볼수 있다.

① 의미에 대한 심리주의적견해

의미에 대한 심리주의적견해의 대표적인 리론으로서는 개념설을 들수 있다. 개념설은 언어의미를 인간의 심리속에 존재하는 관념적인것으로 주장하는 리론이다.

개념설에서는 명명은 그 지시물이 지니고있는 공통된 속성의 총체를 의미하는것이라고 하면서 개념을 의미와 일치시키고 인간이 주위세계로부터 얻은 개념이 곧 의미라고 주장하였다.

개념설을 처음으로 내놓은것은 스위스의 언어학자 쏘쒸르(Ferdinand de Saussure)였다. 그는 언어를 기호의 체계로 보면서 언어는 사물과 명칭이 결합된것이 아니라 언어적외피로서의 기호와 인간의 두뇌에 주어진 개념이 서로 결합된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의미와 개념을 동일시하였다.

개념을 곧 의미로 보는 심리주의적견해는 표상설로 전개되였다.

표상설은 명명에 의하여 사람의 심리속에 떠오르는 대상, 현상이 곧 의미인데 실례로

《집》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에게 주는 표상 즉 각이한 형태의 건물들이 다 이 단어의 의미라고 하였다.

이 리론은 개념을 의미와 동일한것으로 본것이라든가 의미를 한 언어의 어휘구성체계속에서 전면적으로 연구하지 못한것과 같은 일정한 제한성이 있다.

② 의미에 대한 물리주의적견해

의미에 대한 물리주의적견해는 의미에 대한 심리주의적견해에 대립되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심리주의적견해가 의미분석에서 주관적이고 개성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과학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데로부터 객관성과 과학성을 가진 《의미》를 정의하려는 시도에서 나왔다. 례하면 불름필드(Leonard Bloomfield)는 사람들이 《소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려면 소금의 과학적개념인 NaCl을 알아야 하며 그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지시되는 《소금》이 그대로 그 대상의 의미로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리론은 단어의 기본의미를 규정할수 있는 리론적기초를 주는 동시에 심리주의적견해에 대치하던 나머지 의미를 지나치게 과학적측면에서만 분석한것과 같은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1.1.2. 의미에 대한 연구정형과 그 분석

① 의미를 언어전달의 내용으로 본 견해

《의미에 대한 연구는 오래동안 진행되였지만 아직까지 그 개념을 과학적으로 정식화한 사람은 없다. 의미는 그 기능적측면에서 다면성을 가지기때문에 어느 한면만을 강조하면 다른 한면을 홀시하게 되며 연구에서 어느 한 측면에 기울어지게 된다. 이로부터 의미의 다면적인 기능에 류의하면서 언어전달의 복합작용전체에 부합되는 의미의 개념을 규정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우리가 리해하는 의미란 언어전달의 내용으로 되는 부분을 말한다.》(《조선어의미론연구》 23페지 1996년)

② 언어의미를 말뜻으로 본 견해

《통속적으로 말해서 언어의미란 말뜻이다. 말뜻은 단어와 문장을 비롯한 언어단위들에서 표현된다는것, 말을 하거나 듣는 사람, 말할 때의 정황에 따라 구체화되고 서로 다르게 개별화된다는것 그리고 말뜻은 언어의 내용면을 이루는것으로서 사람들사이의 의사전달의 내용, 사상감정의 표현으로 된다는것이 주되는 내용을 이룬다.》(《조선어의미구조론》 6페지 주체94(2005)년)

③ 언어의미를 음운 또는 음운결합에 담겨진 내용으로 본 견해

《언어의 의미는 음운 또는 음운결합에 담겨진 내용이다.

형태부나 단어, 단어결합이나 구 및 문장과 본문은 어떤 음운이나 음운결합과 의미내용의 련계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내용은 음운결합이나 음운이 가리키는 대상이나 개념을 말한다.》(《일반언어학》 69페지 주체98(2009)년)

의미에 대한 견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일반적으로 의미란 말과 글의 언어형식에 의하여 전달되는 내용이라고 말할수 있다.

의미에 대한 연구정형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수 있다.

첫째로, 언어의미에 대한 정의를 위한 리론적기초를 옳바로 세우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둘째로, 언어의미에 대한 연구는 언어학의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하여 연구분석할 때 과학성을 보장할수 있다.

의미연구의 선행리론들은 의미의 연구가 언어학의 다른 분과들과 불가분리적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언어의미에 대한 연구는 어음론, 어휘론, 문법론, 문체론, 어용론 등 언어학의 모든 학문들과 유기적인 련관속에서 연구분석할 때 가장 과학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셋째로, 언어의미를 말뜻으로 본것은 언어의미론연구에서 어용론적측면이 필연적으로 제기된다는것을 보여준다.

1.2. 문제점제기

론문에서는 의미론연구와 관련하여 제기된 선행리론들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밝히려고 한다.

첫째로, 언어의미정의의 리론적기초와 언어의미의 본질적특성을 밝히며

둘째로, 현대영어의미론연구의 주요내용을 확정하며

셋째로, 현대영어의미단위설정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밝히는것이다.

2. 본 론

2.1. 언어의미의 본질

2.1.1. 언어의미정의의 리론적기초

의미는 사람들의 사고활동의 대상으로 될수 있는 모든 현상, 대상들에서 다 표현되는 사회적인식의 창조물이다. 실례로 하나의 점, 선, 동그라미, 색갈, 그림 등과 대상, 건물의 형태 그리고 음악이나 무용, 사람들의 몸짓이나 표정, 침묵도 말과 글로 전달되는 의미내용을 담고있다.

이처럼 그 어떤 표현형식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정보의 의미내용을 전달할 때에 그 형식과 내용의 결합체를 언어라고 말한다.

언어의미란 어떤 언어적형식과 수단에 의하여 표현전달되는 정보내용을 말한다. 즉 언어의미에는 말과 글의 언어뿐만아니라 음악, 무용, 건축,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정보적내용들이 포함된다고 말할수 있다.

모든 사물현상들이 내용과 형식의 두 측면을 가지고있는것처럼 언어도 내용과 형식의 두 측면을 가지고있다.

내용은 형식을 규정하고 제약하며 형식은 내용에 따르면서 그것을 표현한다.

언어에서 내용은 의미를 말하는것이며 형식은 어음과 글자를 말하는것이다.

어음이란 발음기관의 한번의 조음에 의하여 나오는 하나하나의 소리를 말한다. 어음은 언어에서 가장 작고 기층적인 위치에 놓이는 물질적단위이다.

매개 언어에는 그것에 고유한 어음체계가 있으며 어음체계는 크게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있다.

자음과 모음들이 바로 언어의 형식을 이루는 어음들이며 어음복합체의 형식으로 의미를 표현하는 물질적외피이다.

어음은 언어의 형식적측면으로서 사회적교제수단으로서의 언어의 성격을 규제한다.

형식이 언어의 성격을 규제하는것은 의미를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전달하는가에 따라 기호언어, 음악언어, 무용언어, 건축언어 등과 같이 각이한 언어분야들이 구체화되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말과 글에 의한 언어의미는 바로 어음이라는 물질적외피에 싸여 표현전달되는 언어의 내용적측면을 말한다.

2.1.2. 언어의미의 본질적특성

언어의미의 본질적특성은 세 측면에서 찾아볼수 있다.

첫째로, 언어의미는 객관적인 대상과 현상에 대한 인간의 인식, 사고에 의한 개념과 판단의 총화에 토대하여 이루어지고 발전한다.

개념이란 사물현상의 일반적이며 본질적인 징표에 관한 지식을 담고있는 사고형식이다.

언어의미는 객관적으로 개념에 토대하여 이루어지며 개념은 의미의 본질적내용을 특징짓는다. 따라서 개념은 의미와 밀접한 련관관계에 있게 된다.

그러나 개념과 의미는 언제나 일치하지 않는다.

우선 개념은 사고방식의 범주로서 론리적법칙의 지배를 받지만 의미는 언어적범주로서 언어체계안에서 언어적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또한 개념은 객관세계의 사물, 현상, 과정, 성질, 상태 등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며 본질적인 속성들을 내용으로 하고있지만 의미는 개념을 반영하면서도 그외에 감정정서적의미를 비롯한 보충적의미를 포함하면서 끊임없이 발전풍부화된다.

또한 모든 의미가 다 개념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개념을 나타내지 않는 유의미적인 단어부류들에서 찾아볼수 있다. 실례로 대명사, 감동사, 수사, 고유명사 같은것들은 개념을 나타내지 않고 대리적이거나 관계적인것 또는 감동의 표현으로 쓰인다. 다만 언어형식이 지시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없기때문에 그 대상의 본질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개념이 없을뿐이다. 이것은 개념마당이 의미마당보다 작다는것을 보여준다. 즉 《개념＜의미》와 같이 표현할수 있다.

둘째로, 언어의미는 사람에 의하여 창조되고 발전하는 사회적현상으로서 사회적성격을 띤다.

언어의미가 사람에 의하여 창조되고 발전하는 사회적현상으로서 사회적성격을 띤다는것은 언어의미가 인간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에 의하여 형성되며 전사회적규모에서 통일적인 성격을 띠면서 사람들의 언어행위에 사용된다는것을 말한다.

우선 인간은 고도로 발전된 두뇌와 발음기관에 의하여 주위세계에 대한 과학적인식과 창조적사고 그리고 그것을 말과 글로 표현전달할수 있는 언어능력을 지니게 됨으로써 언어의미의 창조자, 향유자로 된다.

인간의 인식, 사고과정을 거쳐 주어지는 개념과 판단이 어음과 글자라는 언어적형식으로 고착될 때 의미객체(의미의 대상)는 비로소 언어적의미를 담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은 인간의 의식활동과 언어구사를 통하여서만 실현된다. 그러므로 언어

의미는 전적으로 인간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발전하는 사회적현상이다.

또한 언어의미는 하나의 언어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하는 사회적집단의 성원들모두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사용되는 사회적유산이다.

또한 언어의미는 사회적으로 공통적인 활동분야를 포괄한다.

공통적인 행동들과 관습들은 그 사회의 문화를 이룬다. 례하면 뜻깊은 명절에는 꼭 민족의상을 하는것, 설을 지내는 풍습 등이 민족들의 풍습이나 관습이라고 말할수 있다. 언어생활도 사회의 문화에 속하는 하나의 공통적인 활동분야로 되는것만큼 언어는 사회적으로 약속된 관습에 따라 사람들사이의 교제수단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언어의미가 사회적성격을 띤다는것을 보여준다.

셋째로, 언어의미는 철저히 민족적성격을 띤다.

언어의미의 민족적성격은 우선 어음과 의미의 자의적결합에서 찾아볼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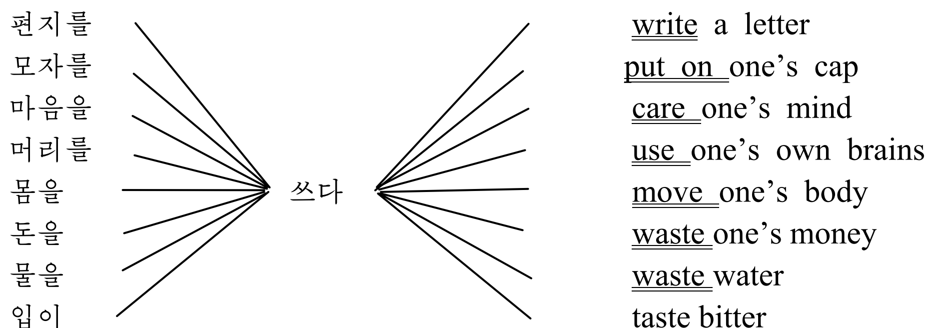
어떤 음운렬이 어느 특정한 의미에 대응되는가는 그 언어의 고유한 법칙으로 된다. 이것을 흔히 대상명명의 자의성이라고 한다. 자의성이란 어떤 특정한 대상에 어떤 특정한 음운렬을 대응시키는가 하는것이 해당 민족어의 소유집단에 달려있다는것이다.

실례로 H_2O의 개념은 조선어에서는 《물》이라는 음형을 가지지만 영어에서는 water[wəːtə], 로어에서는 вода[vada], 도이취어에서는 wasser[wάsə]와 같이 서로 다른 음형을 가진다. 이와 같은 어음과 의미의 자의성은 언어의 민족적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언어의미의 민족적성격은 또한 어휘적의미의 내용과 그 폭에서 찾아볼수 있다.

언어들에서 서술적기능에 의한 어휘적의미의 대상론리적의미는 많은 공통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해당 언어의 어휘적의미에 론리적내용과 함께 어떤 감정정서적내용이 담겨지는가 하는것은 민족마다 다르다. 례를 들어 조선어에서 파충류의 한 종류인《뱀》은《징그럽다》,《끔찍하다》,《소름이 끼치다》등의 감정정서를 나타내기때문에《뱀에게 놀란 놈 새끼오리보고도 놀란다》등의 성구와 속담들에 많이 쓰인다. 그러나 서유럽나라들에서는《뱀》이《성스러운것》,《용맹한것》등의 감정정서적뜻빛갈을 가지고있다.

언어의미의 민족적성격은 또한 단어들의 뜻관계와 그 폭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단어의 뜻관계와 그 폭은 언어마다 다르다. 아래의 실례에서 보는것처럼 조선어의 동사《쓰다》는 영어에 비하여 다른 단어들과의 뜻관계와 그 폭이 대단히 넓다.



이것은 조선어와 영어에서 단어들의 의미폭이 같지 않다는것을 보여준다.

언어의미가 이처럼 민족적성격을 띠는것은 사람들의 생활이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고 해당 민족의 력사와 문화가 언어에 그대로 반영되기때문이며 언어의미가 해당 언어체계의 합법칙적과정속에서 변화발전하기때문이다.

2.2. 현대영어의미론연구의 주요내용

어음과 글자에 의하여 표현되는 언어의 중핵적인 의미부분을 리해하지 못하거나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언어를 안다고 말할수 없다.

언어를 안다는것은 형식이라는 물질적외피에 의하여 표현되는 의미내용을 알뿐아니라 의미의 식별능력과 활용능력을 갖추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현대영어의미론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맞게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영어의 말과 글에 의한 언어행위에서 의미의 식별능력과 활용능력을 키워주는데 필요한 언어의미론적 지식을 주는데 중점을 두고 의미현상들을 연구해야 한다.

현대영어의미론연구의 주요내용을 몇가지 형태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의미가 있는것과 없는것에 대한 의미식별능력이다.

다음의 실례들에서 의미가 있는것과 없는것을 식별하며 의미가 없다면 왜 없는가를 분석할수 있다.

a. Henry drew a picture.

b. Henry laughed.

c. The picture laughed.

d. Picture a Henry drew.

우의 례문들에서 a와 b에는 의미가 있으나 c와 d에는 정보적내용이 없다. 정보적의미를 나타내지 못하는 말들은 비문법적인 말로서 변칙성(anomaly)의 경우를 보여준다.

둘째로, 문맥적으로 본질상 같은 의미를 나타낼수 있는 동의어들의 의미적특성에 대한 지식과 활용능력이다.

다음의 례문에서 문장의 옆에 있는 단어는 문장의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밑줄을 그은 단어와 교체될수 있다.

Where did you <u>purchase</u> these tools?(<u>buy</u>)

대입할수 있는 단어들이 주어진 문맥에서 류사한 뜻을 나타내는것은 이 단어들의 동의성(synonymy)에 기인된다.

셋째로, 주어진 문맥에서 반대되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들의 의미적특성에 대한 지식과 활용능력이다.

실례로 례문의 밑줄을 그은 단어에 대립되는 단어를 고를수 있다.

Betty cut a <u>thick</u> slice of cake.(bright / <u>thin</u> / soft / new / wet)

thin이 thick와 반대되는 의미를 나타내는것은 이 단어들의 반의성(antonymy)에 기인된다.

넷째로, 동의어와 반의어를 구별적으로 특징지어주는 어휘-의미적속성에 대한 지식과 구별능력이다.

아래의 실례 a와 b에 있는 단어들은 어떤 공통적인 의미성분에 의하여 동의어와 반의어로 구분된다.

a. street / lane / road / path / avenue

b. success / fail

다섯째로, 영어문장들에서 표현되는 모호성(ambiguity)에 대한 의미론적지식이다.

영어문장들은 어휘의미적, 문장구조적특성에 따라 때때로 모호성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다.

례: a. Mary doesn't care for her parakeet.

해석: ① (doesn't like it: 매리는 애기앵무새를 좋아하지 않는다.)

② (doesn't take care of it: 매리는 앵무새를 돌보지 않는다.)

b. Mary took the sick parakeet to <u>a small animal hospital.</u>

(<u>small hospital for animals</u>: <u>hospital for small animals</u>)

①　　　　　　　　　②

해석: ① (매리는 병든 애기앵무새를 동물들을 위한 작은 병원으로 가져갔다.)

② (매리는 병든 애기앵무새를 작은 동물들을 위한 병원으로 가져갔다.)

우의 례문들의 정확한 의미는 문맥이나 사람들의 문장의미해석능력에 따른다.

여섯째로,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말들에 대한 식별능력이다.

a. Rebecca got home before Harry.(레베카는 해리보다 앞서 집에 왔다.)

b. Harry arrived at home after Rebecca.(해리는 레베카가 온 후에 집에 왔다.)

우의 례문들은 본질적으로 같은것에 대한 등가적인 진술을 나타내는 문장들로서 의역(paraphrase)의 경우를 보여준다.

일곱째로, 이야기내용의 의미적대립에 대한 식별능력이다.

아래의 례문들은 모두 한 사람에 대한것이지만 그중 한 문장이 진리이면 다른 문장들은 반드시 허위로 되는 방법으로 서로 련관된다.

a. Edgar is generous.(에드가는 너그럽다.)

b. Edgar is fairly young.(에드가는 상당히 어리다.)

c. Edgar is short.(에드가는 키가 작다.)

우의 례문들은 같은 주제에 대하여 반대되게 진술하는 대립(contradiction)의 경우를 보여준다.

여덟째로, 문장들의 함의관계(entailment)에 대한 의미론적지식이다.

두개의 진술문중에서 하나가 진리이면 다른것도 진리로 되는 방법으로 두 진술문들은 서로 련관될수 있다.

a. There are tulips in the garden.(정원에 튤립이 있다.)

b. There are flowers in the garden.(정원에 꽃이 있다.)

례문의 a와 b가 하나의 같은 정원을 념두에 둔것이라면 a의 진리는 b의 진리를 담보한다. 이 례문은 함의관계의 경우를 보여준다.

아홉째로, 문장들의 전제관계에 대한 의미론적지식이다.

문장에서 주어지는 정보적내용들은 전제로 되는 지식들을 배경으로 한다. 실례로 례문 a가 진리로 인정되면 사람들은 례문 b−e도 역시 진리로 인정한다.

a. Andy usually drives his Datsun to work.

(앤디는 보통 다춘을 타고 일하러 간다.)

b. There is a person named Andy.(앤디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다.)

c. Andy works.(앤디는 일한다.)

d. There is a Datsun that belongs to Andy.(앤디는 다춘을 가지고있다.)

e. Andy knows how to drive an automobile.(앤디는 차를 몰줄 안다.)

문장 a의 의미는 b, c, d, e와 같은 배경지식을 전제로 한다. 례문의 b, c, d, e와 같은 배경지식들은 문장 a의 전제들(presuppositions)이다.

열째로, 대화에서 적중하게 표현할줄 아는 언어활용능력이다.

대화에서 한 사람이 질문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면 그에 대하여 가능한 각이한 대답들을 하거나 응수하는 말을 할수 있다. 아래의 례문에는 질문에 대한 일부 답변들이 주어졌는데 c를 내놓고는 모든 답변들이 적중하다고 볼수 있다.

When did you last see the professor?

(당신은 마지막으로 언제 선생님을 보았습니까?)

a. I think it was on the first of June.(6월 1일이라고 생각됩니다.)

b. Last Tuesday.(전번주 화요일에 보았습니다.)

c. Very nice.(대단히 좋습니다.)

질문과 대답 혹은 두번의 발화가 대화로 이어지고 여기서 두번째 발화가 첫번째 발화에 적중하게 련관된것이면 그것들은 대화쌍방이 발화의 적중성(compatibility)에 따르는 언어활용능력을 가지고있다고 볼수 있다.

언어행위에서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활용하는 의미의 변칙성, 영어어휘의 동의성, 반의성, 의미속성, 모호성, 영어문장들의 동의관계, 반의관계, 함의관계, 전제관계, 발화행위의 적중성 등은 현대영어의미론연구와 교수실천에서 주요내용을 이룬다.

2.3. 현대영어의미단위의 설정

언어의미론연구에서 의미단위문제는 언어의미론연구의 학술적인 체계를 정립하고 의미연구의 대상과 그 령역을 확정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론문에서는 의미단위설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제기하게 된다.

첫째로, 의미단위설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둘째로, 선행리론들에서 제기된 부족점들을 극복하면서 의미단위를 과학리론적으로 타당성있게 정립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셋째로, 의미단위에 대한 연구에서 어떤 내용들이 취급되여야 하는가?

론문에서는 먼저 의미단위설정을 위한 기준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기초하여 영어의미단위를 의미의 체현단위와 실현단위로 새롭게 제기하고 밝히려고 한다.

2.3.1. 의미단위의 설정기준

언어적단위가 지니고있는 일반적인 징표가 그러한바와 같이 어떤 의미표식이 의미단위로 되려면 언어행위에서 재생될수 있고 시차적특성에 의하여 구획될수 있어야 하며 층계적관계를 이루면서 의미표현이 실현되여야 한다.

언어에는 형태부, 단어, 문장, 본문 등의 언어단위들이 있는데 이 모든 언어적단위들은 종국적으로 언어행위에서 의미표현의 실현을 위하여 복무하는 실질적의미의 단위들이다.

언어의 모든 질서들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의미와 련관관계를 가지며 종국적으

로 언어가 사람들사이의 통신수단으로서 복무하도록 이바지하는데로 지향된다.

언어의 모든 단위들이 다 사람들사이의 사회적교제의 내용으로 되는 통신적의미를 실현하는데 참가하지만 그것들이 의미와 관계하는 방법과 측면은 꼭같지 않으며 의미실현에 참가하는 단계도 서로 다르다.

실지 언어행위에서 실현되는 통신적의미는 모든 언어단위들이 동시적으로 참가하여 단번에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말소리들이 결합되여 유의미적형태소를 이루고 또다시 재생되여 문장의 의미실현에 참가할수 있는 자립적인 어휘소를 이룬다. 이렇게 원시적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어휘소에 체현된 의미는 문법과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통신적의미를 실현할수 있는 문장을 이룬다. 문장은 또다시 문장군, 문단으로 묶이여 본문을 이루어 정보전달을 완결시켜주며 대화자들사이의 통신을 보장한다.

이것은 모든 언어단위들이 다 언어적의미의 실현을 위하여 일정한 규칙에 복종되고 단계적으로 올라가면서 의미와 관계하며 통신적의미의 실현에 참가한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언어의미의 실현에 참가하는 언어단위들 말하자면 형태소, 어휘소, 문장, 본문은 모두 언어의 의미단위로 된다고 말할수 있다. 문제는 이 의미단위들이 의미와 관계하는 단계와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단위설정기준을 설정한데 기초하여 론문에서는 언어의미론연구의 목적과 사명에 맞게 의미표식들이 의미와 관계하는 방식과 역할에 따라 언어의미단위를 의미의 체현단위와 실현단위로 구분하려고 한다.

2.3.2. 의미의 체현단위

1) 의미의 체현단위에 대한 리해

의미의 체현단위란 객관세계와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의미내용들을 실질적인 언어행위에서 사용할수 있게 어음복합체에 고착시켜놓은 언어의 량면적인 단위들을 말한다.

영어의미의 체현단위에는 형태소와 어휘소가 속한다.

어휘소란 독자적이며 완전한 의미를 가지고있으면서 말과 글의 언어행위에서 지시하고 설명하는데 참가할수 있는 언어의미체현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영어의미체현의 기본단위는 어휘소이다.

그것은 우선 형태소와 비교하여볼 때 어휘소가 어휘의미적으로 일반화와 추상화가 완전히 실현된 자립적인 언어단위이기때문이다.

형태소들에는 의미적자립성을 가지고 뜻쪼각으로 더는 갈라지지 않는 말뿌리형태소들이 들어있으며 의미적자립성이 없고 독자적으로 언어행위에 참가하지 못하는 비자립적인 형태소들도 많다.

말뿌리형태소들은 의미구조적으로 어휘소와 등가적인 지위에 있지만 덧붙이형태소들은 의미-구조적으로 자립성이 없으며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어휘소는 의미를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표현할수 있으며 언어행위속에서 재생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덧붙이들과 같은 형태소들은 의미-구조적으로 일반화와 추상화가 철저하게 실현되지 못했으므로 어휘소와 등가적이라고 말할수 없다.

그것은 또한 형태소와 어휘소가 관계하는 언어적단위들이 같지 않기때문이다.

형태소는 유의미적단위들가운데서 가장 작은 단위이다. 말뿌리와 말줄기, 덧붙이 등

의 형태소들은 어휘소를 의미-구조적으로 완성시키는데 참가한다면 어휘소는 보다 자립적이고 완성된 의미-구조적형태를 갖추고 그보다 높은 단계인 문장의 의미를 실현시키는데 참가한다.

따라서 형태소는 유의미적최소단위로서 어휘소보다 낮은 질서의 의미체현단위이며 어휘소는 형태소에 비하여 보다 높은 질서의 의미체현단위라고 말할수 있다.

어휘소(lexeme)는 의미체현의 기본단위이다.

어휘소의 개념은 1977년 라이언즈(Lyons)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기되였다.

《의미론》(주체97(2008)년)에서는 어휘소를 의미체현단위로 지적하였지만 의미의 체현단위와 실현단위에 대하여 명백하게 구분하지 못한 제한성이 있다.

《어휘소는 하나의 독자적이고 완전한 의미체현단위이며 여러 언어행위에서 재생되는 특성을 만족시켜주는 표현단위이다. 어휘소는 의미표현의 완전하고 독자적인 단위로 되며 동시에 의미실현의 기본단위로 된다.》(39페지)

어휘소란 독자적이며 완전한 의미를 가지고있으면서 말과 글의 언어행위에서 지시하고 설명하는데 참가할수 있는 언어의미체현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어휘소는 형태소와는 달리 객관세계의 대상 및 현상들과 련계를 가진다.

선행한 전통언어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어를 언어의 기본단위로 취급하여왔다.

론문에서는 단어와 어휘소가 일정하게 구획되는 점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구별하여 연구하려고 한다. 다음의 실례를 통하여 단어와 어휘소를 구별할수 있다.

a. go, going, went, gone

b. put up with, kick the bucket, dog in the manger

이 실례는 1977년에 라이언즈가 단어와 어휘소와의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어휘소(lexeme)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제기하면서 보여준것들이다.

실례 a에서 네개의 형태들은 함께 공유하는 하나의 어휘적의미와 거기에 첨가된 서로 다른 문법적성질의 의미들도 가지고있다. 따라서 a의 형태들은 서로 다른 네개의 문법적의미들을 가지고있는 형태단어들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이 네개의 형태들은 어휘소 go의 형태단어들이다.

실례의 a에서 어휘소와 단어와의 관계를 상수와 변종의 관계로서 설명할수 있다.

《상수적인것》 또는 《상수》는 수학에서 불변량을 나타내는 글자나 수를 가리키는 《상수》의 개념을 언어학에 도입하여 붙인 용어이다. 상수는 변종과 대치되는 개념이다. 언어에서 상수적인것(상수)이란 구체적인것들에서 일반화된 언어의 추상적인 구조적단위, 요소, 류형들을 말한다.

우의 실례에서 go는 같은 의미를 가진 네개의 형태단어들의 상수이며 네개의 형태단어들은 상수인 어휘소 go의 변종들이라고 말할수 있다. 어휘소와 단어의 관계는 이처럼 상수와 변종의 관계로 리해할수 있다.

실례 b에서는 다른 문제점을 찾아볼수 있다. 표현 put up with는 어휘소들인 put와 up, with가 결합되여 이루어진것이다. 그러나 그것의 의미는 개별적인 어휘소들의 결합적합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endure(참다)의 뜻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성구들은 자기 고유의 어휘적의미를 보유하는 하나의 어휘소로 된다. 또 다른 실례를 들면 kick the bucket는 die(죽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하나의 어휘소이다.

이와 같이 단어, 성구, 속담과 같은 각이한 어휘적형태로 고착된 사람들의 인식결과는 어휘소들의 의미내용을 이룬다.

그러므로 어휘소는 하나의 독자적이고 완전한 의미를 체현하고 여러 언어행위들에서 재생될수 있는 특성을 가진 의미체현의 기본단위이다.

2) 의미체현의 기본단위로서의 어휘소의 의미내용과 표현방식

의미체현의 기본단위인 어휘소는 대상론리적상관성과 감정정서성을 기본내용으로 체현하고있다.

어휘소의 대상론리적상관성은 서술적기능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감정정서성은 표현적기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때문에 대상론리적상관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의미(대상론리적의미)를 서술적의미라고도 하며 언어의 표현적기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감정정서적의미(뜻빛갈)를 표현적의미라고도 한다.

어휘소의 대상론리적의미(서술적의미)는 언어밖의 현상들과의 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의미이며 뜻빛갈(표현적의미)은 사람들의 태도와 감정에 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의미이다.

대상론리적상관성과 감정정서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의미들은 서로 대립되면서도 보충하며 뚜렷이 구별된다.

어휘소가 의미하는것은 부분적으로 관계적측면인 다른 어휘소들과의 련관성에 의하여 표현된다. 말하자면 말과 글에서 표현되는 어휘소의 의미는 그것이 어떤 다른 표현들과 함께 어울려 나타나는가 혹은 어떤 표현들과 대조되여 나타나는가 등의 문맥에 따라 달라진다.

어휘소의 의미와 그것이 언어형식에 활용되여 나타내는 의미에는 실질적차이가 있다. 말과 글에서 어휘소들이 부여받는 의미들은 이야기에서 그것들과 련관된 다른 어휘소들과의 론리적의미관계에 의하여 형성된다. 이러한 관계에 의하여 한 어휘소가 림시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의미를 그 단어의 뜻(sense)이라고 한다.

어휘소들의 뜻관계는 두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로, 한 어휘소가 구나 문장에서 함께 어울려 쓰이는 다른 어휘소들과의 관계이다. 실례로 arbitrary는 judge와, happy는 child와, sit는 chair와, read는 book나 newspaper와 의미적으로 어울려 쓰일수 있다. 구나 문장에서 어휘소들이 론리적으로 의미적련관을 가지고 어울리는것을 통합적관계(syntagmatic relations)라고 말한다. 통합적관계는(필수적으로 꼭 그 옆에 오지 않지만) 련속으로 된 둘 혹은 그이상의 어휘소들의 호상련관관계로서 매 어휘소들은 다른 어휘소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그것들의 의미는 모두 구나 문장과 같은 보다 큰 단위의 의미를 실현시키는데 참가한다.

둘째로, 구나 문장에 대입될수 있는 어휘소들의 관계이다. 실례로 사람들은 《The judge was arbitrary.》라고 말하지 않고 《The judge was cautious.》라고 말할수도 있다. 혹은 arbitrary대신에 careless, busy, irritable 등의 어휘소들을 대입할수 있다. 문장에서 대입될수 있는 어휘소들의 이러한 관계를 련합적관계(paradigmatic relation)라고 말한다. 련합적관계는 또한 선택적관계라고도 말한다. 그것은 같은 위치에 올수 있는 여러 단어들가운데서 임의의 단어를 선택할수 있기때문이다.

어휘소들의 뜻관계를 방향적으로 표시하면 통합관계는 핵심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하

여 의미구조적으로 결합되는 수평적관계이며 련합관계는 가능한 의미령역의 어휘소들이 론리적으로 대입될수 있는 수직적관계라고 말할수 있다.

2.3.3. 의미의 실현단위

1) 의미의 실현단위에 대한 리해

문장은 일정한 문법규칙의 지배밑에서 자립적인 어휘소들과 문법적기능어들의 결합으로 구라는 의미단위를 구성하고 그것이 더 확대되여 절을 이루며 절들이 결합하여 전일적인 하나의 완성된 통신적의미를 나타내는 언어의미실현의 기본단위이다.

전통언어학에서는 문장의미론문제가 언어학의 주요연구대상으로 제기되지 못하였다. 전통언어학에서는 문장의 의미를 단어와 단어결합의 의미로 보거나 문법의 관계적의미로만 보았다.

사람들사이의 언어교제는 어휘만을 가지고 실현되거나 문법만을 가지고 실현되지 않는다. 사람들의 언어행위는 어휘와 문법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사상을 표현할수 있는 문장에 의하여 실현된다. 때문에 전통언어학연구에서 어휘와 문법이 언어학의 주요범주로 인정되였다면 현대언어학연구에서는 그 연구성과에 토대하여 문장과 본문의 의미연구에 초점이 돌려지고있다.

이것은 현대언어학연구가 언어실용론적방향으로 향해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 그것은 바로 어휘가 언어의미를 잠재적으로 가지고있는 의미체현단위라면 문장은 언어에 잠재적으로 체현되여있는 의미를 통신적의미로 실현시키는 의미실현의 기본단위이기때문이다.

통속적으로 말하여 언어의미론의 일관한 연구목적은 인류력사발전과정에 매개 언어들의 어휘구성에 잠재적으로 고착되여있는 사전적의미가 사람들의 구체적인 언어행위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밝히며 그 과정에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해명하는데 있다고 볼수 있다.

언어의미실현단위에 대한 연구에서는 문장구조의 층계성, 문장의미실현의 언어적 및 비언어적요소에 중점을 두고 연구할수 있다.

2) 문장구조의 층계성

일반적으로 층계성(hierarchy)이란 낮은 층계의 단위로부터 높은 층계의 단위에로 상승적인 질서를 이루는 단계적성격을 말한다.

문장의 층계구조는 단어들이 의미-구조적으로 서로 상관되는것들끼리 먼저 결합한 다음 그 결합체들이 그보다 높은 층에로 확대되여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문장구조가 층계적으로 이루어지는것만큼 문장의미의 실현도 층계성을 띤다. 문장의 의미는 문장구조를 이루는 아래준위들의 의미에 기초하여 실현된다.

문장구조의 층계를 이루는 하부구조들에서 단어는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된다. 모든 문장준위의 구조들은 단어들을 구성요소로 하며 그것들의 상관관계를 맺어주는 결합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문장구조의 가장 기초단계를 이루는것은 구(phrase)구조이다. 구란 하나의 품사소속성에 기초하여 식별될수 있는 문장의 기초적성분단위이다. 구는 문장에서 개별적인 단어들이 가장 단순한 단어결합규칙에 따라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어들의 문장론적결합구조이다. 구는 그자체가 아직은 문장이 아니지만 문장구성을 위한 기초성분으로 된다. 구구

조의 의미는 그것들을 구성하고있는 단어들의 의미와 이 단어들을 결합시키는 문장론적 결합질서에 의하여 주어진다.

구의 결합질서는 구의 의미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① grandfather of father(father's grandfather)(아버지의 할아버지)

② father of grandfather(grandfather's father)(할아버지의 아버지)

문장구조의 아래준위에는 또한 절(clause)의 구조가 있다.

단순구조단어결합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구는 보다 높은 형태의 결합관계에 따라 문장형태를 기본적으로 갖춘 절을 형성한다.

구가 단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문장구조의 1차적인 결합구조라면 절은 단어나 구들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준문장론적구조이다. 절을 문장이라고 부르지 못하는것은 절에 문장의 기본징표인 진술성이 결여되여있기때문이다.

문장의 본질은 진술성에 있다.

진술성이란 진술내용이 현실과 맺는 련계의 성격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진술내용을 현실과 련관시킬 때 말하는 사람과 말듣는 사람, 이야기대상과의 관계에서 표현되는 존칭관계, 양태적관계, 시칭관계 등의 문법적성격을 말한다.

진술내용은 말하는 사람의 진술적의도에 따라 적중한 단어들이 선택되고 그 단어들이 문법구조적으로 결합되였을 때 실현되는 절의 의미내용이다.

진술성의 의미는 이와 같은 진술내용이 현실에 귀착되였을 때에 이루어지는 문장의 현실적의미로 특징지어진다.

영어에서 문장과 절을 구분해주는 진술성은 진술내용의 시작과 끝에서 실현되는 문장론적표식과 억양에 의하여 실현된다.

영어문장의 진술성은 문장의 시작과 끝에서 실현되는 문장론적표식에 의하여 표현된다.

억양은 문장과 절을 구분해주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장에서 억양은 진술성의 기본담당자이다.

억양은 일정한 언어적단위를 문장으로 만들고 그의 갈래를 규정지으며 진술내용의 의미적차이나 의미적색갈을 가를뿐아니라 문장론적단위들을 구획짓고 통일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절은 진술내용은 있지만 진술성이 없기때문에 문장으로 되지 못하며 문장은 진술내용과 진술성의 표식들을 다같이 가지고있으므로 문장구조의 형태를 갖추고있다고 볼수 있다.

영어에서 절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복합문장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절들이 나타내는 진술내용들과 절들을 결합하는 접속사들의 어휘-문법적의미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구로부터 시작하여 문장에 이르기까지의 이와 같은 문장구조의 준위들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적의미는 단어의 의미와 해당 준위에 작용하는 결합규칙의 유기적인 련관속에서 층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구구조의 준위에서는 단순한 단어결합의 원리가 작용하며 절구조의 준위에서는 구성성분들사이에 상관관계의 결합규칙이 작용한다.

문장은 이와 같은 구와 절의 구성원리에 기초하여 층계적으로 건설되며 문장의 기본징표인 진술성을 획득함으로써 언어의미실현의 기본단위로 된다.

3) 문장의미실현의 언어적 및 비언어적요소

문장의미실현의 언어적요소에는 어휘와 문법, 운률소가 있다.

우에서 본 문장구조의 아래준위들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보게 되는 특징은 매 준위의 구조들이 단어의 어휘적의미와 문법의 관계적의미의 항시적이며 전일적인 결합체들이라는것이다. 이것은 문장이 철두철미 어휘와 문법을 재료와 설계도로 하여 만들어지며 어휘적의미와 관계적의미의 의미적복합체라는것을 증명해준다.

문장의 통신적의미는 또한 억양과 력점을 기본으로 하는 운률소에 의하여 담보되며 완성된다.

그러므로 어휘와 문법, 운률소는 문장을 이루고 통신적의미를 실현시키는 문장의미실현의 3대구성요소라고 말할수 있다.

문장의미실현의 비언어적요소에는 언어환경이 있다.

언어의미실현에서 언어환경의 중요성은:

첫째로, 다의적문장인 경우 여러 문장의미가운데서 어느 의미로 쓰이였는가를 가려볼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둘째로, 중단문이나 불완전구조로 된 문장의 의미를 보충하고 완성하여준다는데 있다.

셋째로, 문장이외의 여러 어용적의미를 보여준다는데 있다.

언어환경 즉 사람들의 처지와 심리상태, 이야기의 정황 등은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리해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층계적으로 형성되는 문장구조는 우에서 본 언어적 및 비언어적요소들의 유기적인 결합관계속에서 실제적인 문장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3. 결 론

언어의미정의의 리론적기초와 언어의미의 본질적특성, 언어의미연구의 주요내용, 의미단위설정 등에 대한 과학적해명은 현대영어의미론연구의 기초적인 리론적문제들로서 영어교수실천에서 제기되는 언어의미의 성분화원리와 의미마당문제, 영어어휘의 다의성문제, 영어문장의미의 모호성문제, 언어행위의 표현방식 등에 대한 문제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해명하며 교수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과학리론적기초로 된다.

우리는 앞으로도 의미론분야에 대한 연구사업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함으로써 외국어교육의 과학리론적토대를 보다 강화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떠메고나갈 실력있는 인재들을 키워내는데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언어의미, 의미단위, 어휘소, 문장의미, 층계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어문학 주체108(2019)년 제65권 제2호
(루계 제546호)

낸 곳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인쇄소 **김일성**종합대학인쇄공장
인쇄 주체108(2019)년 9월 20일 발행 주체108(2019)년 9월 30일

ㄱ－1961238 값 200원

ISSN 1727-950X
Address: Ryongnam-dong, Ryomyong Street,
Taesong District, Pyongyang
E-mail: ryongnamsan@star-co.net.kp
Fax: 0085-02-381-4410, 0085-02-381-4427

정기간행물번호
제19923호

